

2021

昌寧文化

제41호



창녕문화원

| 문예중흥선언문 |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 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속에 꽃피우고 우리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년 10월 20일

| 문화비전선언문 |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CONTENTS •차 례

문예중흥 선언문

문화비전선언문

발간사

창녕문화원장_ 이수영 007

축사

창녕군수_ 한정우 008

창녕군 의회 의장_ 이철봉 009

창녕경찰서장_ 김현식 010

2021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011

창녕문화원 홈페이지 개설 운영 028

창녕문화원 문화공간 시설 증축 소식 030

좋은 생각 좋은 글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를 그리워하며!!_ 이상주 032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_ 김동식 035

창녕은 살아있다 - 고향의 맛과 멋, 독배기와 장맛_ 김영국 038

직선적 인과관계와 순환적 인과관계_ 성낙진 043

우리는 과연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_ 유영숙 046

반포의 삶_ 진태홍 048

경천애인_ 진태홍 050

6.25 한국전쟁의 회고, 내 생애에 가장 뼈아픈 추억_ 최수길 052

고욤나무에 감이 열리는 비결_ 한삼윤 074

팔자대로 산다_ 문경주 078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창녕의 옛 지명에 대한 고찰_ 한삼윤	086
잠자는 천년고찰 창녕 용흥사를 깨우자_ 김화영	097
나무로 부터 듣는 창녕이야기_ 김화영	103

시와 한시 / 서예 작품

할애비 천국_ 김우식	136
팔순생조 유감_ 김호일	137
독 남명선생 신명사도 유감_ 김희덕	138
한강_ 문경주	139
넙치_ 신익교	140
두메산골_ 신익교	141
용선대(백경고래, 펭귄새)_ 신익교	142
월야등 화왕산_ 하재훈	143
매화/푸른 소나무/반야심경_ 신한순	144
호학과 몸가짐_ 김동식	145
남이 장군 시_ 김영희	146
수처작주_ 하명술	147
황금백만불여일교자_ 이봉임	147
동행_ 손명선	148
이태백 시_ 성태기	148
무제_ 광병운	149
무제_ 김영수	149
무제_ 사공순	150

CONTENTS •차례

역사문화 및 여행기

낙동강 물길 따라 창녕의 나무 탐방 보고서_ 김부열	152
세종대왕의 그늘_ 성두철	159
구례 화엄사와 운조루에 대한 단상_ 한삼윤	177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내고장 자랑스러운 창녕을 소개합니다_ 창녕중 2학년 박민준, 신영웅, 이도영 ..	190
환경보호! 우리가 알려주꾸마잉~_ 신창여중 3학년 박지혜, 김지형, 박소영	192
거기 거다 역새 역수로 많은데 ‘화왕산’ !!!!!_ 신창여중 3학년 김다빈, 김미주, 박지연	194

교양 및 정보

사단법인 경화회 소개_ 경화회장 박근성	198
-----------------------------	-----

수상소식

창녕군민 대상 수상	206
제21회 황우문화상 수상	207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국무총리상 수상	209

창녕의 전통사찰 소개	212
-------------------	-----

2022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232
--------------------------	-----

창녕문화원 조직도	234
-----------------	-----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235
-------------------------	-----

발간사

신축년을 보내고 임인년 새해를 맞는 시점에, 2021창녕문화제41호가 발간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전 문화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자축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책자가 완성되기 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부응해서 다소 늦었지만 창녕문화원 홈페이지와 유튜브가 새롭게 개설되어 창녕문화에 대한 정보공유와 참여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책 읽는 창녕, 독서하는 군민’운동에 부응해서 ‘책과 꽃 드림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독서 켈린지 운동’에도 동참하여 군민 독서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켰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 돕기와 창녕군 주소 갖기 운동 캠페인에도 앞장서 참여해 옴으로써, 전 군민이 하나가 된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의회의 협조 하에, 향토사연구소 주축으로, ‘스토리텔링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란 책자가 발간되어, 숨겨진 창녕의 역사와 전설, 이야기들을 발굴 선양하는데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신축년 한 해 동안 별관 새 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임인년 새해 상반기에는 새로운 건물에서 마음껏 문화 활동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뜻을 모아주신 회원가족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동참에 대해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녕문화지’는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우리 창녕문화의 총 결산입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 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도 우리 군민의 문화 향수권 확보와 함께,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끊임없이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창녕문화 제 41호 발간을 거듭 자축하면서 소중한 자료와 옥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과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녕문화원장
이수영

2021년 12월



축사



창녕군수
한정우

코로나19라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창달하며 군민의 문화 역량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녕문화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고장의 전통 문화지인 「제41호 창녕문화」 발간을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고도로 발전된 인터넷 기술과 함께 넷플릭스 등과 같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미디어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문화를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명의 이기(利器)를 통한 문화 욕구 충족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경험이 아닌 관람 중심의 문화, 세계화로 인한 지역의 고유문화 상실 등의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금번 「제41호 창녕문화」 발간은 우리 고장의 문화를 대변하고 끊임없이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향토문화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창녕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하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는 현대에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향토문화들이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에서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제41호 창녕문화」 책자 발간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군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책 읽는 창녕, 독서하는 군민' 운동의 확산에 큰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문화원의 건승과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축사

창녕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그 자료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제41호 창녕문화」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연구하시는 창녕문화원 이수영 원장님과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마흔한번째 발간하는 「창녕문화」는 창녕의 현재를 살아가는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이 저마다의 해석과 표현방식을 통해 탄생하는 수많은 작품들로 채워지는 한 권의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창녕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들이 만들어낸 한 편의 작품에는 우리 일상의 희노애락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는 창녕의 밝은 미래와 걱정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어 군민이라면 누구나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민족적인 것이며,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향토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정신세계와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창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보의 사랑방이 될 「제41호 창녕문화」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창녕의 전통문화를 이끌어 가는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문화」의 오랜 역사가 고향 창녕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중한 원고 작성에 수고하신 작가님들과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녕군의회회장
이철봉

2021년 12월



축사



창녕경찰서장
김현식

「창녕문화」 제41호 발간을 창녕경찰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금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이수영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향토사 연구와 책자발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지역은 예로부터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고 훌륭한 유형 문화재와 수준 높은 무형문화재가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으로, 군민들의 자긍심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창녕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창녕문화」는 우리고장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창녕경찰도 문화도시의 긍지를 갖고 문화재 보호 활동과 홍보는 물론 군민과 함께하는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창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창녕문화」가 우리고장 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발전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밝아 오는 새해에도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창녕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년 12월



2021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2021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2021년 제1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2021. 2. 17(수) • 장소 : 창녕문화원 3층 대강당
- 안건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심의의결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의결 건, 신입회원 가입승인의 건, 정관변경 승인의 건, 제68차 정기총회일 결정 및 서면결의 건, 임원(이사)인준의 건, 보고사항 및 기타토의



창녕군 독서 릴레이 챌린지 참여

- 일시 : 2021. 3. 3(수) 11:00 • 장소 : 원장실
- 내용 : 지역 정서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들 마음의 행복지수를 높여 코로나 블루 극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참여



제10대·제11대 경상남도 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

- 일시 : 2021. 4. 16(금) • 장소 : MBC컨벤션 진주
- 참석내용 : 이수영 경남문화원연합회장 이임식
- 임기 : 2012. 4. 10 - 2021. 4. 10



책 읽는 창녕 독서하는 군민 “책과 꽃” 드림 행사

- 일시 : 2021. 4. 23(금) 10:00 • 장소 : 창녕전통시장 쌀전 앞
- 배부책자 / 꽃 : 2,000권 / 허브, 다육이 500개
- 내용 : 「책 읽기 창녕, 독서하는 군민」 분위기 홍보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심신 회복을 위해 전 군민이 독서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양식을 쌓자는 취지에서 책과 꽃을 드려 뜻깊은 행사를 가짐



창녕문화원 농촌 일손 돕기 실시

- 일시 : 2021. 6. 10(목) • 장소 : 영산면 죽사리 1379 (농가 성은지)
- 참석 : 임원 및 동아리 회원 35여명
- 내용 : 코로나 19확산 장기화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소재지 양과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함.



2021년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 일시 : 2021. 06. 24(목) • 장소 : 창녕문화원 2층 소회의실
- 참석인원 : 26명
- 내용 :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 책자 발간에 관한 협조, 2021년 하반기 문화원 주요사업 안내, 기타토의



창녕군 주소 갖기 캠페인

- 일시 : 2021. 06. 30(수) • 장소 : 창녕읍 종로거리 및 전통시장
- 참가자 : 임원, 동아리 회원 40여명
- 내용 : 문화원 임원과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하여 창녕읍 종로와 전통시장에서 창녕군과 함께 살고 싶고, 있고 싶은 창녕 인구증가 릴레이 주소 갖기 캠페인을 전개



2021 실버문화 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경남지역 온라인 예선 촬영

- 일시 : 2021. 07. 26(월)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 참석팀 : 한국무용 디딤새 동아리
- 내용 : 공연주제 '성주풀이 춤'. 허튼춤의 일종으로 흥과 멋이 주체이며 고을의 경사가 있을 때 집안의 성주님을 모셔다가 민요와 함께 한국춤의 정수가 우리나라의 춤을 공연함



2021년 제2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2021. 08. 11(수) • 장소 : 창녕문화원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28명
- 내용 : 정관 개정의 건,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2021년 임시총회 개최의 건, 기타사항



2021 찾아가는 '창녕의 문화유적' 특강

- 일시 : 2021. 10. 28(목) • 장소 : 창녕남지여자중학교
- 대상 : 1학년 38명 • 강사 : 곽정기 이사



제12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른신 농악경연 대회 장려상 수상

- 일시 : 2021. 11. 02(화)
- 장소 : 거창창포원 야외광장
- 참가팀 : 장마농악
- 참가인원 : 26명



2021 찾아가는 '창녕의 문화유적' 특강

- 일시 : 2021. 11. 05(금)
- 장소 : 창녕옥야중학교
- 대상 : 전교생 15명
- 강사 : 한삼윤 향토사 연구소장



2021 제15회 경상남도지사배 경상도사투리 말하기 대회 참가

- 일시 : 2021. 11. 08(월) 13:00 • 장소 : 마산문화원/거창문화원
- 수상 : 신창여자중학교(금상, 장려), 창녕중학교(동상)
- 제목 : 내 고장 자랑스러운 창녕을 소개합니다 / 환경보호! 우리가 알려 주꾸마
잉 / 거가 거다 역새 역수로 많은데 “화왕산”!!!!!!



2021년 제3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2021. 11. 08(월) • 장소 : 창녕문화원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27명
- 내용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문화유적 탐방의 건, 우리문화재를 찾아서 탐방
의 건, 기타사항



🌀 2021 찾아가는 '창녕의 문화유적' 특강

- 일시 : 2021. 11. 09(화)
- 장소 : 창녕영산중학교
- 대상 : 60명
- 강사 : 한삼윤 향토사연구소장



🌀 2021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창녕의 문화유적' 특강

- 일시 : 2021. 11. 09(화)
- 장소 : 창녕성산중학교
- 대상 : 50명
- 강사 : 이수영 문화원장



2021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 탐방

- 일시 : 2021. 11. 15(월) • 장소 : 구례 화엄사, 운조루
- 대상 : 이사, 감사,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산청문화원 생생문화제 '목화야 놀자' 참가

- 일시 : 2021. 11. 17(수) • 장소 : 산청군 단성면 목면시배유지, 대원사
- 대상 : 임원 및 부설단체



🌸 2021 창녕문화원 문화탐방

- 일시 : 2021. 11. 25(목), 12. 3(금) • 장소 : 속리산 범주사, 박정희 대통령 생가
- 참여인원 : 회원 90여명(유어, 대지, 계성, 영산, 장마, 남지)



🌸 2021 문화가 있는 날 “우포에서 즐기자 우리 모두 날니리 맘보!” 공연

- 일시 : 2021. 11. 30(화) 10:3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참여인원 : 300여명
- 공연 : 시조창, 색소폰, 댄스스포츠, 민요, 한구무용, 난타, 따오기춤, 사진전시 등
- 내용 : “문화가 있는 날” 우포에서 즐기자 우리 모두 날니리 맘보! 남·여 어르신들로 구성된 자율 동아리들의 재능과 음악적 기량을 지역문화 유산과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민들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행사로 자리매김. 참가어르신들의 성취감, 자긍심 고취는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이웃으로 확대 문화나눔 실천

2021 문화 학교 개설



2021 창녕문화원 색소폰 (A)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3층 대강당



2021 창녕문화원 댄스스포츠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3층 대강당



2021 창녕문화원 건강체조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3층 대강당



2021 창녕문화원 시조창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시우회 교실



2021 창녕문화원 민요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2층 민요교실



🌸 2021 창녕문화원 요가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3층 대강당



🌸 2021 창녕문화원 서예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2층 서도회 교실



2021 창녕문화원 한문연수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2층 소회의실



2021 창녕문화원 한국무용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3층 대강당



2021 창녕문화원 난타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3층 대강당



2021 창녕문화원 색소폰 (B) 수업

- 강좌기간 : 2021.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3층 대강당

창녕문화원 홈페이지(Home Page)개설

홈페이지(Home Page)란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특별한 형식으로 만든 문서를 말한다. 지식 정보화 시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창녕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기대합니다.

| 개설 일자 | 2021. 3.

| 구성 체계 |

- 문화원 소개 : 문화원장 인사말 / 문화원 설립목적 / 연혁 / 역대문화원장 / 찾아오기 등
- 주요사업 : 주요사업 / 연중사업 / 발간서적 / 자료실 등
- 문화학교 : 문화원 강좌 / 부설문화동아리 / 동아리 갤러리 등
- 향토사연구소 : 주요사업 / 창녕문화 역사 / 창녕의 축제 / 자료실 등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갤러리 / 신청서 등
- 홈페이지 주소 : www.cnccenter.co.kr

| 주요 앱 |

- 우포늪 300배 즐기기 / 앱 다운로드
- 창녕문화원 회원 신청
- 책 / 꽃 / 희망드림 신청
- 문화학교 부설 동아리 신청
- 동아리 갤러리
 - 한문교실
 - 건강체조 교실

- 요가 교실
- 난타 동아리
- 한국무용 동아리 디딤새
- 색소폰 동아리(기초)
- 수석회
- 서도회 교실
- 민요 동아리
- 댄스 스포츠 동아리
- 시조창 교실
- 색소폰 동호회(중급)
- 우리문화재를 찾아서 “문화탐방”

| 홈페이지 활용방법 |

각종 검색엔진에 “창녕문화원” 입력 후 터치.



창녕문화원 문화공간 시설 증축 소식

군민의 문화향수권 함양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문화센터 건립(주차장, 강의실, 회의실, 공연연습장, 자료실 등)시설 확충(증축)으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함.

| 사업기간 | 2021. 1 ~ 2022. 3

| 준공식 | 2022. 3월 예정

| 사업규모 | 지상 4층(부지면적 531㎡, 건축연면적 1,000㎡)

- 1층 : 주차장 / 면적 32.40㎡(9.80평)
- 2층 : 공연장겸 회의실 / 면적 219.60㎡(66.43평)
- 3층 : 문화강좌실 / 면적 219.60㎡(66.43평)
- 4층 : 도서실, 바둑실, 문화사랑방 / 면적 219.60㎡(66.43평)

| 기대효과 |

회원들의 늘어나는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군민의 문화활동 활성화 기대



좋은 생각 좋은 글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이상주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김동식
창녕은 살아있다 - 고향의 맛과 멋, 뚝배기와 장맛	김영국
직선적 인과관계와 순환적 인과관계	성낙진
우리는 과연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유영숙
반포의 삶	진태홍
경천애인	진태홍
6.25 한국전쟁의 회고, 내 생애에 가장 뼈아픈 추억	최수길
고욤나무에 감이 열리는 비결	한삼윤
팔자대로 산다	문경주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이상주
창녕문화원 이사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되었다. 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 아침마다 엄마의 방문을 열어본다. 날이 추워지니 더욱더 엄마가 그리워지고 보고 싶다.

혈액투석이란 엄마가 투석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나와는 아주 먼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가 신장 기능이 안 좋아 혈액투석을 하게 되었고 4년 가까이 엄마를 모시고 일주일에 2-3회 어김없이 삼성창원병원에 다녔다.

혈액투석은 투석기 인공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걸러주고 신체 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과잉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보통 3고(고령, 고혈압, 고당뇨)가 원인이라는데 현재 성인 7명 중 1명이 혈액투석의 원인이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질환이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혈액투석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콩팥기능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증이 될 경우 신장 이식이나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혈액투석 환자는 10만명 정도이고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전국에서 3번째인 약 2만 5천명으로 처음에는 의료혜택이 되지 않아서 부자병이라 할 정도로 치료비용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장애 2등급까지 인정받아 지금은 환자의 부담이 줄어 삶의 질이 나아졌다. 하지만 의료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3조원대를 육박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콩팥병의 원인인 고령자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현실이지만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 나의 건강,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은 1주일 3회, 1일 투석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된다. 투석시 환자의 고통도 힘들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님들도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웃음으로 환자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누구나 한번은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나의 엄마도 4년간이 혈액 투석치료 중 지난 10월 초 갑자기 뇌출혈 증상이 와 투병 중 16일 만에 끝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이 땅을 떠나셨다.

연말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 엄마와 손잡고 교회에 다녔던 모습이 더욱 아픈거리 주책없이 눈물이 흐른다.

돌이켜 보니 지난 4년이 나에게서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내가 엄마에게 안겨 동네를 마실 가듯 엄마와 함께 매주 화.금요일은 삼성창원 병원 유치원 가는 날이었다. 황○○ 어린이는 오늘 간호사 선생님 말

쌈 잘 들고 재미있게 있다가 오십시요라고 주위 분들이 격려해주셨다. 또한 함께 투석하는 분들과 보호자분들과 자주 보니까 가족 형제 이상으로 더 가깝고 정이 들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내일 뵈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만나고 헤어짐은 나에게 추억의 일이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힘든 한해였지만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투석 환자분들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픔 없는 천국에서 우리 엄마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하시길 기도 올립니다.

出世한 사람 成功한 사람



김동식

창녕문화원 서도회 전 회장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출세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뜻한다고 적혀있다. 사전적 해석만을 놓고 본다면 출세라는 단어에는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저 사람 출세했다고 말할 때 그 단어가 풍기는 느낌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소위 출세했다는 사람들 중에 출세하기까지의 과정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일 것이다. 살을 좀 붙여 출세 지향적(指向的) 인간이란 출세를 위해 여타(餘他)의 대의(大義)와 명분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지칭한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마누라를 앞세우는 것도 꺼리지 않고 가까이 한 사람들의 고통쯤 예사로 무시하며 해묵은 의리마저 헌신짝 같이 버리는 것이 그런 인간들의 행동의 양식이다.

출세와 대체적(大體的) 의미는 같으나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성공(成功)이 아닐까 싶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평생 성실(誠實)하게 노력하여 스스로 목표(目

標)했던 바를 이룬 이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인생이라는 대지 위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우뚝 선 거목들, 비록 거목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아담하면서도 충실하게 자라난 나무가 있다면 이들에게도 역시 성공이라는 훈장(勳章)을 달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세인(世人)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있다.

인내, 성실, 정직(忍耐, 誠實, 正直)등... 이야말로 그들 성공한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실천해가는 덕목(德目)들이다.

그러한 과정과 방법을 거쳐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성공이 출세의 경우와는 달리 세상의 공감(共感)을 얻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나야 아직까지 출세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은 더더구나 아닌 철부지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 출세보다야 기왕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인들로부터 출세 지향적(志向的)이라는 비난과 지탄을 받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다. 되돌아보면 참 넘어진 일도 많고 엎어진 적도 많은 인생 향로(向路)였다.

첫 해 식품 두부 공장 주식, 자기 이익부터 챙기는 실패와 힘들었던 그 시절 고생과 절망하며 방황했던 일, 그대로의 가난에 이겨내지 못해 중년 고생.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비틀거리기를 되풀이한 마음정신을 가다듬어보니 어느덧 50대 중반이었다.

그 무렵 신앙을 가지는 마음이 들게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거울이자 의지 처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하나님에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한다.

이제는 성실한 삶이 어떤 것인지 왜 인내(忍耐)와 기다림이 필요한지 어째서 겸손(謙遜)해야만 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

나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남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어느 정도 읽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모두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에서 얻은 교훈 덕분이리라 지금부터는 넘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하면서 가끔씩 주위를 살펴보곤 한다. 달려 나가던 많은 사람, 동료들이 왕왕 생활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본다.

어느 날 실패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출세는 쉽지만 성공한 삶이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내 인생의 결론이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출세한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리라 마음을 가다듬는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을 지팡이 삼아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오늘도 인생 신작로(新作路)를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다.

고향의 맛과 멋 : '뚝배기'와 '장맛'



김영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경영학박사
칼럼니스트·Saxophonist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라는 옛 속담이 있다. 이는 보잘것없는 겉모양이나 외관의 허접함보다는 알찬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의 전통음식이 대부분 그렇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과는 크게 비교된다. 지금은 내실보다는 들어내 보이는 미각적인 유혹이 있어야 맛과 멋이 공유하는 세상이 된 셈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게 늘 시대적인 맛의 경계선이 되곤 한다.

추억의 무더운 한여름 밤. 소싯적 고향의 저녁 풍경. 할아버지표 수제 멥석을 깔아놓은 마당에는 쑥 연기가 머리를 풀며 모기를 쫓고 있었다. 장작불 가마솥에는 구수한 보리밥이 익어가고, 어느새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한다. 강된장과 곁들이는 호박잎과 풋고추, 시원한 우물물로 만든 오이냉국과 열무김치 등. 열일곱 대가족의 만찬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 유난히도 호박에 대한 필자의 애정은 남다르다. 몇 알의 호박씨가 수백 개의 넉넉한 이파리를 잉태하고 복덩이 같은 누렁이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니, 위대한 자연의 섭리는 늘 삶의 교

훈이 된다.

한 지붕 아래 3대(代)가 생활하던 대가족이라도 명확한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원칙이 따라, 순식간에 일사분란하게 정리가 된다. 디저트는 주로 강냉이와 감자, 개똥참외와 수박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름답고 넉넉한 가족애와 고향의 풍경이었다. 늘 ‘양보와 배려 교육의 실천 현장’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족의 질서와 규칙이 늘 자연스럽게 지켜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웰빙과 함께 오히려 옛 토속음식과 시골 음식을 찾아가는 ‘엄마표 밥상’ 추세가 된 지 꽤 오래다. 고향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게 구수한 엄마표 된장찌개다. 수없이 반복해 먹어도 계절에 따라 늘 새롭기만 하다. 아직도 재래적인 생활방식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소싯적 그 시절을 무척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비록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강산이 여섯번도 더 변한 지금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운 가족 간의 무한사랑과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인간애가 아니었을까 싶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다 털어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자식 농사가 가장 큰 농사’라 한다. 들깨 나무 한 알의 들깨 알도 한톨씩 다 모으는 우리네 부모님 아닌가? 세월을 결코 비껴가지 않고, 오직 씨 뿌려 거두는 일념 뿐이다.

고향의 음식은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의 걸작품이요, 늘 고향의 맛과 멋이 함께 있다. 된장찌개는 뚝배기라야 제맛이 난다. 하 수상한 코로나 시절이 계속되는 때. 개구리와 매미의 노래소리가 가득한 고향의 밤. 울타리엔 오이랑 여주랑 주렁주렁 열리고, 청포도가 익어가고 호

박꽃과 박꽃이 넉넉하게 피는 때.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고향의 아늑한 품 안에서 잠시나마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어 본다.

어머니와 고향! 이는 듣기만 하여도 늘 가슴이 설레는 단어다. 고향의 정취 중에서도 특히 고향의 여름밤, 수만 마리의 청개구리 울음소리에 놀란 달빛과 소낙비 온 뒤의 구려진 도랑과 저수지의 가로등에 비치는 물빛은 그야말로 일품(一品)이다.

두보(杜甫)가 그토록 노래했던 중국의 서호(西湖)가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다. 특히, 한평생 못난 자식들을 위해 갈 때마다 쌓아둔 온갖 보따리를 늘 챙겨주시던 어머니와 외양간의 풋풋하고 짙은 거름 냄새는 고향의 향기 같다. 종종 저녁노을 속으로 피어오르는 고향의 굴뚝 연기. 언제나 시원한 청량음료수처, 고달픈 삶에 늘 새롭새롭 생동감을 더해 준다. 매번 가슴이 뭉클해진다.

누구에게나 어머니와 고향이 있는 법이나 특히 필자는 유독 불효(不孝)의 생각이 더해진다. 어릴 적, 유난히 그토록 휘어진 어머니의 허리와 백발(白髮)의 머리결에서 느껴지는 애뜻한 모정(母情)의 세월이라 젊은 시절에는 종종 온 밤을 지새운 까닭이다.

문득, ‘한평생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짠 보따리 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에 지난날을 떠올려 본다. 특히 자취하던 중고와 대학 등 학창 시절의 수 없는 보따리, 거기엔 어머니의 무한(無限)한 에고(ego) 사랑과 보따리 속의 믿음과 소통의 빛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필자의 고향은 화왕산 끝자락, 성산면 하가북. 10여호의 첩첩산골이다. 3군(郡)의 경계선이라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死

角地帶)였기에 예순(睿順)을 훌쩍 넘은 필자가 고3시절, 고향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으니 무진장 산골 촌놈인 셈이다.

지금도 연구실 한쪽에 자리한 그 당시에 쓰던 ‘석유 호롱’을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며 간혹 호롱불을 피우기도 한다. 그 이유는 ‘호롱불’을 보면 생각나는 오십년 전의 아련한 추억 한점씩들이 문득문득 가슴을 쿵쿵거리며 한없이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비 오면 유독 끊어지길 잘하던, 지금은 사라진 초등학교 앞의 구겨진 넥타이 같은 도랑 길을 건너면서도, 젊은 시절의 캄캄하던 방황 속에서도, 이마 푸른 내일을 꿈꾸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세월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 보면 어찌면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보따리’의 교훈이 아니었을까? 늘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가난하게 살아온 보릿고개. 당시의 의미와 얼마 남지 않은 살아갈 삶의 지향(指向)을 위하여 더 큰 집념의 다짐을 종종 해보곤 한다.

그렇다. 참으로 모성(母性)이야말로 인간 본능의 가장 숭고한 원천이다. 모성은 곧 달빛이요, 물빛이 아닐까 싶다. 어떻게 엄부자모(嚴父慈母)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한결같이 사랑의 화신(花信)으로 개조할 수 있을 것인가?

문득 송강(松江) 정철의 시조가 떠올른다. “아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종종 도시의 척박한 공간과 하 수상한 코로나 시절을 훌쩍 떠나 고향의 정취와 어머니의 애뜻한 향기를 흠뻑 느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필자소개

필자는 창녕군 하가북 출생으로, 창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 및 칼럼니스트, 색소폰니스트로 재직 중이며, 산자부, 중기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기업과제 평가(심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농림부 신활력플러스사업(70억원) 창녕군 추진단장(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내외은행(홍콩법인장), 육군장교, 고위공무원(옴부즈만), 대학교수 등 산학군관 39년 차. 주요연구분야는 4차산업혁명과 6차산업 등 실무중심의 창업 및 경영전략 등이다. 최근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핀테크'로 교육부 및 대한민국학술원 최우수학술상, 최우수논문상, 한국기업가정신재단 및 한국연구재단 등의 단독 연구과제 책임교수로 선정되었다.

직선적 인과관계와 순환적 인과관계

회원 성낙진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속의 많은 이해관계 집단이나 조직과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의 기초인 가족문제의 형성에 있어서 직선적 인과관계와 순환적 인과관계 사이의 다른 점을 들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직선적 인과 관계는 원인에 의해 결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알콜 중독자의 부인이,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매일 시끄럽다고 한다. 이것을 직선적 인과관계를 도식화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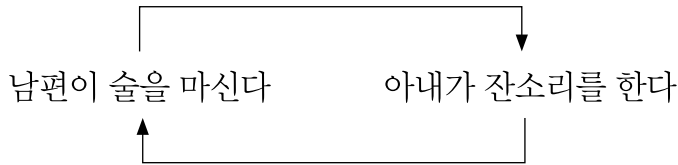
남편이 술을 마신다 →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이 도식은 완전히 성립한다 보기는 어렵다. 만약 알콜 중독의 남편이 자신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아내의 심한 잔소리를 참지 못하기 때문이며, 술을 마시면 아내에 대한 분노가 둔화된다고 한다면,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 남편이 술을 마신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물체인 인간의 경우, 어떤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다른사람의 반응을 예측하는 직선적 인과관계로 바라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하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순환적인 인과관계로 표현하면, 아내는 남편에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술을 마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도식화 하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인과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개념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순환적 인과관계는 두사람의 관계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가족의 역기능적 상황도 순환적 인과관계로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습적인 가출을 반복하는 여중생이 있다.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1남 1녀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언제나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특히 사회활동에 몰두하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남편이 해야 할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의 대리적 인물로 생각하여 애착을 느낀다.

이러한 역동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항상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면서 가출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한편, 어머니와 지나치게 밀착된 아들은 또래의 친구들과 멀리하며 가능한 한 오랜 시간 어머니와 함께 지내려 한다.

반면 딸은 정서적인 안정을 가정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가출이 더욱 잦아진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가족의 행동은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사실에 접근하는 지름길은 순환론적 입장에서 이 가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순환론적 입장에서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끊고, 밝은 어머니, 적응하는 자녀라는 새로운 긍정적인 연쇄고리를 만들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평가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의 연쇄고리라고 판단된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끊고 건강한 연쇄고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어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유 영 숙
(주)창녕신문 대표이사

내년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 선거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선거로서 고귀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친지도 어언 이십 수년 지나가고 있다.

선거가 시작되면 많은 출마자들이 나름대로 정책공약을 남발하며 유권자를 유혹한다.

그들은 유세장을 돌며 공약 등을 꼭 실천할 것이며, 이행하여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과연 그들이 외치는 공약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실현성 있는 준비된 공약인지 유심히 살피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거짓말을 거침없이 목소리를 크게 내며 소리치는 것도 우스운 장면이 한 두 번이 아닌 것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충실한 국민의 봉사자가 되겠다며 하는 말이 진정한지 잘 살피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바친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서 그들이 과연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출마자는 유권자들의 매서운 눈길을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따끔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해 구태 돈 선거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 능력을 겸비한, 강자에 강한 약자에 약한, 똑바른 인성, 품격 등 도덕성을 가진 자를 원하고 있다.

내년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흑색선전을 믿지 말고 바로 보고 바로 선택해야 될 것이다.

어떠한 행동과 말에도 현혹되지 말고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이끌어줄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옥석을 잘 골라 현명한 판단으로 내년 선거에 우리의 주권을 잘 행사해야 할 것이다.

반포(反哺)의 삶



海水 陳台洪

받은 ‘자(慈)’를 ‘효(孝)’로 되돌려 주라.

‘자(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효(孝)’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다.

효(孝)로서 자(慈)를 보답하는 것이 ‘반포(反哺)의 삶’이다.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준다.

인생은 내리받이란 의미다.

어미 까마귀는 먹이를 씹어 먹여 새끼를 키운다.

그 새끼 까마귀가 다 자라 어미 까마귀를 씹어 살린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 ‘반포(反哺)’라는 말이 나왔다. 이게 어찌 어미 까마귀만을 두고 한 말이겠는가?

인간으로서 부모 자식이라면 반포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반포의 삶을 어김없이 잘 지킨다.
어미가 새끼를 잘 키워주면
그 새끼도 어미처럼 절로 잘 사니 말이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이 반포의 삶을 어긴다.

자(慈)를 듬뿍 받았음에도 효(孝)를 되돌려 주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세태가 상습(常習)화 되어가고 있다.

반드시 반포(反哺)의 삶을 교훈으로 명심 하여야 한다.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고사성어도 있다.



〈 반포지효(反哺之孝)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기본 〉

경천애인(敬天愛人)



海水 陳台洪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한 결 같이 강조하는 것이
‘경천애인(敬天愛人)’이다.

경천애인은 불변의 진리요, 불역(不易)의 사상이다.
하늘은 천지만물을 생성(生成)하는 창조 의 원천이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양천(仰天)’이요,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경천(敬天)’이다.
하늘은 우리에게 오곡백과(五穀百果)를 주시고
고귀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천덕(天德)’이라 했다.

하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眞理)를 주신다.
하늘의 뜻에 순종(順從)해야 한다고 맹자(孟子)는 갈파하였다.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순천자에게는 천복(天福)이 내려지고, 역천자에게는 천벌(天罰)이
내린다는 것이다.

하늘은 정의(正義)를 의미하고 질서(秩序)를 의미한다.

천도교에서는 ‘인내천(人乃天)’이라 하였고,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

사람이 곧 하나님이요,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이 하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는 하늘과 사람이 다 같이 중요하다.



〈하늘처럼 사람을 공경하재〉

6.25 한국 전쟁의 회고 - 내 생애에 가장 뼈아픈 추억 -



최수길
창녕문화원 부원장

Ⅰ 6.25 전쟁 전 사회 동태

어린 나이지만은 8세쯤 되었을까, 1948년 4월 3일 제주지역 남로당 폭동사건에 이어 1948년 10월 9일 여수 국군 반란사건 등 곳곳에서 박헌영 남로당 수괴가 지휘하는 민중 폭동 사건을 일으켰으며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민중봉기를 꾀하여 혼란을 틈 타 남침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

사회지도자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모두 교활하게 자기를 위하여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이전투구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이 정당한 것을 믿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서민들을 방패삼아 감언이설을 꾸며 되어 국민들을 현혹시켜 사회 혼란을 극도로 야기시켰다.

우리 마을 부근에도 밤마다 빨치산이 준동하여 청년들이 몽둥이와 죽창을 들고 창락면 학산동 후포 밑 진골벌가에서 대기하고 창락 주재

소 순경이 진골 봉우리에서 총을 쏘면서 싸워 주모자를 체포하여 압송하고, 그리고 일부 빨갱이 간부 때문에 그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끌려다니며 순경들에게 많은 고초를 당하였다.

일부 취약 지역은 밤낮 가리지 않고 우군 좌군으로 나뉘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보니 양쪽 다 죄인으로 몰려 밤낮으로 낮에는 순경, 밤에는 빨갱이한테 추달을 받다 죽은 사람도 많았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지도자들이 사상이념이 달라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다보니 국민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었다.

남로당이 남한 사회에 말단 리, 동 단위까지 침투 조직화 되었다. 이 조직이 지하로 스며들게 된 원인은 서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모든 정책을 공산화 하여 배급제도로 전환하여 못사는 사람 없이 고루 잘 살자는 정책을 선동하여 많은 국민들이 쉽게 동의를 하고 가입을 하였다.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 국민들 생활은 지배층에 있는 관료와 양반들의 횡포에 너무 억압을 받아 살아 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관과 양반들에 대한 반감의 작용도 있어 쉽게 감언이설에 속아 가입을 하였고 일부 서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입 되어 있었다.

뒤에 남로당 프락치들이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정부에서 일제히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남로당 검거〉

하루에도 수십 명씩 경찰서에 체포되어 취조하는데 죄 없는 일반 국민들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병신도 되고 죽어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조선 시대 오대 사회와 같이 역적 다루듯이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 일경에 잡혀 고문을 받는 것과 같았다.

드디어 6.25 전쟁이 일어나 힘없고 죄 없는 일반 서민당원들만 비참하게 처형되었다.

〈우리 집의 사건〉

11월 하순에 가을걷이가 대부분 끝이 나고 아침 일찍 고추장사 비슷한 청년 2명이 왔다. 그런데 잠깐 사이 온데 간데 없었다.

한참 만에 엄마를 뒷 모퉁이에서 끌고 나왔다. 얼마나 추달을 받고 맞았는지 피는 낭자하고 비녀 머리는 풀려 산발이고 형상은 죄인을 다루듯이 무자비하게 때리고 밟고 하였다. 우리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데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

그 때 갓 난 여동생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걷어치우고 수색하였다. 나는 일어나 밖에 엄마한테 가서 울부짖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 제일 귀중하고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귀한 엄마가 난타를 당하는 광경을 보고 막 뛰어 마당 복판에서 고통을 지르고 미친 듯이 파르하게 까무러치니 청년이 나를 달래며 누구 온 사람 없든가 물었다.

나는 우리 집에 청솔가지 꺾어온 일 없다고 소리 지르며 ‘엄마 왜 패노!’ 하고 달려들었다. 실제 그 때 촌에서 산에 청솔가지 꺾어 땀감하고 걸리면 취조를 받곤 하였다.

그 때 엄마가 나를 겁을 주고 하니까 엄마는 자식 생각에 아이가 아프니 나에게 물어봐라 하였다.

그리고 다짜고짜 발이 엄마의 배를 걷어찼다. 나는 그 때 정신없이 나

뒹굴어 떨어져 있는 엄마를 감싸 올다가 껌싸게 형사 다리를 잡고 마당 복판에서 몇 바퀴를 같이 돌다가 형사가 나를 발로 차 패대기쳤다.

나는 아래 부엌에 나뒹굴어 떨어졌다. 나는 또 뿔갱이 같이 일어나 ‘아버지! 엄마 죽는다.’고 고함을 쳤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별도 동쪽 집 모퉁이에서 추달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심문으로 끝이 났으나 유독 엄마한테는 악질 형사가 걸려 난타를 당하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려 눈을 뜨고 있는데 형사가 또 나를 위협하였다. 나는 죽는 것도 겁도 없이 오직 엄마가 어린 나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지 꼼짝 못하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응시하고 있는데 형사가 나를 주먹과 발로 차 집 밖으로 던졌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큰 집 큰 엄마에게 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 큰 엄마가 무슨 일이고 우리 집에 와서 엄마의 형태를 보고 놀라있는데 이 무지막지한 형사가 큰 엄마까지 또 난타를 하고 엄마와 같이 마당에 두고 큰 엄마 집에 왔다. 그 때 누나가 있는데 형사 을선 누나에게 낫선 사람이 아니 왔나 하고 또 누나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

내가 방에서 나오니 이 새끼 또 여기 있구나 하고 누나를 두고 나갔다. 그리고 마을 청년들, 이웃 할아버지, 아줌마까지 나오며 다그쳐 물었다.

엄마는 얼마나 당하였는지 머리도 죄인처럼 풀고 얼굴, 몸 전체 성한 곳이 없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4시간 이상 난타를 당하고 다음은 퇴천 주재소로 끌고 간다고, 모두 죄가 없지만 연관도 없는 큰 엄마까지 끌고 갔다. 이에 보다 못한 여름 할아버지가 (최국술)이장에게 알려 이장(윤석구)이 옷을 갈아입고 뒤 따라가다 약산골 고개에서 만나

사실이야기를 하고 신변을 인수받았다. 물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할 우려가 있을지 까지 책임을 서약하고 오게 되었다. 만일 주재소에 가면 죽어 나온다고 하였다. 이런 세상이었다.

이 원인은 내 이종 형 남상돌이 남지 고곡에서 경찰을 쏘아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남상돌이 주모자로 수배되었는데 그 때 남상돌 인적사항을 조사하다보니 유어신문에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여기에서 고모의 가족을 심문하다 매에 못 이겨 어제 저녁에 있다가 고리실 이모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되어 우리는 이모라도 배다른 이모 아들이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2차로 당하였는데 모두 10월 묘제를 지내러 집을 비우고 있는데 형사 2명이 와 제물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집안을 수색하고 없으니 옛날 퇴비 곳간 화장실 옆에 꿇어 앉혀놓고 심문을 하는데 큰 작대기를 무릎사이에 끼어놓고 다른 말 하라고 엄마가 꿇어 앉아 있는데 그 위에 두 놈이 올라타고 힘을 주어 누르니 아무리 장사라도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까무러치며 죽는다고 외마디 하고 실신하였다.

나쁜 놈의 형사는 물을 끼얹어 또 시도 3차로 하였다니 그대로 죽어 있었다고 하니 옷에는 생 변을 봤으며 그 얼마나 비참한 광경인가. 그 시대에는 병원도 없고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매일 인분을 달여 먹게 하여 근근히 치유하였으니 엄마의 몸이 무쇠였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큰 고문을 당하였으니 하늘이 노랗다가 붉게 변하였다.

2차로 당하는 날, 남지 학계 할아버지께서 묘제 참여하셨다가 이 광경을 보고 우리도 사람이 있는데 왜 당하기만 하나 하시면서 당장 그날 오후에 남지에 도착, 이튿날 함안으로 출발하여 그 당시 막내 숙부님께서 함안 경찰서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잔실(학계) 할아버지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니 즉시 창녕 경찰서에 비상 전화를 하고 창녕으로 출발하여 경찰서장을 만나 순경가족을 이렇게 고문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고 우리 집에 오셔서 엄마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도 사오고하여 치료하고 가셨다.

그 때는 참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 젊은 사람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숨어 살아서 쉽게 남의 일에 관여 할 수가 없을 뿐이라 우리 자신도 숙부님이 경찰이라고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좌우익 혼란 시대였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수색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싹싹 외가와 남상들 처가에는 모두 더욱 피해가 크다고 한다. 경찰서에 압송되어 맞아 죽어나온 사람 병신 되어 나온 사람들이었다니.

이런 혼란기에는 권력기관은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선량한 국민을 구타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사람인가 짐승인가 보리타작마당인가. 전혀 알 수 없는 인권유린을 강행하였다. 성폭력, 성희롱 같은 소리는 안정된 나라, 사상이념이 없는 민주국가에서나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고 보나 불안정한 나라에는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시대의 혼란기를 힘겹게 철모르는 희망이 절망인 유년시절은 넘겼다.

드디어 6.25 전쟁이 터졌다.

■ 6.25 전쟁과 사상이념

6.25 전쟁이 일어난지 만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에서 공산 국가와 싸워서 완전 종식되어 평화로운 나라로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2차 대전 후 베트남 전쟁에서도, 또 현재 아프간 전쟁에서도 미국이 철군하는 시점에 아프간 국민들이나 다국적 군인들이 철군 하는데 비상 탈출구가 하늘, 해상뿐이었다. 비행장에는 아비규환이고 비행기, 배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아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6.25 때 흥남부두 철수 작전 때에도 처참한 경험을 하였다.

행여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이나 아프간처럼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우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과연 평화와 자유가 보장 될 수 있을까? 죽는 사람은 죄 없는 국민들이고 정치인, 고위층 부자들은 모두 재기를 약속한다면서 알박한 거짓으로 위장하여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해외로 탈출하겠지. 그러나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충성한 사람은 용감하게 목숨을 걸어 놓고 선량한 국민들만이 항거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온갖 거짓과 잘난 척, 이빨도 세척 않고 내뱉는 말뿐. 국가를 위해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싸울 용기가 되어 있겠는가.. 과연 정치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이 현실에 베트남과 아프간의 철수 작전이 6.25 사변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작전이 전개되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고 어깨에 힘을 주어 자손만대 이어가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가슴 깊이 새겨 우리나라가 만대 부국강병 되도록 다짐합시다.

〈피란 전 상황〉

1950년의 7월 여름은 무더웠다. 내 나이는 어린 11살 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 때처럼 많은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북쪽을 향하여 날아갔다.

웬일인지 친구들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토끼 모양으로 놀라 고개를 쳐 박고 쥐 죽은 듯이 있다.

비행기 편대가 지나가고 모두 잼싸게 집으로 도망가 버렸다.

집에서도 모두 부모님과 동생들도 찢찢 매고 새파랗게 질려 안방 고리를 잡고 놓아줄 줄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모두들 모아놓고 비행기 지날 때마다 숨으로 귀를 막고 숨이불을 덮어라 하였다.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데 나는 이제 익숙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소를 몰고 친구들과 왕산봉 꼭지에서 소들을 산에 방목하였다.

도로가 보이는 곳마다 이상한 차량들이 먼지를 내면서 썩썩 달리고 있는데 도로마다 먼지가 치솟아 도로가 보이지 않고 먼지만 보아도 도로를 알 수 있는 지경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여 비행기가 썩썩 날아와도 손을 흔들며 반기고 있는데 저공 하는 비행기가 우리 머리 위에 나는데 바람에 아이들이 쓰러지고 날아가기도 하였다. 그래도 좋아하고 고래고래 고향을 질렀다. 우리는 저녁까지 소를 먹였다.

이때의 전황은 매일 바뀌고 있어 7월 25일경에는 낙동강 주변에서 밤낮으로 비행기가 곡예를 하듯 폭탄을 투하하고 높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무수한 폭탄과 대포 소리가 울렸는데 우리는 멍모르고 즐겨 뛰

기도 하고 비행기 폭격 흉내도 내고... 어린이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전쟁의 환경에 적응하여 미쳐 날뛰며 좋아하고 기성을 토하였으니 저녁노을을 맞이하는데 폭탄세례를 받은 노을은 잿빛으로 변하였다.

다음 날 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전쟁이 이곳까지 미쳤는데 우리 마을도 소개 명령이 내려 마구선 이동으로 피난을 간다고 하셨다. 그리고 각자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다. 아침을 먹고 모두 집안 할아버지와 같이 모여 애지중지 길러왔던 닭을 몇 마리 잡아서 탁주를 드시면서 모두 각자 헤어져서 피난을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몸 건강히 아무 탈 없이 살아오기를 약속하고 모두 헤어졌다.

〈계성면 사리로 피란〉

우리는 마침 계성사리 이계수 자형이 오셔서 우리를 사리 자형 집으로 가게 되었다. 부모님은 하루 늦게 오시기로 하고 무작정 누나와 동생 2명과 자형 따라 출발 하였다.

잠시 피난 갔다 온다는 마음으로 별 준비 없이 1차로 계성 사리로 피난하였다.

우리는 사리에 늦게 도착하였다. 모두 피죽음이 되어서 도착. 저녁밥은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쓰러져 잤다.

이튿날 밖에 나가보니 앞 신장로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키가 큰 미군이 내려 총을 메고 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옆에 가지도 못하였는데 여기 아이들은 미군과 친숙하였는지 ‘오케이~ 간빵, 쫘크릿트’ 하며 손을 내밀고 하였다. 미군은 손에 쥐고 있던 껌과 과자를 던져주고 지나갔다.

나는 겁이 나서 근방에 가지 못하고 서 있는데 미군이 내 앞에 다가왔다.

순간 겁이나 온몸이 사시나무 떨 듯이 서 있는데 미군이 알고 손을 잡고 껌과 과자를 손에 쥐어주고 떠났다.

겁도 나고 고마워서 한참 허리를 굽히고 일어나니 미군은 사라지고 모르는 마을 아이들만 있었다. 나는 과자와 껌을 짹째 가져와서 누나, 동생들과 나누어 먹었다. 큰 누님이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많이 먹어 라고 하였다.

저녁이 되니까 부모님이 오시는데 벌써 인민군이 집에 찾아와서 선무 활동을 하다 날이 밝으니 모두 사라지고 미군이 찾아와 피난 독려를 하여 할 수 없이 일찍 걸어오는데 검문이 심하여 어렵게 오후 늦게 도착하였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보더니 모두 안고 슬피 우셨고 어머니의 슬픈 울음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였다. 우리는 높은 산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옥수로 마음껏 즐기고 물장구치며 치어와 돌꼬리 등 우리 마을의 고기와 다른 이색적인 어종이었다.

사리 길옆 정자나무 밑에서 친구인 정택이를 따라 다니면서 비록 피난 생활이지만 많은 곳을 깊이 익히고 배웠으며 후일 영세 반려자(박미도)를 만난 것도 어린 시절의 깊은 동심에서의 연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우리는 전쟁도 생각지 않고 하루하루 이정택 사형과 같이 물속과 미군들의 과자, 껌을 얻어먹는 것에 재미를 붙여 피난 생활을 보내었다. 그리고 7일 정도 있으니 다시 소개 명령이 내려 우리는 다시 옮겼다.

〈퇴천으로 피난처를 옮김〉

8월 초순경 퇴천에 당도하여 지금 알고 보니 김태열씨 집 대문간에 방이 있어 거기에 거처를 정하여 놓고 수소문하여 여름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을 만났다.

창녕에도 자주 내왕하여 마을 사람들을 만나 회포를 하였다.

여기도 길옆이라 많은 차량과 탱크가 북쪽으로 기갑대대 단위로 전쟁에 투입하였다.

이때는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 고곡 초등학교 연대 본부가 피습되어 해산 되었고 밤낮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어봉 여기에서는 일주일간 피아간에 하루에 2회 이상 점령군이 뒤바뀌고 하여 최종 미해병대의 투입으로 적을 낙동강 밖으로 몰아내었던 시기라 우리는 그 전쟁을 밤낮으로 비행기 폭격을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였다.

저녁 무렵에 조용하던 퇴천에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를 내면서 마지막 떨어지는 소리가 휘주휘주 하면서 자련골에 떨어져 폭발하였다. 그 여파가 퇴천에 있는 가옥이 흔들하고 돌담이 무너지고 모두 사색이 되어 가다오다 담 밑에 쳐 박혀 은폐하고 있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굉음이었다.

저녁이 되며 상퇴천 마을 중간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어린이들은 아버지의 정강이를 배고 부채바람을 맞으며 단잠을 자곤 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누나와 같이 집에 양식과 옷가지를 가져 오겠다고 창녕을 거쳐 물당 - 탐하 - 양산골 긴 골짜기를 거쳐 준비물을 찾는 데 어느 한 집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찾다가 앞산 미군에게 발각되어 집중 사격을 받아 모두 혼비백산하여 간신히 몸만 피하여 빠져 나왔다고 한다.

어머니는 간담이 있어 정신을 차려 가져올 것은 다가지고 오는데 그 때 초막골 사건이 발생하였다.

찰고개 골짜기에 이르는데 난데없이 총소리가 나면서 하늘에 섬광이 비치면서 어디에서 콩 볶는 소리가 들려 놀라 길을 잃고 옥정골만 향하여 왔다고 한다.

퇴천에서는 간밤에 초막골 사건이 발생하였다. 퇴천 피난처까지 총알이 날아 감나무로 스쳐지나가고하여 우리는 방에서 이불을 쓰고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는 그 와중에 길가 변소에 소변 하러 가는데 트럭에 많은 시체를 실어 읍으로 들어가고 차에서도 앞 뒤 가리지 않고 총을 난사하여 재빨리 돌담 밑으로 피하였다고 하면서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이런 사고 때문에 이튿날 피난을 가야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니어서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밖에 나와 기다리다가 집에 피난짐을 챙겨 묶어놓고 피난 독축을 하는데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모두 어린 나이로 우왕좌왕하고 아버지께서는 어제 많은 사람이 총탄에 맞아 죽어 가는 것을 보아 내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10시가 되었을까, 읍에 내려오는 피난민 행렬에 끼어 누나와 같이 살

아왔다.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눈물로 상봉하여 빨리 피난채비를 하고 자기 몫의 짐을 챙겼다. 나는 온 식구가 덮어 자는 이부자리를 밑끈에 묶어지고 출발하고 어머니 옆에 내가 앞에 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지게를 무겁게 지고 우리를 보호하며 출발하였다.

〈하염없이 이동〉

창녕에서 내려오는 피난민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우리 일가족은 그 틈바구니에 끼었다. 자연적으로 밀려 밀려가는데 간밤에 교전이 일어난 초막골에 도착하니 이곳은 생지옥이었다. 마을 길가에 부녀자들, 아이들, 남자들 한데 어울려 흰 옷에 붉은 선혈이 낭자하고, 콩 밭 사이에는 소들이 질떼를 떼고 쓰러져 죽어있고, 초가지붕에는 불이나 연기가 무령무령 일어나고 있었다. 휘나무 큰 소무 밑에는 천막이 걸려 있고 피난민들이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인민군이 5명 출몰한 지점이다. 여기에 집중포화를 하여 진창피난민 70명이 몰사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길가에 피가 낭자한 시신을 보고 진달이, 선이 같다고 애통하게 하며 초막골을 빠져 나가는데 키 큰 미군들이 검문을 하고 건너산에서는 탱크들의 발진소리가 야단이었다. 피난민에 떠밀려 삼복더위에 무덤기나 오죽하였다.

등에 이불을 지고 가는데 오직 목숨만 생각하니 배고픔도 잊고 밥도 못 먹고 식구들이 앉아 있을 시간도 자리도 없이 떠밀려 내려가는데 계성의 산기슭에 여백 있어 아버지께서 자리를 잡아 식구들을 모아 준비한 미숫가루를 내어 물과 같이 먹고 허기를 채웠다.

그리고 출발하여 영산 연지 못가에 도달하니 저녁노을이 비쳤다. 식

구들을 점검하더니 아버지께서 교야 오줌 샀나 하였다. 아닌데 하고 다시 보니 내 등 뒤 이불에 땀이 배어 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긴장되고 겁에 질려 무거운 줄도 모르고 땀이 배어 나오는지 도 몰랐는지 아버지께서 이불을 덮석 잡아 아버지의 짐에 얹어갔다. 나는 아버지께서 자식 생각을 끄찍이도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짐을 다시 받아 등에 매기로 하였다.

그럭저럭 도천 넓고 자갈 깔려 있는 곳에 재빨리 정비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등 마는 등 누워보니 반짝이는 별빛만 더욱 처량하고 대포 소리는 여기저기서 요란한데 잠이 들었다. 그 날 소나기가 지나갔는데 피난민들은 비 오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를 몰고 개천가에서 소를 배불리 먹이고 오니 모두 짐을 꾸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밥을 주는데 콩보리밥인데 쌀감이 없어 설익은 보리알이 부라리고 있는 밥이었다. 그러나 배는 고프지, 하여 맞바람에 게 눈 감추듯이 단숨에 먹고 물을 마셔 우물우물 삼키고 일어나 이불을 지고 또 다시 걸었다.

예리에 도착하니 앞날에 인민군 첩보대가 피난민 속에 잠입한 것을 정찰기가 발견하고 무전으로 타전하여 전투기 편대가 와서 그 많은 피난민이 독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기총 사격을 하였다.

그 광경은 영화에나 볼만한 처참한 광경이었다. 인민군은 한 놈도 못 잡고 피난민만 다 잡았으니.. 참으로 전쟁이란 양심도 없는 무자비한 작전이구나 생각하였다.

이곳에서도 초막골 사건과 똑같은 현상이었다. 그 외중에 개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시신을 뜯어먹는 장면도 목격하였다. 그 처참한 곳을 피하여 또 걸었다. 더운 것도 먹은 것도 잊은 채 길곡 오호리 낙동강 땅콩 밭에 도착하였다. 그 많은 농작물이 일시에 피난민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공호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누어있으니 동쪽 산기슭마을에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다. 그 교회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오호리 신촌교회라 하는데 창녕에서 제일 먼저 세웠다는 교회인데 1914년 이전에는 마산에서 칠북 멸포나루를 건너 영산, 창녕, 한양으로 가는 창녕의 관문이기 때문에 창녕 입구에 널리 포교하기 위하여 처음 세웠다고 한다. 나는 간밤에 땅콩을 많이 먹어 배탈이 났다. 아침을 거르고 내 등짐을 챙겨가지고 출발하여 종일 낙동강변을 가는데 시궁창도 있고 징검다리도 있고 하여 그 많은 어려운 길을 걸어 저녁에 야 하내와 증산 중간지점 강가에 자리 잡고 노숙을 하는데,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는데 가끔씩 이상한 물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저 물체는 인민군 시신이다. 유어 박진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 총에 맞은 시체가 떠 내려와 구포 고무다리에서 미군이 모두 건져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내일이면 임해진 개비락으로 우리 식구 7명과 소가 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비락 끝에 추락하지 않을까 어린 나이에 걱정이 되어 뜯은 눈을 지새우고 아버지와 소 먹이러 가는데 한해 들밭에 부자 집에서 숨겨놓은 꼬리 박스가 발견되어 열어보니 비단이 차욱차욱 채워져 있어 아버지는 재빨리 덮어 버렸다.

나는 호기심에 선명한 붉은 색깔에 무언가 하고 열어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또 다시 덮어 놓고 가자고 재촉하여 빠져나왔다. 소를 몰고 오는데 젊은 여인이 사색이 되어 오는데 갓 낳은 아기를 안고 오다가 밭에 버리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버지는 보지 말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였다.

우리는 식구가 모여 있는 곳에 도착하여 출발준비를 하고 밤새도록 걱정을 한 개비락으로 출발하였다.

나는 긴장하여 입구에 가니 미군이 스리코터와 장갑차로 주둔하고 있는데 꺾을 꺾씩 씹으며 무어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무어라고 하였다. 나는 뒤에 바짝 붙었다.

통역관이 소는 못 간다고 하였다. 아버지께서 사정사정하여 허락 받고 출발하는데 생각보다 갈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는 논리 옹기굴 앞에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를 몰고 오니 어머니는 안심이 되는지 긴 한숨을 토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장을 풀고 3일 동안 쉬었다. 제일 문제가 온 산야에 대변이 방치되어 있고 밥 먹는 옆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궁뎅이를 내어놓고 부끄럼 없이 볼일 보고 일어나 가는 것이 생활화 되었다. 그 어려운 때도 걸인도 있었다. 나는 소를 먹이고 늦게 밥을 먹는데 어린이 둘이 와서 밥 달라고 하였다. 나는 내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화가 났다.

통명스럽게 없다고 하니 어린이가 울었다. 나는 다시 아이들을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차마 보낼 수가 없어 같이 먹자고 하니 동생이 먼저 손으로 집어먹고 나는 한 숟갈 떠먹고 언니한테 숟가락을 쥐

어주며 먹으라고 하였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 먹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학교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 후 그 학생은 만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마을 청년 3명이 양식 때문에 민가에 들어가 양식을 구하다 절도범으로 체포되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행방불명되어 영영 소식이 없었다.

다시 부곡 학포 앞 모래사장에 이르러 들 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녁에 우기가 있어 우리는 미리 수수대를 준비하여 집 모양으로 만들어놓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껏 그칠 줄을 모르고 내렸다.

모두 흠뻑 비를 맞고 있으니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여 물 위에서 떠 있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잼싸게 건너 외딴 집에 비를 피하여 갔는데 여기에도 피난민이 만원이고, 그러던 중 어떤 여인이 해산을 하는데 모두 물러나 해산을 도와고하여 무난히 옥동자를 생산하여 이 난중에도 한 떨기의 꽃을 피워 손뻑을 쳤다고 한다. 이때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기뻐하였다고 하니 사람의 마음이 천심이고 일심이라 하겠다. 날이 밝아 아버지는 집에 있는 딸감을 한 아름 가지고 와서 밤새 비를 맞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불을 지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어도 살기 위한 마음을 똑같았다. 불을 놓으니 남녀노소 모여 옷을 말리는데 연기보다 옷에 나는 김이 더 많아 시야를 흐리게 하였다.

아침을 먹고 있으니 하늘에서 10여대의 폭격기가 피난민이 있는 상공을 선회하였다. 피난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으로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피난민이라 표시를 하였다. 몇 바퀴 돌면서 기수를 돌리고 갔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옆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배를 안고 있다가 옆에서 대변을 보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밀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생밀이 항문에 걸려있었다. 하는 수 없이 손가락으로 항문에 넣어 배출 시켰다. 할머니는 살았다 하며 생기를 찾았다.

오후 2시 경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관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총알이 머리 위로 썩썩 날아가고 우리는 구덩이에 처 박혀 갈팡질팡 아비규환이었다.

한참 만에 총소리가 중단 되었는데 이제는 아이 찾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야단이고 옷과 손과 얼굴에는 똥과 흙이 범벅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행히 같이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가는데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여 학포 개독을 건너 수산에 도착하니 비가 계속 내리는데 아무 집이고 찾아가 집 추녀 밑에 모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젊은 주인이 공간을 비어주어 비를 피하고 이튿날 또 다시 하염없이 걸어 백산 초등학교에 도착하여 여기에서 일박하였다.

이튿날 다시 상남면 상남초등학교 배주 수용소에 도착하였다. 어머니는 임신이 되어 다시 갈수가 없어 소장에게 이야기하여 이곳에 머물도록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다.

〈피란민 수용소 생활〉

여기에서는 어느 곳보다 편하였다. 삼시새끼 밥과 잠자리가 있으니 편한 생활이었다.

비록 같이 머리 맞대고 합숙을 하나 걱정없이 마음이 편하였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소를 사육할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피난 온 소를 처분을 아니 할 수가 없어 아는 사람 소개로 혈값을 받고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을 기원하고 팔았다. 식구들은 모두 같이 피난 온 소를 보내고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제는 급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정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동산 마을에 가서 별초를 해주고 간혹 간식도 가지고 오시고 또 수입도 좋았다.

또 평촌장에 가서 감과 참외를 사와 어린 동생들을 먹이기도 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동생과 같이 쇠덩이를 던져 돌을 쳐 보니 굉음이 나고 하니 재미가 있어 계속하다가 그만 쇠덩이가 튀어 이마에 맞고 말았다. 상처가 나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붓대를 감고 자는데 맞은편 아가씨가 몸부림치다가 내 머리에 감겨 있는 붓대를 벗겼다. 나는 이튿날 얼굴이 부어 치료를 하다 결국 흉터를 만들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추석이 와 마을 이집 저집 다니면서 떡과 밥을 얻어먹었다.

하루는 저녁에 수용소에서 인민군이 왔다고 비상이 걸렸다. 모두 소 등하고 이동을 금지하고 쥐 죽은 듯이 있는데 밤중에 해제되었다. 다음부터 정훈장교와 사병들이 와서 속속 현재 전시사황을 알려주고 마음을 진정시켜주었다. 특히 낙동강 전선에서 철통같이 방어하여 박진에서 낙동강 밖으로 물리치고 맥아더원수가 지휘하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9월 28일에 중앙청에 우리 해병대 박정모 소위가 태극기를 꽂았다고 열변하는데 수용소 피난민은 환호를 하고 좋아라하며 얼마 있지 않으면 고향에 간다고 하였다.

이튿날은 평촌 장날이라 샷갯을 쓰고 장보러 가셨다. 우리 형제들은

멋도 모르고 마중을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어린 것이 타지에서 길도 모르면서 단지 아버지 장에 가신 것을 마중을 오다니 참으로 기특하다며 만나서 다행이라면서 구입하여 온 감과 과자를 같이 나누어 먹고 돌아왔다.

〈귀향하는 길〉

10월 5일경에 전쟁이 뜸해 귀가를 준비하는데 수용소에서는 못 가게 하였다. 그러나 영산(곽봉석) 어른이 찾아와서 내일 출발 하자고 언약하였다.

어머니는 짐을 울타리 밖으로 미리 내어놓고 누나는 엄마와 같이 행동하고 나는 동생들을 데리고 재빨리 운동장에서 놀다 밖으로 나와 모두 짐을 챙겨 매고 달아나 산기슭에서 식구들 모두 만나고 영산어른 식구를 만나 귀향길에 올랐다. 얼마나 즐거운지 그저 빨리 달렸다. 가을이라 시원하기 하고, 방위군들이 군복에 밤을 많이 주워 훈련하다가 우리에게 밤을 한웅큼씩 주곤 하였다.

일행은 아무리 빨리 와도 부곡 팔도 고개를 넘어 부곡초등학교에오니 어두워서 갈 수가 없어 운동장 복판에서 모두 노숙을 하고 일찍 출발하니 영산 연지 못가에서 점심을 먹고 각자 행동으로 집을 향하였다.

영산에 들어서니 시체 썩은 냄새가 풍기고 있어 코를 가리고 왔다. 터진 못(일문교) 다리 밑에 시체가 그 때까지 방치되어 썩고 있어 전쟁의 상흔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만삭으로 오늘 저녁에 출산일이라 서둘러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하여 삼밭에 가서 옥수수를 꺾어 놓고 혼자서 자리를 펴놓고 힘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리 빨리 와도 십리정도 쳐져오고 있는데 그 래도 광봉석 씨 일가와 같이 천천히 같이 왔다.

앞 성황당 고개에 이르니 지뢰밭이 있어 형제간에 좋다고 만지고 있는데 치기덱(광봉석 모)이 고함을 치며 버리라고 하여 버리고 단숨에 뛰어 집에 도착하니 온 마을이 온데간데없이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 집 곳간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곳간 안에는 인민군이 거쳐하며 소를 잡아먹고 버리고 방치한 냄새가 지독하였다. 우리는 바닥에 물을 떠와 청소를 하고 자리 펴고 누웠고 어머니는 오랜 산고 끝에 공주가 태어 났다.

그 어려운 시기에 언골덱(하종갑 모)이 와서 산과의 도움으로 순산하 였다. 이름은 평점으로 지었는데 3일 만에 애석하게 죽었다.

〈돌아온 고향〉

이튿날 정신없이 마을을 돌아보니 옛날에 정겹던 초가집은 간데없고 모두 재만 남아있었다.

앞산과 뒷산에는 전쟁의 흔적과 군수품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넘어골 집에는 시체가 마루와 방에 누워있었다.

집과 전답 주변에 흩어져 있는 시신을 수습하여 묻고 청소를 하였다. 그리고 온 들에는 무시무시한 지뢰와 박격포와 부서진 탱크들이 널려 있었다. 전답과 개울제방은 탱크와 차가 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우리는 형님들을 따라 산과 들로 다니면서 수류탄고리와 빨순가락을 주우러 미친 듯이 다녔고 황학산에는 백병전이 일어나 적과 아군이 뒤 엉켜 쓰러져 있었으며 후포 밑 약산골에는 시체가 골짜기를 메울 정도 였고 외부 뒷산 전체가 포격을 맞아 꿈보산이 되었다.

우리는 수류탄과 대전차 폭탄을 주워 던져 터지면 좋아 손뼉을 치기도 하였다.

집에서는 못 가게 막아서나 어느 사이 빠져나와 전쟁놀이도 하였다. 하루는 친구들이 와서 박격포를 주워 놀자고 하였다. 그래서 같이 갔으나 나는 조상이 돌보았는지 사건 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뿔순갈 주우러 점점 멀리 가고 있었는데 그 때 저쪽에서 폭음과 함께 연기가 솟았다.

일행 중 운창 친구가 박격포의 심을 당겨 터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그리고 우리 마을 어른도 지뢰를 밟아 죽었으며 병신 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식구는 한 사람도 사고 없이 피란을 잘하고 돌아왔으니 이 난리 통에 조상님의 은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Ⅰ 맺는 말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리 고개를 넘겨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역사책에서 나오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대란은 책에서 많이 읽어 우리 민족의 처참한 양란은 어느 정도 알고 분개하고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겪은 가까운 사상이념으로 6.25사변의 역사를 등외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역사 교과서에 많이 제외되어 있어 문제점이 많음으로 올바른 교과서를 강력하게 수정 입법하여 젊은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깊이 인식이 되도록 하여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6.25사변과 베트남과 아프간 같은 처참한 전쟁이 없도록 투철한 안보의식이 절실하다. 아울러 위정자들은 당리당락을 떠나 입법하여 국민들을 위해 진정 애국하는 바른 정치를 하기를 기대한다.

고욤나무에 감이 열리는 비결



智光 韓三潤
창녕문화원향토사연구소장

2021년은 경화회(耕和會)가 창립 58주년이 되는 해다. 1963년 2월 26일에 출범한 본회는 우리 창녕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순수 농민 단체로서 전국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조직임을 자부한다.

5년 전 입회 당시를 생각해 본다. 가입 권유를 받고, 농사를 짓지 않아 잠시 망설였지만, 옛 농민의 아들로서 농심(農心)만은 늘 변함이 없었기에, ‘마음의 땅’인 ‘심지(心地)’라도 잘 갈고 닦겠다는 심정으로 입회한 기억이 새롭게 다가온다.

본회는 이름 그대로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개별적으로는 자기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상호 간에는 화합할 줄 아는 아름다운 ‘화(和)’의 정신을 머금고 있는 훌륭한 법인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혹자는 ‘본인의 노력(因)’ 5%, ‘주위의 도움(緣)’ 95%정도으로써 우리 삶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람은 인연(因緣)관계를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요즘시대에도 자기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일러 하룻강아지나 우물 안 개구리에 곤잘 비유한다. 하룻강아지 범(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 우물 밖 세상을 알 턱이 없다.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기질과 특성이 천차만별이지만 유독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신 밖의 일은 알 수 없다. 나를 내려놓는 일, 내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는 일, 생각만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성 싶다. 경우에 따라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확장 또는 자기 성장이 가능할 터인데 말이다.

속담에 “고욤 일흔이 감 하나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자질구레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큰 것 하나를 못 당한다는 뜻이다. 고욤나무는 같은 감나무과에 속하는 활엽교목이지만 열매가 감보다 훨씬 작고 맛이 매우 떫다. 대신 작지만 많이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고욤나무엔 고욤이 열리고 감나무엔 감이 열린다. 고욤나무엔 감이 열리지 않고 감나무엔 고욤이 열릴 수가 없다. 고욤나무를 아무리 정성을 다해 잘 키워도 감과 같은 크기의 열매는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고욤나무에 감을 열리게 하는 비결이 있다. 그게 바로 고욤나무에다 감나무를 접붙이는 ‘접목(接木)’이다.

고욤나무에다 감나무를 접목시키면 감이 열린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다. 자신의 가지를 모두 버리고 감나무 가지를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욤나무가 감나무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고욤나무의 뿌리와 커다란

줄기는 그대로 둔 채 자신과 완전히 다른 감나무 가지를 내면에 심는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 이는 곧 이물질인 모래가 조개의 속살을 깊숙이 뚫고 들어와 진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과 흡사하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진 생각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자신의 한계는 스스로 만든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면 쉽게 넘어설 수 있다. 다만 선택과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이는 내가 가진 습관과 고정관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릴 때 가능하다.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소인동이불화(小人同而不和)”라고 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되(和)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며(不同),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고(同) 공존하지 못한다(不和)는 의미다.

‘경화(耕和)’라는 단어에는 중용(中庸)의 실천 원리인 ‘중화(中和)’의 철학이 농축되어 있다.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라 말한다. 논밭을 경작하는 것이 ‘경(耕)’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는 ‘농(農)’이 곧 ‘경(耕)’이며 ‘중(中)’이다.

중용 장구에도 “중야자천하지대본야(中也者天下之大本也) 화야자천하지달도야(和也者天下之達道也)”라는 구절이 있다. 이 때의 중(中)은 적중(的中)과 정(正)의 뜻이다.

‘중(中)’이 ‘천하의 근본’이라면 ‘화(和)’는 천하에 미치지 못할 곳이 없는 도(道)다.

‘아름다운 관계’는 ‘나(我)’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치는 닫힌 ‘동(同)’이 아니라, ‘나(我)’를 내려놓고 울타리를 넘나드는 열린 ‘화(和)’에서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야말로 ‘경화(耕和)’라는 구절에 녹아있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이치다.

고욤나무에도 감이 열릴 수 있는 이치, 상대를 받아들이면 내가 확장된다.

각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화이부동의 철학’이 경화회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 정신이다.



팔자데로 산다

문경주

청춘(靑春) 어게인! 누구나 늘 푸른 동백나무처럼 푸를 것 같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마지막 잎새가 붉은 건 남은 에너지까지 다 쏟아내기 때문이다. 그 시절을 회상하곤 그리워한다. 12월 끝자락에서 ‘나훈아의 청춘 어게인’ 콘서트를 관람했다. 트롯 황제의 귀환으로 그는 대중의 호기심이 발동할 때만 신비스럽게 무대에 서곤 한다. 양쪽 커다란 날개가 달린 화려한 여왕벌 옷을 입고 ‘땡벌’ 노래로 시작된 그의 노래엔 노병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뒤돌아서 조명이 무슨 색깔인지 알고 노래를 하는 연출 기획까지 만능 엔터테인먼트다. 11년 만에 다시 팬들 앞에 선 그는 아버지란 그 이름은 ‘男子의 人生’은 퓨전음악이다. 이 시대의 ‘아버지’ ‘남편’들이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어깨의 짐을 지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지친 하루 눈을 감고 귀는 반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男子의 人生”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버랩되고 옆에 앉아 있는 남편 얼굴을 보니 너무 많이 늙어 눈물이 났다. 나뭇잎이 한 번 떨어지면 붙이지 못한다. 그는 작심한 듯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인데 어느 날 꿈이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끼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꿈을 찾아 헤매 돈 게 11년을 돌아 다시 대중 앞에 섰다.’며 그동안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다. 꿈을 찾기 위해 퍼즐처럼 조각조각 흩어져있는 것을 맞추어야 완성된다. 꿈을 미루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에 삶의 역경을 딛고 그대가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하고 울분을 토했을 때 화가 난다고 똑같이 항변하기보다는

감정이 생기는 반대로 단련시켜야 한다. 소리를 지르고 싶다면 조용히 속삭여라. 중간중간 ‘오늘 네 알아서 할 강계’ ‘어이~ ‘잘 하겠습니다.’ ‘가~ 자’ 박수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데로 힘들다며 관중을 쥐락펴락한다. 이 시대의 아버지는 가족의 생활비를 버느라 구두 굽이 다 닳도록 바쁘게 뛰어다닌다. 강철같은 사람도 가장이라는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눈물의 소주를 마신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 한 손엔 까만 비닐봉지 속엔 먹다가 남긴 안주가 들려 있다.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다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은 가족이라는 희망의 끈을 포기할 수도 없는 슬픈 현실에 놓여 있다. 자식 취업과 결혼 비용을 내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백일이다 돈이다... 그 비용을 갚아 가는 인생길.. 그 할부금을 다 갚을 때쯤 나이 들고 병들고 쓸쓸히 집을 떠나 요양병원으로 간다.

청춘 어게인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본인은 늘 청춘이라 생각했는데 제 자신을 모른다며 저 끝 구석에서 머리가 반 백이 된 할매가 ‘오빠’라는 소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했다. 노래 틈틈이 ‘오늘 내 알아서 할 강계 알아서 하소’. 게스트 없이 혼자서 백사십분 공연을 오금 저리게 한다. 나훈아란 이름이 부서지고 해체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고 없이 우리 곁을 떠났다가 알곡찬 열매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지름신은 내면의 모습이 변화해야 한다는 울부짖음이다. 시(時) 적인 노래를 생의 노래로 신들린 듯 토해 냈다. 그는 가수로서는 완벽한 신(神)이기에 세상 인연이 없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논다. 인생은 ‘이미 짜인 각본에 의한 운명적 연출이다.’ 인생은 모범 정답이 없다. 과거란 미련과 아쉬움이고 현재는 안갯속이다. 그리고 미래는 본인 하기에 달렸다. 그의 노래 구절에 이미 인생철학이 다 담겨 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닥쳐온 칠혹 같은 어둠과 마주 앉게 된다. 발자국 디디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서 슬픔조차도 호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회환의 눈물을 어금니
 짹 깨물고 한 동안 숨을 들이킬 땐 무대를 평정하는 매너, 화술, 친화
 력이 뛰어나 풍류 기질이 강하여 후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유
 연한 화술은 자신이 겪은 아픈 경험을 솔직히 표현하는 데서 나온다.
 청춘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 만의 방법을 알려주고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었다. 나훈아 그는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함부로 만
 지지 못하는 크리스탈처럼 보석같이 빛나고 음악인으로서 대중들에게
 단단한 속살을 채워준다.

일흔셋. 인생을 깊이 관조해야 할 노년기에 신체적 노화는 온데간데
 없고 생명의 유한함에 음악으로 승화시켜 자존감을 살찌운다. 모멸감
 과 수치심에 무덤덤해 보였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포장지보단 정말 중
 요한 내적 알맹이가 짹 차 있었다. 축축한 이슬처럼 영롱하게 소통과
 교감을 나누고 팬들을 맞이하는 자세에 본능적으로 사람을 끌리게 하
 는 전율을 잊지 못했다. 그는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인생
 의 수 없는 선택인 이혼이 죄를 지은 사람처럼 위축되는 게 사람의 마
 음이지만 그답게 일상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양푼이 보리밥에 곁절
 이 듬뿍 넣고 된장찌개 한 국자 떠서 쓱쓱 비벼 먹는 구수한 곰삭은 된
 장 같은 소소함을 소중히 할 뿐이다. 요즘 가수가 가수를 평가하는 게
 위험한 일이라고도 했다. 노래도 세월 따라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온
 통 한(恨) 서린 여자 노래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져서 가부장적
 남편들은 ‘밥도 못 얻어먹는다.’며 기죽은 남자들을 위해 ‘아자’ 삼창
 을 하고선 죽을 때 돈 다 써고 가라고 하지만 내년 콘서트를 위해 자식
 들에게 조금만 남겨 놓고 주라고 한다. 기분이 바닥일 때 그가 잘 생긴
 얼굴로 웃어 주니 살짝 기분이 좋아진다. 웃다 보니 행복해 진다. 무조
 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생각나거든 하라며 어디든 떠나고
 싶을 땐 뜬 들이지 말고 바로 가라 한다. 관객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

는 '공감'이 일어나면 응어리진 화가 풀린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삶이니 열정과 에너지가 넘친다. 성량과 가창력을 유지한다는 게 시대를 초월한 가요계의 제왕답게 인생이 멋지게 물들었다.

공(公)이란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텅 비었던 말이다. 원래부터 없었고 인연이 오면 잠시 생겼다가 인연이 다 하면 떨어져서 결국 없어진다. '자네'란 노래는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질거야" "아~ 살다가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지" "망각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 의미심장한 가사 소절 마디 마디마다 가슴이 징하다 못해 아려온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환희와 절망이란 감정의 골을 대인답게 감싸 안으며 노래로 영글어졌다. 세 번의 이혼을 접하며 성격차이라기보다는 가치관 혹은 취향의 차이이다. 사소한 것에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다독이고 곧 풀면 되지만 무뎠게 덮어 두면 앙금이 쌓여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메고 살아간다. 서로 아파하고 힘들 때의 '공감'의 힘은 사랑의 위기 앞에서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힘이 생긴다. 나의 경우도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자기 자신에 대해 남자의 흔들리는 배의 닻을 다독이며 순풍에 돛 달 듯 자신의 힘을 분명히 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자존감을 높인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 세상과 관대해지고 기쁘게 하고 보호하고 남편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화를 참고 억누르다 보면 "과연 내가 화를 내어 무엇에 쓸 것인가?" "이게 잘하는 일일까?" 분노를 차단하고 입을 다물게 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말이다. 깊은 생각으로 지쳐버릴 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지친 마음을 보듬고 쉴 안락한 공간이 필요하다. 나라는 DNA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몸이다.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 이 우주 안에서 내가

가장 높고 존귀하다는 뜻이다. 오십 이후엔 나 혼자 만의 놀이 공간이 필요해서 음악을 가까이하고 텃밭 가꾸고 효소 담고 귀한 약초 술까지 담그다 보니 전시공간이 되어 글 쓰는 데 도 도움이 되고 각박한 세상 살이 조금은 여유롭고 한가하다. 나에게 투자하는 잠재력은 최고의 투자이다.

주옥같은 노래가 삶을 능수능란한 자신감으로 음악으로 행복을 주고 관객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분위기가 고조될 썸 무대를 획~ 훑어보는 때의 눈짓에서 영화의 필름처럼 컴퓨터 하드 디스크 사이의 변화처럼 기억에 대한 내장된 생각을 잘 더듬는 순간이었으리라. ‘내 사생활에 왜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 슬금슬금 객석을 향해 흘끔흘끔 곁눈질했다. 담대한 그의 눈빛은 진심을 가득 담고 있었다.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눈빛만으로도 묻고 싶은 게 뭔지 허탈해졌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진실인가요’ ‘뭐가 묻고 싶은데’ 이내 평상심을 유지하고 뒤늦은 변명을 주절주절 늘어놓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눈물이 푹푹 떨어질 만큼 감격한 순간들이 있었다. 힘차게 살아온 그때는 대수롭지 않았던 것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이전과 다른 위로와 격려로 다가온다. 나훈아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위기 앞에서 슬기롭게 자기 자신과 맞닿는 극복하는 삶의 의미를 되찾는 치유의 기회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매일 한 가지씩 진심으로 우려나는 칭찬을 해주자.

“이제껏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었어요.
 “당신은 가수로써 트롯 제왕답게 제도(制圖)하는 것이 훌륭했어요.”
 “이번 청춘 어게인은 젊음을 되돌려줘서 너무 멋있었어요.”
 “역시, 찢어진 청바지는 당신에게만 잘 어울리는 캐릭터예요.”

루머를 통해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단상에 올라 바지춤을 내리려 할 때의 심정은 검증을 받아서라도 결백하다는 단호함이다. 바지를 내리고 싶지만 멈추고 스스로 통제를 해야 한다. 양값음을 주면 안 된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육체를 다치거나 망가진 것은 치유가 가능하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그때부터 나훈아란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이 시대에 가수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그 끼와 재능도 옥에도 티가 있다. 알아갈수록 더 신비롭고 대단한 가수, 조화를 부리는 재주와 능력이 하늘을 찌르지만 고독한 사내, 매너의 연예인, 영원한 불멸의 가수이다. 잘 사귀고 인정도 많고 인기도 좋은데 정작 쓸 사람이 없고 일편단심이 어렵다. 자신의 타고난 역량을 발휘해 팬들의 고갈된 갈증을 해결하여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의 망각에서 오늘은 어제를 잊고져 내일이라는 기약을 약속한다. 여자와 남자가 이별을 고할 때 남자는 짐을 들었다는 생각에 흥가분함을 느끼지만 여자는 그동안 쌓아온 만리장성을 쌓은 정(情) 때문에 두고두고 가슴 저리다. 세월이 약이라고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덜지 덜지 살아나지만 여자는 아픔을 가슴에 묻는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이별도 지우개처럼 싹 지워버려야 슬퍼할 시간도 없이 지나간다.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망각이다. 사랑을 잃고 아파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참 사랑을 할 수 없다. 사랑이 주는 황홀함은 그 대가가 따른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데 잔 근심으로 생각의 뿌리가 불안이다. 노래 가사 한 소절마다 참 사랑은 이별 후의 행복하라는 독백이고 잡지 못해 안달이 난 사무친 그리움이다.

남녀 뇌의 비밀은 눈이다. 그의 눈은 촉촉이 젖은 깊은 눈망울에서 아픔을 고이 간직하고 추억한다. 찢어진 청바지에 러닝을 입고 흠뻑 젖은 땀과 단단한 근육질 몸짓에서 그 만이 소화할 수 있는 특유의 사

투리와 제스처로 사랑의 공식 방정식을 깨고 새로운 연애의 여심을 잡으려는 몸짓이 여념이 없다. 그를 보면 만질 수도 가질 수도 없는 만인의 연인이라 사랑도 최선을 다하고 이별도 슬픔으로 승화시켜 울컥 삼키는 걸 보며 아~ 진정한 사랑은 서로 ‘불쌍타’며 사랑을 잃고 난 뒤의 토닥거림이다.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의 울림을 주는 타고난 감성과 신명의 가창력이 위안이 된다.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창녕의 옛 지명에 대한 고찰
잠자는 창녕 용흥사를 깨우자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 이야기

한삼윤
김화영
김화영

창녕의 옛 지명에 대한 고찰



智光 韓三潤
창녕문화원향토사연구소장

昌寧(창녕)의 고대 지명을 두고, 과거에 ‘比斯伐(비사벌)’이나 ‘非火伽耶(비화가야)’냐,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양분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행정에서 학술대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에 와서 누군가가 필자에게 어느 주장이 맞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어느 쪽이 맞는 말이라고 100%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그 이후 발굴되는 여러 가지 유물 유적에 대한 변화된 고증과 기존 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非火伽耶(비화가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주요 문헌에 근거한다면 창녕의 고대 지명은 ‘比斯伐(비사벌)’, ‘比子伐(비자벌)’, ‘빛벌’ 등으로 일컬어졌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사는 주관적인 기록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볼 때, 실제 그러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느 학자는 역사 서술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하나는 사실의 선택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선택한 사실의 해석이다.
따라서 역사 서술의 핵심인 두 가지가 모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지양하고 신중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함이 바람
직스럽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옛 문헌상에 표기된 창녕의 옛 지명은 어떠한지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기록상 명확하게 나타나는 주요 문헌을 분류해보면 이렇다.

국내 사서에서는 ‘三國史記(삼국사기)’, ‘三國遺史(삼국유사)’, ‘昌
寧新羅眞興王拓境碑(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국보33호, 진흥왕22년,
561년 건립) 등이다.

국외 기록상으로는 중국의 ‘魏志東夷傳(위지동이전)’과 일본의 ‘日
本書記(일본서기)’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국내 기록〉

1. 三國史記(삼국사기)의 기록

三國史記(삼국사기) 新羅本紀(신라본기)의 眞興王(진흥왕)16年
(년) 조에,

“16年(년) 春正月(춘정월) 直完山州於比斯伐(직완산주어비사벌)”

=> 16년(555년) 봄 1월 비사벌에 완산주를 두었다.

이 기록에서 처음으로 ‘比斯伐(비사벌)’이란 地名(지명)이 나타나 있다.
또한 三國史記(삼국사기)의 다른 기록(삼국사기 권제34 잡지 지리 火王郡(화왕군)조에,

“火王郡(화왕군) 本比自火郡(본비자화군)[一云比斯伐(일운비사벌)] 眞興王(진흥왕) 16年(년) 置州(치주) 名下州(명하주) 26年(년) 州廢(주폐) 景德王(경덕왕) 改名(개명) 今昌寧郡(금창녕군)”

=> 화왕군은 본래 비자화군(비사벌이라고도 한다)인데, 진흥왕 16년에 주를 두었다.

이름이 해주다. 26년에 주를 폐하였다. 경덕왕 때(742~763)에 화왕군으로 고쳤다.

지금의 창녕군이다.

三國史記(삼국사기)의 기록에서는,
比斯伐(비사벌), 比自火(비자화), 比子伐(비자벌) -> 火王郡(화왕군)으로 이어지는 지명 이외에 다른 지명을 사용한 구절은 없다.

2. 三國遺事(삼국유사)의 기록

三國遺事(삼국유사) 五伽耶(오가야)조에 대하여 살펴보자.

“五伽耶(오가야) - 按(안) 駕洛國記贊云(가락국기찬운) 垂一紫纓(수일자영) 下六圓卵(하육원난) 五歸各邑(오귀각읍) 一在茲城(일

재자성) 則一爲首露王(즉일위수로왕) 餘五各爲五伽耶之主(여오 각위오가야지주) 金官不入五數(금관불입오수) 當矣而本朝史略(당의이본조사략) 並數金官(병수금관) 而濫記昌寧誤(이람기창녕오)”

=> 오가야 - 가락국기의 찬문을 살펴 보건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자주색 끈이 드리워져서 여섯 개의 등근 알을 내려 주었는데, 다섯은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이 성에 남아서 곧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 다섯은 각각 다섯 가야의 주인이 되었다. 금관이 오가야의 수에 들지 않음은 당연한데 본 조사략에서 금관을 그 수에 같이 기록한 것과, 함부로 창녕을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오가야 명〉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 아라[혹 羅(라)는 耶(야)로도 씀]가야(지금의 함안), 고령가야(지금의 함녕), 대가야(지금의 고령), 성산가야(지금의 경산, 벽진이라고도 함), 소가야(지금의 고성)

“又(우) 本朝史略(본조사략) 云(운) 太祖天福五年庚子(태조천복오년경자) 改五伽耶名(개오가야명) 一(일), 金官(금관)[爲金海府(위김해부)] 二(이), 古寧(고령)[爲加利縣(위가리현)] 三(삼), 非火[今昌寧(금창녕) 恐高靈之訛(공고령지와)] 餘二阿羅(여이아라) 星山(성산) 同前(동전)[星山(성산) 或作碧珍伽耶(혹작벽진가야)]”

=> 또 본조(고려조)사략에 이르기를 태조 천복오년 경자에 오가야의 이름을 고쳤다고 하였다. 일은 금관(김해부가 되었다)이요, 이는

고녕(가리현이 되었다)이요, 삼은 비화(지금의 창녕, 아마도 **창녕은 고령의 잘못된 기록인 듯**)이요, 나머지 들은 아라와 성산(성산은 흑 벽진가야라고도 하였다)이다.

이상 三國遺事(삼국유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금관이 5가야의 수에 들지 않음은 당연한데, 본조사략에서 금관을 그 수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과, 함부로 창녕을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본조(고려조)사략에 기록하기를 태조 천복 5년 경자년(AD 940년)에 5가야의 이름을 다시 고쳤는데, 첫 번째로 금관(김해)이요, 두 번째 고령(위 가리현), 세 번째에 비화(지금의 창녕, 아마도 창녕은 고령의 잘못된 기록인 듯)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三國遺事(삼국유사)에서 ‘非火伽耶(비화가야)’라는 지명이 처음 대두되었으며, “지금의 昌寧(창녕)이지만 高靈(고령)의 잘못된 기록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3.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국보33호)의 기록

국보 33호인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는 진흥왕 22년(561년)에 건립된 비석으로 비문상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자.

비는 자연석 면을 갈아서 세로로 전부 27행이며, 각 행은 18~27자의 비문을 六朝體(육조체) 楷書(해서)로 새겨져 있다. 이 비문 19행에 “軍主(군주) 比子伐軍主(비자벌군주)~”로 새겨져 있고, 25행에는,

“比子伐停(비자벌정)~”으로 표기 돼 있다.

이처럼 眞興王(진흥왕)이 昌寧(창녕)을 巡狩(순수)하였을 때, 창녕의 지명이 比子伐(비자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라가 창녕에 下州(하주)를 설치하기 이전의 지명이 比子伐(비자벌), 比自火[비자화, 일명 比斯伐(비사벌)]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상의 기록에서 상고해 보면 창녕의 옛 지명은 比自火(비자화), 比斯伐(비사벌), 比子伐(비자벌) 등으로 한자표기 되어 있는데, 혹 한자표기 이전에는 빛벌 혹은 빛불 등으로 이름 하였을 것이라고 풀이하는 이도 있다.

이는 마치 영산지역의 ‘西火(서화)’를 ‘서불’로, 또한 밀양지역의 ‘推火(추화)’를 ‘밀불’로 부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국외 기록〉

1. 중국의 옛 서적인 魏志東夷傳(위지동이전)에서 인용한 변진24국(弁辰二十四國)중의 하나인 不斯國(불사국)을 昌寧(창녕)으로 비정하는 것은 比斯伐(비사벌), 比子伐(비자벌)의 訓音(훈음)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람이동이전을 기록하기 이전부터 昌寧(창녕)의 지명이 ‘比斯伐(비사벌)’, ‘比子伐(비자벌)’이었다는 뜻이다.
2. 일본의 옛 역사서인 日本書紀(일본서기) 제9권의 진구고 - 고(神

功皇后)49년 조에 7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比自体(비자벌)이란 나라이름이 있다. 일본 학자는 이곳을 지금의 昌寧郡(창녕군)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당시의 昌寧(창녕)지명이다. 그 때가 일본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기 369년이라고 한다. 이는 555년에 下州(하주)를 설치한 해 보다 186년이 앞서는 해이다. 이 시기에 比斯伐(비사벌) 또는 比子伐(비자벌)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比斯伐(비사벌)’과 ‘非火伽耶(비화가야),’

考證(고증)없는 歪曲(왜곡)된 郷土史(향토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混亂(혼란)과 不和(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나친 先入見(선입견)과 固定觀念(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것도 금물이다. 열린 시각과 유연한 사고를 통해 새로운 시대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다.

참고로,

1992.7.20.~1999.6.5. 창녕문화원 제15대~제16대 문화원장을 역임하셨던 김동주 현 고문님께서 정리해 본 창녕의 고대사 지명에 대한 내용을 덧붙인다.

우리 한국사는,

삼국시대(고구려, 신라, 백제)의 화려했던 신라 천년(991년)의 당대 기록물은 없고, 고려시대가 열리고 210년이 흐른 서기 1145년(고려 인종 23)에 삼국사기가 편찬되어 삼국시대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연선사가 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편찬된 이후 136년이 지난 서기 1281년(고려 충렬왕 7)에 편찬된 책으로 왕력 편에 오가야

가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처음으로 수로왕의 가야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말미에 “이람 기창녕오(而濫記昌寧誤)”라는 기록이 있다.
- 2) 5가야를 기록해 놓았고, 창녕은 아무런 흔적도 없다.
- 3) 또 본조사략에서 태조 천복 5년(940) 5가야의 이름을 고치면서 “삼, 비화(금창녕공고령지와)”라는 기록이 있는데 모든 사서를 통하여 “비화”라는 기록은 단 이곳 한 곳 뿐이다. 그리고 가야사는 불과 200여년 만에 신라에 병합되었지만 삼국시대 가 아니고 사국시대라는 사학자들의 말도 당연시 된다. 아쉽게도 중국의 삼국지며 일본서기 등에서 우리 역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서기를 믿는 사학자는 더물다고 한다.

우리 창녕의 옛 지명을 연대순으로 정리 해 본다.

- 1) 서기 555년(신라 진흥왕 16) 비사벌에 완산주(下州) 설치.
- 2) 서기 561년(신라 진흥왕 22) 척경비를 세움(국보 33호)
비문 19행에, “비자벌군주(比子伐軍主)”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하주의 주치임과 동시에 군주의 군영인 비자벌정을 말한다.
비문 25행에, “비자벌정(比子伐停)”이라는 구절의 의미는, 비자벌에 두어진 군부대 또는 군부대의 주둔지를 뜻한다.
- 3) 서기 742~763년(신라 경덕왕 시대) “화왕군 본비자화군(일운비사벌)”

일명 비사벌인데 화왕군으로 고쳤다.

4) 서기 940년(고려 태조 천복 5년) “개오가야명 삼 비화(금 창녕 공 고령지와)”

지금의 창녕, 고령의 잘못된 기록인 듯.

5) 서기 1145년(고려 인종 23)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기록 내용을 연대순으로 나열.

6) 서기 1282년(고려 충렬왕 7)에 일연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의 오가야 기록.

7) 서기 1425년(세종 7)에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地理誌), 창녕현(昌寧縣)

“고지비자화군(古之比自火郡), 일운비사벌(一云比斯伐)”, 옛날 비자화군이고, 비사벌이라고도 한다.

“신라(新羅) 진흥왕시(眞興王時) 개위하주(改爲下州), 궤후주폐(厥後州廢)”,

신라 진흥왕 때 하주로 바뀌었다가 그 역할을 다한 후 주를 폐했다.

“경덕왕(景德王) 개명화왕군(改名火王郡)”

경덕왕 때 화왕군을 이름을 바꾸었다.

“고려(高麗) 태조대(太祖代) 창녕군(昌寧郡)”,

고려 태조 때 창녕군이라 했다.

“본조(本朝) 태종대세재갑오(太宗代歲在甲午) 개창녕현(改昌寧縣)”
조선 태종대의 갑오년에 창녕현이다.

“별호이(別號二), 창성(昌城), 창산(昌山)”
달리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인데 창성, 창산이다.

8) 서기 1530년(중종 25) 편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창녕현의 건치연혁(建置年革)”
창녕현이 변천되어온 내역.

“본신라비자화군(本新羅比自火郡) 일운비사벌(一云比斯伐)”
본래 신라 비자화군이다. 또는 비사벌이라 한다.

“진흥왕십육년치하주이십일년과(眞興王十六年置下州二十一年罷)”
진흥왕 16년에 하주를 두었다.가 21년에 과했다.

“경덕왕개화왕군고려태조개금명(景德王改火王郡高麗太祖改今名)”
경덕왕이 화왕군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다.

“현종속밀성군(顯宗屬密城郡)”
현종이 밀성군에 소속 시켰다.

“명종치감무본조례개현감(明宗置監務本朝例改縣監)”
명종이 감무를 두었고, 본 조례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관원(官員) 현감(縣監), 훈도(訓導) 각일인(各一人)”
관원은 현감과 훈도를 각 1인으로 한다.

“군명(郡名) 비자화(比自火) 비사벌(比斯伐) 화왕(火王) 하주(下州)
창산(昌山) 창성(昌城) 하성(夏城) 하산(下山)”

본 군의 명칭은 비자화, 비사벌, 화왕, 하주, 창산, 창성, 하성, 하산
등으로 불려 왔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서(史書)에서 창녕의 옛 지명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일일이 다 기록을 생략하고, 단지 일연선사가 쓴 삼국유사의
오가야 내용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잠자는 천년고찰 창녕 용흥사를 깨우자

향토사 연구위원 김화영

우리창녕은 제2의 경주라 불릴 만큼 진흥왕 척경비 (국보 33호)· 술정리동삼층석탑 (국보 제34호)등 국보2점, 송현동 마애여래좌상을 비롯한 보물 12점등 많은 유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군 각 곳에 산재해 숨어 있는 많은 유적 유물들이 도굴과 난개발로 사라져 가고 있으니 더욱 보존이 절실하다.

우리군 최북단 비슬산 남쪽 성산면 안심골에는 일찍이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진 천년고찰 용흥사를 비롯한 각료암, 심적암, 극락암, 은적암등 팔방에 구암자가 있었는데, 역사적 병화에 부침을 거듭해오다 조선조 후기에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용흥사의 말사인 각료암 만이 지금껏 외로이 남아 허물어져가는 석축과 함께 무성한 잡초속의 용흥사 옛 터를 쓸쓸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 창녕은 예로부터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고려시대에는 북면 용흥사·남면 관룡사의 대원으로 이 고장을 평화롭게 지켜왔다고 여겨져 왔으나,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조선의 억불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용흥사는 천년의 한을 품고 깊은 잠에 빠져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다행이도 홀로 남은 각료암의 주지 스님께서 뜻있는 선현들이 남긴 역사적 기록과 여러 곳에 산재한 유적 유물을 찾아, 문화재청에 청원

하여 용흥사지가 매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용흥사 복원을 향한 큰 발걸음을 시작하였으니 축원과 함께 천년고찰 용흥사의 내력을 여러 사적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1. 동계경일대사의 창녕 용흥사 사적기

용흥사의 역사는 경일스님(1636~1695, 도명 : 태허, 거호 : 동계)의 동계집에 기록된 창녕 용흥사 사적기와 창건기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를 개략해 보면, 통일신라시대 고승이었던 관기대사가 이 절을 처음 짓고 편액을 용흥(龍興)이라 하였다. 그 후 병화를 여러 번 거치면서 소실되고, 고려시대 언제인가? 각료선사와 단사 곽항이 다시 세우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了恒寺(료항사)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조선조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되어 1614년(갑인년) 지혜스님이 료항사 터임을 알아 정지했으며, 어느 날 혜공스님이 받을 매다가 우연히 발견한 바라 한쪽에 쓰여진 글귀로 원래 이 터가 용흥사임을 알게 되어 다시 편액을 용흥사로 고치고, 성오대사 등이 합심하여 1688년(무진년)에야 비로소 용흥사를 재건하였음을 동계 경일대사는 이 사적기에 기록하고, 경일 대사가 서거한지 16년 되던 1711년(신묘년)에야 자감, 익상, 원순 등 문도들에 의해 비로소 이 창건기와 사적기를 실어 동계집을 간행하였으니, 이 시기에는 용흥사가 존재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삼국유사로 보는 용흥사의 최초 창건자 관기대사 이야기

삼국유사 피은(避隱)편에 신라시대 비슬산 용흥사의 최초 창건자 고승 관기와 유가사의 창건자인 도성 두 대사의 신이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관기는 옛 포산(비슬산의 다른 이름)의 남쪽 고개 아래 암자(지금의 관기봉 기슭)에 살았고, 도성은 북쪽 굴속(지금의 도성암 뒤편 굴)에 살아 서로 십 여리를 떨어져 지냈다.

이들은 구름을 헤치고 달을 노래하며 자주 오고 갔으며, 도성이 관기를 부르고 싶으면 산속의 수목이 모두 남쪽으로 구부러 졌으며, 관기가 도성을 부르고 싶으면 나무들이 모두 북으로 누웠기에 이렇게 몇 년을 오고 갔다고 한다.

어느 날 도성이 바위에서 몸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서 어딘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죽었으며, 관기도 이에 뒤따라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두 성사(聖師)가 노닐던 이산을 거만한 형세가 마치 비파와 같다고 하여 비슬(琵琶)이라 하였고, 산의 기세 또한 북으로부터 남쪽으로 노니는 용과 같이 날아오르다, 절의 뒤편에서 멈추고 머리를 높이 쳐들어 절의 주봉이 되었다.

그 정상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우뚝 솟은 것이 마치 용의 뿔 같은데 세속에서 관기대사가 놀던 곳이기에 관기봉이라 이름하였다.

이 관기봉에서 그 형세가 다시 일어나 동남쪽으로 치달려 60리에서 우뚝 솟아 울타리가 되었으니 창녕현의 주산인 관룡산이다. 비슬산과 관룡산이 창녕고을의 남과 북에서 마주하여 관룡산의 줄기가 일어난 까닭에 절의 이름을 용흥(龍興)이라 하였다.

이 맥은 하늘의 도이고 부처가 말한 청평의 세계로 돌아온 깨달음의

땅으로써 삼재의 해가 없으며 사겁동안의 침입을 없애고 천만년 무궁함을 기약한다고 경일선사도 사적기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3. 청동 은입사향완의 점각에 새겨진 창녕 용흥사

밀양 표충사에 보관 전시되어 있는 국보 제75호 청동 은입사 향완(靑銅銀入絲香笁)에는 57자로 된 명문이 아래와 같이 새겨져 있는바, 고려 명종 7년(117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받침의 안 쪽 면에 점각으로 원래 이 향완이 있었던 곳이 표충사가 아닌 창녕(昌寧) 용흥사(龍興寺)임이 새겨져 있으니 이시기에도 용흥사는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시기에 표충사로 옮겨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대정(大定) 십칠년(十七年) 정유(丁酉) 六月八日 법계(法界) 생망(生亡) 공증(空增) 보리(菩提) 之願 以 주성(鑄成) 청동(靑銅) 함은향완(含銀香笁) 일부(一副) 중팔근(重八斤) 인(印) 동량(棟樑) 도인(道人) 효초통강주등(孝初通康柱等) 근발지성특조(謹發至誠特造) 수희자(隨喜者) 감문(敢文)”

(향로(香爐) 의 화사(火舍) 둘레 이면(裏面) 57자 은입사(銀入絲))

“창녕(昌寧) 북면(北面) 용흥사(龍興寺)”

(받침의 안쪽면 7자 점각(點刻))

4. 기타 사적

최근 용흥사지 본당 앞 석축아래에서 발견된 자연석 바위에는 강희 33년(1694, 갑술년, 조선 숙종 20년)에 가선대부 차 명룡이 시주한 것으로 새겨져 있으며, 창녕현지(1977년/창녕문화원)에서도 용흥사를 조선 영조(1726-1776)의 여섯째 따님 화녕옹주 방원당으로 기록하고 있고,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해동지도(1872년, 지방지도(규1052/창녕현)에는 용흥사를 비롯한 북암(지금의 각료암)과 남

암이 그려져 존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유적 유물이 있었으나 도굴되고 사방 팔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다행히 주춧돌 등 일부 석조물은 안심마을 동민들과 협의하여 더 이상의 도난을 막기 위해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또한 석탑의 일부 옥계석은 창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 탑신, 주춧돌 및 재목 등은 금호재 및 부용정의 건립자재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용흥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도성대사가 827년 비슬산 유가사를 창건하였는데, 관기대사와는 도를 함께 나누었던 동시대의 사람으로 미루어 보면, 창녕 비슬산 용흥사를 통일신라시대 관기대사가 9세기경에 창건한 천년 고찰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흥사의 사적기가 기록된 동계집이 문도들에 의해 1711년에 간행되었고, 창녕현지에서도 용흥사를 조선 영조(1726-1776)의 여섯째 따님 화녕옹주 방원당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패망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18세기경에는 용흥사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창건과 패망시기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용흥사의 말사인 각료암은 처음에는 봉황이 살만 한 곳이라 하여 봉서암(鳳棲庵)으로 이름 하였으며, 그 후 고려시대 용흥사 터에 룡향사로 재건한 각료선사가 이곳에서 득도하여 각료암으로 개칭된

이래 온갖 풍상 속에 오랜 세월을 어렵게 견디면서, 지금은 통도사 말사로 오로지 용흥사의 복원을 대원하는 도량으로 만일기도를 준비하고 있다.

또 각료암 주지 대운(大雲)스님이 몇 년전 부임한 이래 기도와 함께 각고의 노력으로 용흥사 사적기를 비롯한 많은 유적유물을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2018년에 문화재청에 지표조사를 신청하여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 등록되어, 2021년 9월 28일부터 용흥사지의 시굴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어려운 가운데도 역사적 용흥사 복원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창녕 군민들이 힘을 모아 이곳 용흥사에서 잠자고 있는 용을 깨어나게 하여, 북면 용흥사와 남면 관룡사의 원력으로 창녕의 찬란한 새 역사를 다시 한 번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하겠다.

나무로 부터 듣는 창녕이야기

향토사 연구위원 김 화 영

냉천, 이천마을을 지켜온 보호수들

냉천리는 성산면의 동쪽 끝 가복리 천왕산에서 시작되어 달창저수지로 흘러가는 운봉천 하류에 위치하는 법정리로 수백년 수령의 노거수 동신목·정자목과 함께 냉천·석정·이천등 자연부락을 형성 취락한 이래 각각 당산나무에서 동제를 올리며 마을의 오랜 역사를 지켜오고 있다.

수백년 팽나무군의 찬샘골 냉천마을



냉천마을 입구 팽나무군락

냉천마을 입구에는 마을의 오랜 역사를 증언하듯 300여년의 팽나무(성산면냉천리 358-7)가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어 마을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윗담에는 물이 맑고 찬 샘(웅달샘)이 있어 찬아물, 찬샘골 이라며 한자말로 냉천(冷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냉천웃마을 원천재와 느티나무

본동인 냉천마을에는 경주이씨의 봉선소인 원천재(源泉齋)가 있고 재사입구에는 수백년 느티나무(성산면 냉천길47)가 보기 좋게 도열해 시원한 숲을 이루고 있다. (자료제공 : 냉천리 이재묵)

이천마을과 송나라 정이천의 학문을 흠모한 외신재 선생

이천 마을은 임진란 때 피난 왔던 파평 윤씨들이 1594년 처음 입향하여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마을 곳곳에 고목의 느티나무가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이 마을은 성산면 소재지로 북쪽 연비봉 앞자락에 파평 윤씨 연곡 문중 외신재(畏神齋)(성산면 냉천리 166)가 수백 년 향나무와 회화나무 등의 노거수와 함께 마을의 풍광을 더욱 멋지게 한다.



이천마을 외신재와 회화목

진사 외신재 윤남룡은 비록 높은 관직이 없어도 시골에서 사족을 잃지 않은 연원을 고찰할 수 있고 덕행을 가히 말할수 있는 선비로, 효우를 행함에 하늘에 근본을 두었고, 묻고 배움은 스스로에게 넉넉하여 어린나이에 부용당 성안의 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윤공은 일찍이 이계(伊溪/지금의 운봉천)옆에 집을 짓고 편액을 외신재라 하였으며, 무릇 어두운 방에 있어도 귀신의 눈이 번개처럼 빠르다는 뜻을 취한 것이라고 외신재기(畏神齋記)에 적고 있다.

외신재 공은 마을 앞에 흐르는 조그만 내를 보며 송조 대표적 성리학자 정 이천(程 伊川)선생의 학문을 흠모하면서 이 마을을 이천(伊川)이라 명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창녕군지에서는 이천 마을을 뒷산(연비봉)의 형태가 마치 제비가 날개를 펴고 저내(운봉천)를 바라보며 나는 형국이라 하여 연곡(燕谷)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저내”를 한자말로 이천(伊川)마을이라 부른다고 쓰고 있다.

석정마을의 느티나무 군락과 돌무정의 내력



석정마을 보호수

냉천마을의 서북쪽 석정마을 도로가에는 시원한 느티나무 군락속의 정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더위를 식히며 마을의 유래와 부용정 안마당에 우뚝 솟은 은행나무에 얽힌 선현들의 고결한 수백년 역사를 기리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주민들을 자주 볼수 있다.



석정리 느티나무 군락

석정(石亭)을 돌무정(回舞亭) 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임진란 이전부터 창녕성씨들이 취락을 형성한 세거지로, 옛적에 성만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며 애쓰던 중 마침내 집안의 아이를 양자로 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양자를 얻게 되자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정자나무 아래에서 “나도 아들이 있다.” 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고 한다. 그래서 춤을 추며 돌았던 정자라 하여 돌무정(回舞亭)이라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마을 이름도 석정(石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느티나무 수십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마을에 두 개의 보호수가 있는데, 도로옆 450년 수령의 정자나무와 길 건너 마을회관 앞에 있는 300여년 수령의 느티나무를 말한다.

이 마을 느티나무 군락은 세월의 온갖 풍상 속에서도 마을의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숲을 이루면서 잘 관리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풍광도

좋고 운봉천 바람이 이 느티나무 숲과 합쳐 한 더위를 식혀주고 있으니, 길손들도 걸음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 나누며 쉬어 간다고 한다.

부용정(芙蓉亭)의 역사를 묵묵히 지키는 은행나무

이 마을 서북 쪽에는 임란 의병장 성안 의(成安義) 선생을 모신 부용정을 지키며 약 3백년 수령의 군 지정 보호수(성산면 냉천리222)인 은행나무가 높이 서 있다.



부용정과 은행나무

부용당 성안의는 정한강(鄭寒岡)선생의 문인으로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찍이 홍문관 정자(正字)로 있으면서 같은 집안 성천희, 유학 곽찬과 더불어 의병을 모아 광재우장군 휘하에서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하였다.

그 후 조정의 부름으로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으나, 인조반정 후에 제주목사, 우부승지 등 관직을 제수 받고도 칭병하며 모두 사양하였다고 하였다. 부용당의 스승인 한강(寒岡) 정구(鄭逵)선생은 일찍이 창녕현감에 부임하여 현민들에게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창녕 군지에 의하면 조선조에 창녕 현감을 지낸 분이 148분, 영산 현감을 지낸 분이 130분이고, 일제 감정기 때 군수가 14명, 광복 이후 48분의 군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분이 고을을 다녀갔지만 우리 군민의 입에 오랜 세월 동

안 자주 오르내리는 분은 송사에 명 판결을 하였다는 고창녕과 선정을 베풀어 영산 현민들이 생사당을 지어 사모하였다는 신담 현감과 선조 때 창녕 현감을 지내신 한강 정구선생이다.

그 중에서도 정한강 선생은 퇴계, 남명의 학통을 함께 이어받아 이조 500년 유학사에 우뚝 선 분으로, 짧은 재임 기간에 하산 권징안등 많은 업적을 남겼음은 물론이며, 특히 우리 창녕에 8개 제실을 지어 인재 양성 교육에 주력하여 많은 후학을 길렀는데, 이곳 성산 부용정을 비롯한 유어면 미구에 팔락정, 대지면 왕산에 물계정, 고암면 우천에 관산재, 창녕읍 술정에 술정, 창녕읍 옥천에 옥천정, 유어면 세진에 만진정, 고암면 원촌에 백암재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한강 선생은 석정마을과 후천마을의 경계지점인 이곳에 부용정을 지어(1582년) 우리 지역의 후학을 널리 교육 양성하였고, 현감을 떠나면서 문하의 성안의에게 부용당을 작호하여 이 정자를 주고 강석(講席)을 맡기셨다. 이에 부용당 선생은 스승이 물려준 이곳 부용정에서 평생을 지방교육에 헌신하였으며, 뜻있는 후학들이 스승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며, 정자 앞 마당 은행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노거수들이 묵묵히 지켜보는 가운데 매년 향사를 올리고 있다.

부용당 선생의 아들 성이성과 춘향전 이 도령 이야기

춘향전에 나오는 주인공 이몽룡의 실제인물은 성이성으로 부용당 성안의 선생의 아들이라고 전한다.

한 논문(연세대 설상경 교수/2001년)에 의하면, 창녕현지 과거조에 성이성은 창녕사람으로 인조 정묘(1627)년에 급제하여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두루 거쳐 벼슬이 부사이고 청백리에 선록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仁祖 丁卯 登第 歷任三司 官府使 選錄清白吏)

임란이후 의병장이었던 성안의 선생이 서기 1600년에 영해 부사로 4년간 나갔다가, 1604년에 부모의 병환이 깊어 창녕으로 돌아온 후 부모상을 당하여 3년 상을 치르는 동안 원근의 수학자가 몰려들어 글을 가르쳤는데 그때 같이 수학한 제자들의 기념비인 교사비(敎思碑)가 부용정 바로 곁 은행나무노거수 아래에 세워져 있다.



부용당 교사비

당시 성이성은 10살 정도였으니 부용당 선생이 계시는 창녕 성산에서 공부하며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 성안의는 상을 마치고 1607년부터 5년간 남원 부사로 떠나게 되는데, 성이성은 13세에서 17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있으면서 의병장이었던 조경남에게 수학 하였다고 한다.

성이성은 그 뒤 과거에 급제를 하고 다섯 고을의 수령과 한차례의 경상감사와 세 차례의 호서 호남지방에 암행감사를 나갔는데, 어느 날 남원에서 스승 조경남과 술을 마시면서 옛날 공부할 때 있었던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를 듣고 조경남이 글로 남긴 것이 춘향전의 창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이성은 춘향이 만큼이나 절개가 굳은 목민관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고 권세에 영합하지 않고 직언하며 청빈한 청백리로, 소설 춘향전의 주인공 이 도령의 실제인물은 창녕 성산의 성이성 이라며 이 논문은 밝히고 있다.

곽천마을 동신 소나무와 미역바위 전설

성산면 안심과 가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운봉 천과 북쪽 대산리 말 등에서 흘러내리는 계곡 천이 만나는 하류에는 경상남도 창녕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계마을인 후천리 곽천마을이 있다.

이곳은 약 400여년전 서흥김씨가 입향하여 처음 취락을 형성한 이래 동리 동쪽 연화봉 의 한줄기로, 매를 놓아 보내는 형국의 매방산(방응산) 아랫 자락에 있는 수백년 노송군락을 수호목으로 하는 동신제와 함께 이 마을에는 미역바위, 연암 서원터 등 역사적 유적을 남기고 있다. (자료제공 : 후천리 전수진)

미역 나는 바위가 있는 후천리(後川里) 곽천(藿川)마을



후천리 동신목(소나무 군락)

이 마을 동남쪽 운봉천 하류 부용정(芙蓉亭) 근처에 소(沼)가 있어 물이 깊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큰 바위가 있어 “미역바위”라 부르면서 효자의 전설을 전해 주고 있다.

옛날 마을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노부모가 “미역국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또한 조기를 구워 먹었으면 원도 한도 없겠구나”하시니, 그 효자가 이 바위에 와서 정성으로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바닷물에서 나는 미역이 신기하게도 민물인 이 바위에 돌아나 있었고 또 조기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두고 “미역바우(藪巖)”라 부르는데, 근세 달창저수지가 축조 되면서 이 효자 바위는 아쉽게도 물에 잠기게 되었다.

옛 부터 미역 바위가 있는 내라 하여 이 하천을 미역 내 즉 곽천(藪川)이라 하고, 마을이름도 곽천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서흥 김씨가 처음 시거 할 때에는 미역 내의 앞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전천(前川)이라고 하다가, 언제인가? 창녕 성씨(成氏)들이 입향 세거하게 되면서 하천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후천(後川)으로 부르기 시작한 이래 지금의 후천리가 되었다고 한다.

연암서원과 금헌 이장곤 선생

옛날 후천(곽천)마을에 있었던 연암서원은 조선조 성종3년(1472)출사한 증좌찬성 벽진인 이승언, 그의 아들 병조판서 금헌 이장곤 및 조선중기 문신이며 임란 의병장 부용당 성안의를 배향하여 조선 중기이래 창녕 지방 교육의 일익을 맡아 왔으나, 고종의 서원 철폐령(1868년)으로 이곳 곽천의 연암서원은 훼철되고, 바로 옆 부용정의 수령 300년 은행나무가 지켜 보는 가운데 서원옛터와 유허비만 잡목 속에 쓸쓸히 남아 있다.



후천리 동신목아래 연암서원 옛터



금헌선생 봉천조대

다행이도 좌찬성 이승언과 금헌 이장곤 선생은 뜻있는 후손들에 의해 합산 대동마을 금호재(琴湖齋)에 옮겨 배향하고, 의병장 성안의 선생은 이웃 부용정에서

후인들이 매년 제향하고 있다.

병조판서 금현 이장곤은 부친 좌찬성 이승언 선생의 뒤를 이어 연산군조에 생원시에 장원합격하고 점필재 김종직-한훤당 김굉필문하에서 수학하여,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는데 갑자사회에 연루되어 삭탈 관직되고 거제도로 귀양 보내졌다. 그 후 연산군은 이장곤 선생이 무술에 뛰어나 혹 반란을 일으킬 가 두려워하여 곧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아채고 선생은 귀양지에서 배를 타고 함흥으로 도피하였다고 금현선생 실기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실기에 의하면, 당시 함흥 어느 산골길을 도주해 가던 중 하도 목이 말라 우물가 처녀에게 물을 청했더니 급하게 먹을 까 염려하여 수양버들 잎을 띄운 물바가지를 내밀었으니 그녀의 총명한 행동에 감탄하게 되었다. 선생은 그 곳에서 잠시 피신을 위해 은거하다 이 처녀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으니, 처녀는 고기잡이 등을 주로 하는 천민 양수척의 딸이었다.

그 후 중종반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잘 아는 사람에게 옷과 갓을 빌려 함흥 부중으로 가서 관찰영의 심부름꾼에게 쪽지를 전해주니 관찰사와 여러 관원들이 이장곤 선생을 알아보고 관계(官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선생은 문무를 겸비하여 일찍부터 재상과 장수의 적임자로 알려져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쳐 마침내 병조판서에 오르게 된다.

이장곤 선생이 관계에 돌아간 후 천민의 딸을 정실부인으로 인정하느냐는 논란으로 한바탕 조정이 시끄러웠는데, 다행히도 중종의 신임으로 비록 천민의 딸이지만 어려운 시절에 동고동락한 아내를 양반의

정식 아내로 인정하여 정경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후 조정에서는 다시 훈구파와 사림파의 극심한 대립으로 남곤등이 주동한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등 사화에 연루된 사림과 선비들의 처형에 반대하다가 금헌선생은 또 다시 삭직 되어, 이곳 고향 창녕으로 내려와 낚시로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도 달창 저수지로 유입되는 운봉천 하류의 바위에 새겨진 금헌 선생 조대[釣臺]가 석정마을 느티나무 숲과 함께 역사의 향기를 되새기게 한다.

운봉마을 당산목 느티나무



운봉리 정촌 정자나무



운봉 당산나무

운봉(雲峰)은 앞산의 형국이 구름이 떠오르는 형상을 말하며 성스러

운 부처님이 계신곳 연화대의 주위에 피어 오르는 상서러운 구름 봉우리로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할 것이다.

또 운봉리에는 수백년 고목의 느티나무가 마을마다 몇 그루 씩 있어 마을의 풍광을 더 해주면서 한 여름의 시원한 휴식처인 정자목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특히 음지마 한 뜰인 정촌(亭村)마을은 조선조 대학자 정한강(鄭寒岡)선생이 심었다는 정자나무(성산면 정촌길2)가 있어 마을 이름을 정촌이라 하였으며 김해 김씨들이 오래 살았으며 강학소인 도산재와 봉선소로 오곡재가 있다.

한강 정구선생은 창녕현감으로 부임하여 창녕고을 8곳에 정자를 지어 지방 교화에 힘을 쏟고, 우리 성산에는 특별히 운봉천 아래 부용정을 짓고, 이곳 운봉 정촌을 비롯 대산, 연당등에도 정자나무를 심었으니 후인들이 한정지(寒亭地)로 이름하여 자랑하고 있다.

또한 본뜬 운봉에는 마을 쉼터에 정자와 더불어 450여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두 개의 가지가 하나의 수관을 왕성하게 이루어 군 보호수(운봉리 924번지)로 지정되어 잘 관리 보존되고 있고, 마을의 당산목으로 매년 정월 보름이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동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당산목의 동쪽편에는 조선조 청백리공 이지직(李之直)의 도덕문장과 도학절의를 길이기 위하여 남향의 사람들이 향당에서 의논하고 도산원에서 태학에 고하여 영조계사(1773년)에 후예들의 집성촌인 창녕 성산 이 마을에 운곡서원(雲谷書院)을 세워 사인(舍人) 이장손(李長孫), 대사간(大司諫) 이극규(李克圭)을 비롯 광이(廣李) 선열

(先烈) 육현(六賢)을 함께 배향해 왔으나, 1868년 고종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고 지금은 그 유허지에 서원 복원을 염원하면서 운곡서원 구기비(舊基碑)만 남아 있다.



운봉리 운곡서원 구기비

이외에도 운봉리에는 운정(雲亭)과 창녕성씨의 봉선소 개정재(蓋井齋)가 있다.

연당리 한정지와 느티나무와 연화각시 설화

연당(蓮塘)리는 연꽃이 핀 연못으로 부처님이 계신곳 즉 연좌·불좌를 가르킴이니 이 주변은 연내골이라 속칭되며 불교와 인연이 깊은 마을임을 보여준다.

동쪽 수봉산 중턱에 연화사가 있었으며, 서남쪽으로는 연꽃모양의 연화봉이 우뚝 솟아 있으며 산아래 들판 마을은 연평이라 부른다.

또한 남쪽으로는 상스러운 구름 봉우리를 상징하는 운봉, 마을 북쪽 비슬산 관기봉 중턱 안심골에는 용흥사라는 큰 사찰이 있었으니, 이 지역을 흔히 절골을 연상케 하는 연내골, 연화골등으로 이라 불러 지기도 한다.

조선초기에는 이 마을이 연화로 불리다가 그후 연당리로 법정되고 행정동으로 연당마을과 연화마을로 구분 되었다. 이 마을은 정한강 선생의 한정지와 연화각시 이야기로 유명하다.

한정지 느티나무의 내력



성산 연당리 한정지(느티)

이 마을 옛 성곡초등학교에는 수령 440여년의 느티나무가 폐교로 텅빈 교정을 곳곳이 지키고 있다. 이 고목은 창녕 현감으로 부임한 한강 정구 선생이 1580년에 부임하여 심은 것으로, 정 한강선생의 한(寒)자와 정자나무 터의 정(亭)자를 따서 한정지(寒亭地)라 이름 하였고 지금도 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이에 동민들이 한강 선생의 뜻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매년 정월 보름날에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며 농악 놀이를 즐긴다.

창녕군 성산면 연당리 228번지에 소재하는 이곳은 대산리와 연당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 폐교를 잘 활용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특히 밤이면 맑은 물 푸른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 쏟아지는 성곡 오색 별빛마을로 지정받아, 천체관측망원경 등 각종최신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내방객들이 천문을 교육·관찰하게 하고, 또한 친환경농업 및 농촌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 다목적 교육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설의 연화각시 이야기

이곳 연당리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연화각시 이야기로 유명하여 마을의 오랜 역사를 한층 깊게 하고 있다.

이 연화마을 입구에는 마을 쉼터인 정자와 함께 느티나무(성산면 연당대산로 151)가 있어 동민들이 지금도 정월 보름이면 연화각시의 원력을 빌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성산 연화마을 당산나무와 정자

연화각시를 연당각시, 연내각시, 여내각시 등으로 불러 지기도 하는데, 이하에서는 연화각시로 통칭 하고자 한다.

이웃 연당마을에 있는 연화각시 사당에서도 제사를 지내며, 또한 동쪽 수봉산 구 연화 마을 뒤에 있는 연화각시 묘도 마을 주민들이 벌초를 하며 잘 관리 하고 있다.



구연화마을 연화각시 묘단

이 연화각시 설화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하늘의 옥황상제 부인께서 오랫동안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는 오직 지상에서 구해야 되기에 딸에게 그 약초를 구해 오기를 명했다.

지상으로 내려온 딸이 약초를 구해 천상으로 돌아왔을 땐 어머니는 이미 돌아 가시고 말았다. 옥황상제가 늦게 돌아온 그녀를 책망하여 다시 지상으로 귀양 보내게 되었으며, 그녀는 슬픔을 안은 채 무지개다리를 타고 내려온 곳이 이 마을 동쪽 수봉산(秀峯山) 계곡의 폭포가 쏟아지는 반석이였다. 그래서 이곳을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이곳을 “무지개도랑”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인가를 찾아 계곡을 오르니 마침 서너 채의 초가가 있어 찾아 든 곳이 지금의 구연화 마을이었다. 그 후 그녀는 산 아래 평지 마을인 지금의 마을로 내려와 이웃을 도우며 살게 되어 모두들 ‘연화각시’라 부르게 되었다.

마을사람들이 처음에는 연화각시를 의심하였으나, 그녀는 천상 선녀라 얼굴이 맑고 아름다우며 언행이 바르고, 더구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며 질병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나타내므로 서서히 마을에서 그녀를 존경하여 서로 도우며 살았다.

세월이 흘러 옥황상제께서 지상으로 내려간 딸이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도 인간에게 은덕을 베풀기에 감동하여 귀양을 풀고 천상으로 돌아오기를 허락했다.

연화각시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동민들에게

“저는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내 몸 하나 거처할 수 있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약간의 식량과 물을 넣어 주십시오.”라 부탁하였다. 이에 동민들도 이제 승천하게 되는 선녀 연화각시와의 이별의 아픔을 참고, 그녀가 내려왔던 무지개도랑의 조금 위쪽 수봉산 서쪽 기슭에 토굴을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토굴에 들어가면 곧 입구를 돌로 막고 여기서 흐르는 뜬물이 그치면 승천한 줄 아십시오.”하고는 자신이 여태까지 입었던 잠자리 날개 같은 얇고 고운 색깔의 천의(天衣)인 열 두 폭 치마에서 두 폭을 잘라내어 마을 노장(老長)께 드리면서 “이것은 마을에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것이니 그때 사용하십시오.”하고는 몸을 감추었다고

한다.

이곳은 지금의 구연화 마을 뒤편에 연화각시 무덤으로 남아 있으며, 또한 동민들은 곧 사당을 지어 그곳에 잘라낸 두폭 치마를 모시게 되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해에 마침 수봉산 기슭에 연화사(蓮華)란 절을 짓게 됐는데, 그 대웅전 대들보가 될 수백년 된 고목이 크고 무거워 인력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승려와 동민들은 실의에 잠겼다가, 마침 연화각시가 남긴 치마폭이 생각나기에 사당에 모신 치마폭을 장대에 매달고 대들보 위에서 흔들었더니 그 대들보는 나무토막처럼 가볍게 옮길 수 있었다.

또 어느 해인가 마을 앞 넓은 들관의 농작물에 병충해가 심했기에 이 밧발을 나부꼈더니 마을 들관은 씻은 듯 병충이 사라지고 풍년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대풍을 맞은 마을에서는 추수를 앞두고 온 동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풍년에 감사하는 축제를 올렸다고 한다.

그후 어느 날 당집에 보관되어 있던 치마 한 폭이 옥천마을로 날아가 옥천 서낭에 걸리는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언젠가 옥천서낭은 남자 서낭으로 연화각시와 인연을 맺음으로 창녕에 풍년이 온다고 하여 축제의 줄을 당겼다고 한다. 이 행사가 일제강점기에 잠정 중단되었으나 그 후 근년에 와서 창녕문화원이 주최하는 “비사벌 문화 예술제”에서 재현한 바 있으며, 이 연화각시 이야기는 “창녕의 설화”(창녕문화원/2016)에서 상세히 전하고 있다.

옛날에는 지금의 연화마을 입구 느티나무가 있는 도로 건너편에 연

화각시를 추모하며, 돌로 쌓아 솟대를 만들어 제사를 지냈으나 언젠가 솟대는 무너지고, 지금의 이 느티나무를 솟대의 후계목으로 변함없이 연화각시를 기리고 마을의 강녕을 기원하며 정성으로 동제를 올리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다.(자료제공 : 연당리 김창희)

대산리 당산목 연리지와 안심동 관기봉의 신이한 나무설화



대미 죽림재



요요정과 불의대(이건)

창녕군의 최북단 성산면 대산리는 신라시대 경주에서 마을 동쪽 마령치고개를 넘어와 낙동강 서부지역을 이어주는 한길(大路)의 요지인 역촌(驛村)마을로 입구를 알리는 돌장승이 있고, 역마를 기르던 마리동(말동)과 장군석의 유적으로 보아 상당한 군대가 이 요로를 지켰다고 창녕군 지명사(1992)는 보고 있다.

옛날에는 대산동과 안심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914년 이래 대산리로 법정되고, 지금은 행정동인 대산(대미), 월곡, 안심마을 등 3개 동으로 되어있다.

본동인 대산마을에는 과평윤씨의 세거지로 비슬산 남쪽 생기산 기슭 큰 대밭아래 있는 입향조 과평 윤씨 통덕랑 탕좌(湯佐) 문중 봉선소인 죽림재(성산면 대미길 23-62/지방문화재 354호)가 있고, 월곡마을 북쪽 길 아래에는 저수지의 축조로 수몰된 안심폭포에 있던 불의대(拂衣臺)와 요요정(樂樂亭)이 아름다운 느티나무(성산면 대산로 164)와 함께 이진 되어 있다.

또한 대산리 최북단의 안심마을은 옛날 대사찰 용흥사와 함께 각료암을 비롯한 팔방 구암자가 있었으니, 삼재팔난을 피할수 있어 안심하고 살수있는 동네라고 하여 안심동이라 하며, 이 대산리 계곡 일대를 사람들은 안심골이라 불러 왔으며, 최근에는 사라진 천년고찰 용흥사의 복원계획이 부처님의 가피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대미마을의 느티·회화나무 연리지 설화

대미마을은 대산(垆山)의 분땀으로 옛 역의 터라 하여 대피라 하였으며 큰산이란 뜻이다.

이곳 대미마을에는 수백년(300~400년 추정) 수령의 노거수가 있는데, 이 고목을 일러 느티회화나무 연리지(성산면 대미길 28)라 하고 있다.

연리지는 서로 다른 나무가 맞닿아서 한 몸이 되듯이 화목하게 백년해로하는 부부의 아름다



대미마을 연리지

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나무를 말한다.

옛날 이 마을에는 이별하는 부부가 많아 마을의 노장들이 이를 걱정하여 정성으로 복을 빌어 이 느티회화나무 연리지를 갖게 되었고, 매년 동민들이 합심하여 이곳에서 정성으로 동제를 지낸 이래로 마을사람들이 모두 평안을 얻었다고 한다.(자료제공 : 대산리 윤중용/윤기은)

호랑이도 감동한 효자와 동네를 구휼한 궁내부 주사 성휴이야기



안심동 후계당 산목



효자각과 백일

창녕의 최북단 대산리 안심 마을에는 큰담 뒤쪽 비슬산 관기봉 남단 3부 능선에 수백년 묵은 당신목(괴목)이 있었는데 오래전 고사되어 그 후계목(성산면 대산로 322)을 큰담(안담) 도로 아래에 옮겨 심어 지금도 매년 정월 보름이면 마을의 강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변함없이 올리고 있다.

이 마을에는 효자각과 불망비가 회관 앞에 세워져 있는데, 효자각은 어려서 부터 중병의 부모를 여러해 동안 극진히 봉양하였음에도 돌아가시자, 낮에는 생존하고 계신 조부님을 지극 정성 모시고, 밤에는 부모님 산소에서 밤 세워 시묘하니 이에 감동한 호랑이도 지켜 주었다는 김녕 김공 주상(柱祥)의 정려각으로, 고목 백일홍이 좌우에서 에워싸고 뒤에 있는 은행나무가 높이 서서 마을 정자와 함께 지켜주고 있

다.(성산면 안심산림길1)

김 공은 계유정란 당시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하여 사절한 절신으로 숙종때에 서야 사육신에 복관된 충의공 백촌 김문기선생의 후예이다.

또한 회관 앞마당에는 아름다운 큰 느티나무 아래 무진년(1928) 사나운 우박으로 농작물이 전멸되어 궁핍하게 된 마을을 구제해 주신 궁내부 주사 성휴(成休)의 큰 은혜에 보답코저 세운 혜덕 불망비가 우뚝이 서 있다.(성산대산로 282)

(자료제공 : 안심리 김홍대)



성휴선생 혜덕 불망비

비슬산 관기봉의 신이한 나무 설화

창녕의 최북단 대산리 안심골 뒤쪽 비슬산 관기봉은 불교가 흥행했던 통일신라시대 안심마을 수호 당산목의 서쪽 바로 위에 있었던 대사찰 용흥사지가 잡목만 무성한 가운데 허물어져가는 석축과 함께 주춧돌, 시주석, 해우소 등과 함께 복원을 염원하며 이 터전을 지키고 있다.



용흥사 본당 옛터

그 옛날 용흥사를 최초 창건한 관기대사의 성스러운 자취를 싣고 있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시대 고승 관기와 유가사를 창건한 도성



용흥사지 해우소 옛터

대사가 옛 포산(비슬산의 다른이름)의 남과 북에 십 여리를 떨어져 지내면서, 포산의 북쪽에서 도성이 관기를 부르고 싶으면 나무들이 모두 남쪽으로 구부러졌으며, 마을 뒤 관기봉 정상에 바위에 올라 관기가 도성을 부르고 싶으면 나무들이 모두 북으로 누웠다고 쓰고 있어, 후인들이 이 마을 뒷산을 비슬산 관기봉이라 하였고 그 바위는 관기바위라 부른다.

용흥사 지킴이 각료암의 대원(大願)



각료암 전경

이 마을의 당산 고목과 함께 팔방으로 용흥사를 비롯한 대견사, 연화사, 심적암, 은적암, 극락암, 남암, 북암, 각료암 등 구암자가 있었으나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용흥사의 말사인 각료암(성산면 안심산림길 376)만이 지금껏 남아있다.

이 각료암은 지금은 통도사 말사로써 허물어져가는 용흥사 옛터를 외로이 지키면서 오로지 용흥사의 복원을 대원하는 도량으로, 고려 중엽 용흥사의 부속암자로 세워졌으며, 처음에는 봉황이 깃듬직한 곳이라 하여 봉서암(鳳棲庵)이라 이름 하였으며, 그후 고려시대 각료선사가 이곳에서 득도하여 각료암으로 개칭된 이래 600여년의 온갖 풍상 속에 어렵게 견디고 있다.

용흥사의 내력에 대한 많은 구전 설화가 있었으나, 6년전 부임한 각료암 주지 대운(大雲)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용흥사 창건기를 비롯한 많은 기록과 유물·유적을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관계 부처에 청원하여 3년전 지표조사를 끝내고, 올해는 측량을 완료하고 대웅전 터의 굴착작업에 정부예산으로 착수하게 되는 역사적 용흥사 복원의 기초를 마련하는 쾌거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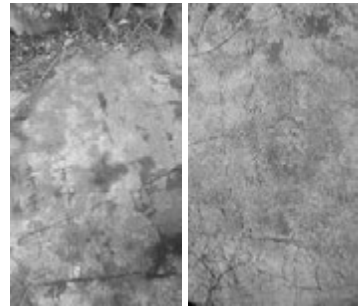
지금은 우리 창녕 군민들이 힘을 모아 이곳 용흥사지에서 잠자고 있는 용을 깨어나게 하여, 남면의 관룡사와 북면의 용흥사가 손에 손잡고 옛 창녕의 찬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내야 하겠다.

천년 고찰 용흥사의 창건과 패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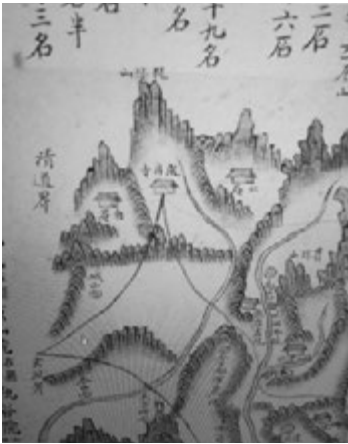
경일스님의 동계집에 기록된 용흥사 창건기를 개략해 보면, 통일신라시대 고승이었던 관기대사가 이 절을 처음 짓고 편액을 용흥이라 하였다.

그 후 병화를 여러번 거치면서 소실되고, 고려시대 언제인가? 각료선사와 단사곽항이 다시 세우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了恒寺(료항사)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조선조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되어 1614년(갑인년) 지혜스님이 료항사 터임을 알아 정지했으며, 어느 날 혜공스님은 밭을 메다가 우연히 발견한 바라 한쪽에 쓰여진 글귀로 원래 용흥사임을 알게 되어 다시 편액을 용흥사로 고치고, 성오



용흥사지 가선대부 차명룡 시주석



옛 용흥사가 표시된 해동지도(1872)

대사등이 합심하여 1688년(무진년)에야 비로소 용흥사를 재건 완성하였음을 동계 경일대사는 이 창건기에 기록하고, 경일대사가 서거한지 16년 되던 1711년(신묘년)에 자감, 익상, 원순 등 문도들에 의해 비로소 이 창건기를 실어 동계집을 간행하였으니, 이 시기에는 용흥사가 건재하였음을 추측하게 하고 있다.



국보 제75호 용흥사 은입사향완

또 최근 용흥사지에서 발견된 자연석 바위에는 강희 33년(1694, 갑술년, 조선 숙종 20년)에 가선대부 차 명룡이 시주한 것으로 새겨져 있으며, 창녕현지(2006년/창녕문화원)에서도 조선 영조(1726-1776)의 여섯째 따님 화녕옹주 방원당으로 기록하고 있고,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이 소장하고있는해동지도(1872년 지방지도(규 1052)/고대 4709-41/창녕현)에는 용흥사를 비롯한 북암과 남암이 그려져 존재

하고 있다.

또한 밀양 표충사에 보관 전시되어 있는 국보 제75호 청동 은입사 향완(靑銅銀入絲香堈)에는 57자로 된 명문이 아래와 같이 새겨져 있는 바, 고려 명종 7년(117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받침의 안쪽면에 점각으로 원래 이 향완이 있었던 곳이 표충사가 아닌 창녕(昌寧) 용흥사(龍興寺)임이 새겨져 있으며, 어느시기에 표충사로 옮겨 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대정(大定) 십칠년(十七年) 정유(丁酉) 六月八日 법계(法界) 생망(生亡) 공증(空增) 보리(菩提) 之願 以 주성(鑄成) 청동(靑銅) 함은향완(含銀香垵) 일부(一副) 중팔근(重八斤) 인(印) 동량(棟樑) 도인(道人) 효초통강주등(孝初通康柱等) 근발지성특조(謹發至誠特造) 수희자(隨喜者) 감문(敢文)”

(향로(香爐) 의 화사(火舍) 들레 이면(裏面) 57자 은입사(銀入絲))

“창녕(昌寧) 북면(北面) 용흥사(龍興寺)”

(받침의 안쪽면 7자 점각(點刻))

이외에도 많은 유적 유물이 있었으나 도굴되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다행히 주춧돌 등 일부 석조물은 안심동민들과 협의하여 더 이상의 도난을 막기위해 최근에 와서야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용흥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도성대사가 827년 비슬산 유가사를 창건하였는데, 관기대사와는 도를 함께 나누었던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바, 창녕 비슬산 용흥사를 통일신라시대 관기대사가 9세기경에 창건한 천년 고찰로 비정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창녕현지에서 조선영조(1726-1776)의 여섯째 따님 화녕옹주 방원당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패망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18세기경에는 천년고찰 용흥사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세를 떨쳐낸 스님들의 큰 바위 “불의대”와 유림의 놀이터 요요정

이 안심마을에서 남쪽 방향으로 월곡마을의 북쪽 산굽이 아래 대산천의 깊은 골짜기에 이른바 안심폭포가 있어, 한때는 창녕 제일의 경관으로 손꼽히던 계곡이 있었다.



불의대와 요요정 모형



불의대와 요요정 옛 전경(사진보)

이 폭포 바로 옆에는 옛날 창녕, 청도, 현풍 유림들이 모여 시문을 주고 받은 요요정(樂樂亭)이라는 아담한 정자가 있었고, 폭포 옆 아름다운 수백년 고목과 함께 40여명이 넉넉히 앉을 만한 넓고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하며 이 바위를 사람들이 불의대(拂衣臺)라 부른다.

이 안심골은 신라시대 창건한 대사찰 용흥사를 비롯한 팔방 구암자가 있었으니, 많은 스님들이 세속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길목의 노거수 그늘 아래 있는 이 바위에 앉아 속세에서 묻은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입산한다 하여 옷을 떨치는 바위로 불의대(拂衣臺)라 한 것이다.

현재 이 계곡은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물속에 잠겨 아까운 절경을 못보게 되었고, 불의대와 요요정도 노거수와 함께 수몰되었으나, 다행히 근처의 못둑 아래 월곡 마을 북쪽 도로가에 후계목인 아름다운 느티나무 그늘 아래 불의대 모형을 앉히고, 이곳에 요요정도 함께 이견하여 지금도 성곡 경로당을 중심으로 뜻있는 동민들이 사월 초팔일이면 제를 올리며 옛 선현들의 역사를 기리고 있다. “빛벌문화”에서는 그 옛날 이 계곡의 절경을 담은 시한수를 전하고 있다.

老松은 鬱鬱하고 물소리는 구슬픈대
數聲啼鳥는 仙境을 이루누나
眞仙은 어디가고 拂衣臺만 남았는고
요요정 맑은 물은 拂衣臺를 휘돌고야
창공에 뜨는 鶴이 이골에 眞仙인가
擾擾塵 다 잊고서 樂山樂水 하리라

의병장 박극을 지키는 느티나무



방리 227(느티나무)

방리는 성산면의 동부로 고암면에서 북쪽 방골재를 넘어 있는 마을인데 창녕-고암중대-방리-청도로이어지는 20번 국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방리는 밭이 많은 골짜기이므로 밭골이라 불리다가 방골로 변하고 음차하여 한때 방동(方洞)으로 썼으나, 봄이면 산에 참꽃이 만발하여 경치가 아름답다하여 방리(芳里)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순천박씨 세거지로 수령 300년의 역사적 당산나무(느티나무/방리 227번지)로 임란 의병장 박극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 순천박씨 종중에서 식수하여 군보호수로 지정·관리하며 매년 마을에서 동제를 올리고 있다. (자료제공 : 방리 박종하/하태식)



비치산 의암굴(박장군굴)

이 마을의 북쪽 비치산(飛雉山) 소류지 위로 9부 능선에 크기가 가로 2.2m, 세로 4.05m, 높이 2.2m이고 20여명이 함께 할수 있는 넓직한 굴이 하나 있다. 이 굴은 임진왜란을 당하자 사복시정 박극(朴克) 선생이 세 아들과 함께 의병을 모아 한양에서 하산(창녕)까지 내려와 하산 싸움에서 의병장으로 왜군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의암재

마침내 왕재산(旺嶺山) 대산성(臺山城) 큰 싸움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게 되어, 이 비취산 굴 속에 피신하여 자책하며 살았다고 “임진란 위훈록”에서 박종하 선생은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후인들은 선생의 이 의로운 삶을 생각하며 “박장군 굴”, “의암 굴”로 부르고 있다.

임란(1592년)이후 의병장 박극선생은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순천

박씨 입향조로 이곳에 세거를 이루어 취락을 형성·정착하고, 호를 의암이라 하며 방리 의암재에서 일생을 마쳤으며, 이 마을 뒤 비취산 끝 자락에는 “사복시정 의암 박선생지묘”라 새겨진 묘비가 있다.

또한 자신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패하였으니 세상에서 용서 받기 어렵다”며 자책하는 충정의 시 한수를 이곳 비취산 굴 암벽 위에 새겨 후세에 전하고 있다.

千里從軍 敗夏山

천리 길 종군하여 창녕에서 패하니

回頭空望 五雲間

머리를 돌려 멍하니 하늘을 바라 보네

藏身愧我 忘君罪

몸을 숨기니 임금을 잊은 죄가 부끄럽구나

大駕龍彎 不暫閑

임금께서는 의주에서 잠시라도 한가하지 않으실 텐데

가복마을의 당산 정자나무



하가복 동점이마을 정자나무

창녕에서 제일 깊은 계곡을 말하자면 창녕읍의 옥천 계곡, 고암 천간 계곡 및 성산 가복 계곡을 꼽는데, 성산 계곡의 가장 안쪽에는 500여년전 진양하씨가 처음 입학한 이래 순천박씨, 청도김씨 등이 취락을 형성 세거한 가복리라는 마을이 있어, 창녕군의 북쪽 변두리이고 성산면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어 가골(邊谷)로 불리며 가골 돌부처 설화로 유명하다.



성산 가복리 덕곡마을 수호목(고사)

이 가복리에는 수백년 수령의 회화나무가 지키고 있는 제일 위쪽 가복 마을을 비롯하여, 예전에 구리가 많이 나왔다는 하가복 동점이(銅店) 마을에는 300여년 된 느티나무가 동구에 우뚝이 서있고, 그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마을 입구 수호목이 정자와 함께 마을의 역사를 기리는 큰 골인 덕곡 마을 등 행정동 세 마을이 있다.



덕곡마을 후계정자목

이 덕곡마을의 300년 보호목(성산면 가복리 616-1)은 몇 년전 태풍에 사라져 그 후계목을 심어 보호목 지정비와 함께 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마을은 인동장씨가 입학 시거하여 취락·형성 된 이래 지금도 매년 음력 11월 15일이면 어김없이 동제를 지내며 마을의 강녕을 기원하고 있다.(자료제공 : 덕곡리 강정규)



상가복 정자나무(회화)

가골 돌부처 이야기

이곳 가북리의 동쪽에는 밀양으로 넘어가는 험하기로 이름난 천왕재(千往嶺)고개가 있는데, 호랑이와 도둑이 많아 천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다고 전해온다.

이 천왕재는 밀양을 오가는 지름길 큰 고개인데 이 가북리 당산나무 아래에서 수 많은 등짐장수들이 쉬어 넘어 다녔다고 한다.

어느 날 돛자리 장수가 가골(갓골)을 지나다가 몸이 지쳐서 가골 동구 밖 돌장승이 서 있는 곳에서 짐을 내리고 그 돌장승(자연석 부처)에 기대어 잠깐 쉬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너의 덕으로 이슬을 덮어주어 따뜻하게 잘 잤다. 너는 이 길로 어디 어디로 가면 장사가 잘 되리라.”고 돌부처가 그에게 현몽하는 게 아닌가? 돛자리 장수는 잠에서 깨어나자 하도 이상하였지만 꿈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과연 장사가 잘 되어 돛자리도 단 시간에 팔리고 큰 돈도 벌게 되었다.

이 일을 돛자리 장수가 가는 곳 마다 자랑하며 돌장승이 복을 주더라고 널리 소문을 내니 밀양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고개 너머 밀양 가골마을에서 창녕 가골로 돌장승을 훔치러 가게 된다.

그때 이 마을 한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돌장승이 나타나 “밀양 가골 사람들이 나를 훔치려 하니 대비를 하여라”하였다. 이 일을 동민들에게 알려 밤낮으로 잘 지켰으나, 어느 날 밤사이에 밀양 사람들이 돌장승을 몰래 훔쳐 가다가 불과 몇 백 미터 못가서 놓고 쉬었는데 그만 돌장승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가져갈 수 없어 창녕 가골 사람들이 이를 지켜냈다고 한다.

그 후로 마을에서 가는 복을 붙들었다 하여 가골에 복(福)을 한자 더 붙이어 가복동(加福洞)이라 불렀으며, 동민들은 이 신이한 돌장승을 부처님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후 동민들이 수백년 당산나무(회화나무/성산면 상가복길70)에 정성을 다해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어느 날 제수를 장만하기 위하여 벼를 멍석에 말리는데 새가 와서 좃어 먹으면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자, 주변에서 부처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

또 언젠가 이 마을에 우연히 객지에서 놀러온 한 아주머니께 이웃사람이 이러한 전설을 이야기하였더니 함께 가서 보고 와서 날이 저물자 이곳에 묵게 되는데, 꿈에 “나는 제석 천왕(33천 하늘세계의 天主)인데 미륵이 되었으니 너는 나의 상자이니 나를 받들어라”고 하였다. 그 후 돌부처를 모시고 있으면 몸이 아프지 않고 이곳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면 몸이 아프기에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을 모시는 절집을 이 마을에 마련하여 지금까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 재계로 정성을 올리며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어 온지가 어느 듯 삼십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창녕의 발자취를 찾아서(창녕향교/2020)”에서 상세히 전하고 있다.

마을에서 지난 날 정월 보름에 제사를 올리다가,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에 제를 올리고, 복을 빌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 드리고 있다.

시와 한시 / 서예작품

할애비 천국	김우식	반야심경	신한순
팔순생조 유감	김호일	호학(好學)과 몸가짐	김동식
독 남명선생 신명사도 유감	김희덕	남이 장군 시	김영희
한강	문경주	수처 작주	하명술
넙치	신익교	황금백만불여일교자	이봉임
두메산골	신익교	동행	손명선
용선대(백경고래, 펭귄새)	신익교	이태백 시	성태기
월야등 화왕산	하재훈	무제	박병운
매화(梅花)	신한순	무제	김영수
푸른 소나무(靑松)	신한순	무제	사공순

할애비 천국

김우식

무당거미는
자기 엄마 살 값아 먹어면서
자라난다는데

원기도 할애비살
값아 먹어면서
말도하고 걷기도 했으면 좋겠어

할머니 하늘나라 갔고
원기도 뇌성마비 장애아로 있으니
할애비는 이 세상 살기 실거든

거미 새끼처럼 값아 먹어봐

우리 원기가
산토끼처럼 뛰놀고
할, 할아버지 소리치는 날

그날이, 할애비 천국이야

- 2021 국제 펜 100주년 기념 특집호 게재 시 -

팔순생조(八旬生朝) 유감(有感)

[팔순 생일을 맞아(음 5월 초3일)]

창녕향교 전교 양헌(養軒) 김호일

催我光陰 速似神 최 아 광 음 속 사 신	나를 재촉하는 세월이 빠르기가 귀신과 같아
當今傘壽 感尤新 당 금 산 수 감 우 신	이제 산수를 당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구나
那忘少節 窮春苦 나 망 소 절 궁 춘 고	어찌 소 시절 춘궁기의 쓴 맛을 잊으며
何負幼時 避亂辛 하 부 유 시 피 란 신	어찌 어릴적 피란의 쓰라림을 저버리랴
昔者七旬 高麗葬 석 자 칠 순 고 려 장	옛날에는 칠순에 고려장이라 하더니
現焉八十 運車身 현 언 팔 십 운 거 신	지금은 팔십에 차를 운전하는 몸이네
暫來復去 人生路 잠 래 복 거 인 생 로	잠시 왔다가 다시 가는 것이 인생길인데
餘日惟傾 德惠伸 여 일 유 경 덕 혜 신	남은 날 오직 덕과 은혜를 펴는데 마음을 기우리리라.

■註(주) : 傘壽(산수) => 팔순(八旬)으로 여든 살을 이룸

재물이 부자면 걱정이 한 짐이요, 마음이 부자면 행복이 한 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날도 남은 세월 얼마나 된다고 가슴 아파하며 살아요. 버리고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나누며 살다 감사다.

讀南冥先生神明舍圖有感

독 남 명 선생 신 명 사 도 유 감

大合面 辟山 金熙德

神圖奉讀道心眞	신명사도 봉독하니 도의심이 진실하고
敬義箴銘遺訓新	敬과 義의 箴과 銘은 유훈이 새로 워라
聖教英才忠養志	영재에게 성교하여 충의 뜻을 양성하고
賢傳子弟孝修身	자제에게 현전하니 효성으로 수신하네
斯文興起躬行樂	사문을 흥기하여 궁행이 안락하고
布德繁昌實踐仁	포덕이 번창하여 인의를 실천하네
救國宗師名將出	구국하는 높은 선생 명장들을 배출하여
當壬倭亂偉功伸	임진왜란 당할 때에 위대한공 펼치셨내

한 강

문경주

해와 달이 잠기는 걸어서 고작 25걸음
의혹들은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레퀴엠 한계를 지우는 복독을 바라봅니다

피고름 짜아 꽃잎 시체로 떠돌다
슬픔에 익사한 붓물처럼 떨어진 너
그저 당신의 가슴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독백의 대화, 한쪽 눈을 찡긋거리며
그리움 밀어내며 잊으라는데
기약 없는 이별 끝의 울부짖음 들립니다

한강에 잠긴 그날의 비밀 보여주려고
눈 감은 물고기는 의혹이 가리키는
벼랑 끝 한 줄기 빛 흔적을 비취 줍니다

*레퀴엠(진혼곡)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 음악

넙 치

신익교

톱날을 바짝 세운다
주낙을 만나고자
심해 화장대에 앉아
거울 앞에 이빨 닦고 먼지 털고
화장하니 못난이도 예쁜 모습
빛바랜 암초 밑 어슬렁 어슬렁
간만의 차이 밀려왔다 떠나갈 때
위에서 먹거리 ping ping 던져 준다.

봉돌이 아래로 내려가면
웬 공짜 떡인가
냘시 바늘의 유혹
얼른 삼키려다 사래 기침
물 위로 솟구쳐 갯바위 내려친다.

제풀에 토닥거리다 기절
높다란 큰 통에 둘러싸여
항상 위를 바라보며
할딱할딱 하겠지.

두메산골

신익교

학자들 모셔놓고
학문 강론 춘추(春秋)제사
서원(書院) 향교(嚮校)
인간 도리 깨운다
과거(科擧) 차
한양 천리 길
눈썹 뽑고 가더라.

스승은 먹을 갈아
한 획을 끄어라 하고
저 푸른 황금 바다
어서 오라 손짓하네
꿈들을
활짝 품어라.
두메산골 수산 단지.

용선대(백경고래, 펭귄새)

해송 신익교

앞 향로 거친 물결
밀려온 거친파도
험난한 이 뱃길에
백경 펭귄 동참하네
닷 내린
동방의 계곡
무궁화밭 꽃 피운다

두피바다 산사풍경
중생들 계도하니
연화좌대 앉은 부처
동쪽바다 가슴품고
똑똑똑
휘날린 죽비
기도광배 빛난다

月夜登火旺山

월야등화왕산



관암 하재훈

登高火旺月光多
등고화왕월광다

화왕산을 오르니 달빛이 뛰어나고

啼血鷺鳴愛戀歌
제혈로명애련가

백로울음이 피를 토하는 애연가네.

衢肆紅燈無語益
구사홍등무어익

길거리상점의 붉은 등은 말없이 더해가고

洛江白水不聲過
낙강백수불성과

낙동강 맑은 물은 소리 없이 지나가고

春陽花氣昌寧盡
춘양화기창녕진

봄의 꽃향기 창녕을 다하니

萬里草香天地和
만리초향천지화

만리 초향이 천지에 조화롭네.

夜景清宵詩軸寫
야경청소시축사

야경의 맑은 밤을 시축에 옮기니

何間杯裏沈金波
하간배리심금파

어느새 잔속에 달빛이 잠겼네.

辛丑 仲呂 冠岩 河在 焄 2021. 07. 02

신축 중려 관암 하재훈

매화(梅花)와 푸른 소나무(靑松)



梅花枝上春如海

매 화 지 상 춘 여 해

매화가지 위에 열린 봄이
바다와 같다!



靑松不老千年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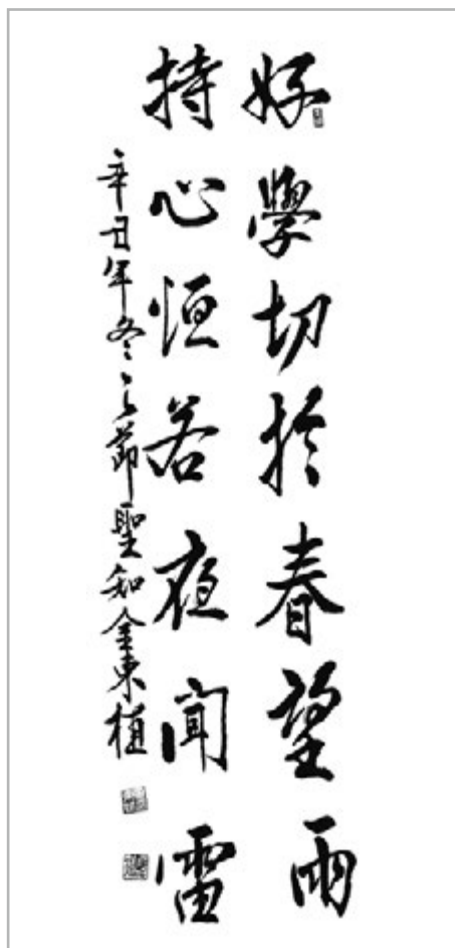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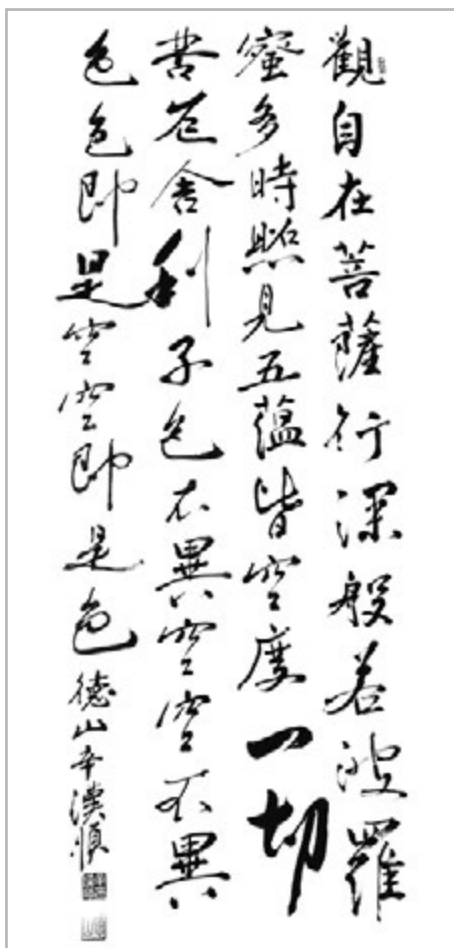
청 송 불 로 천 년 심

푸른 소나무가 늙지 않는 것이
천년된 우리 마음과 같다!

창녕문화원 서예반 德山 辛漢順 작

반야심경

호학(好學)과 몸가짐



관자재보살의 반야 바라밀다를
 행심할 때
 오온이 개공임을 조건하고
 일체의 고역을 도하도다.
 사리자여 색적시공에 다르지 않고
 공은 색에 다르지 않으니
 색은 즉시 공이요, 공은 즉시 색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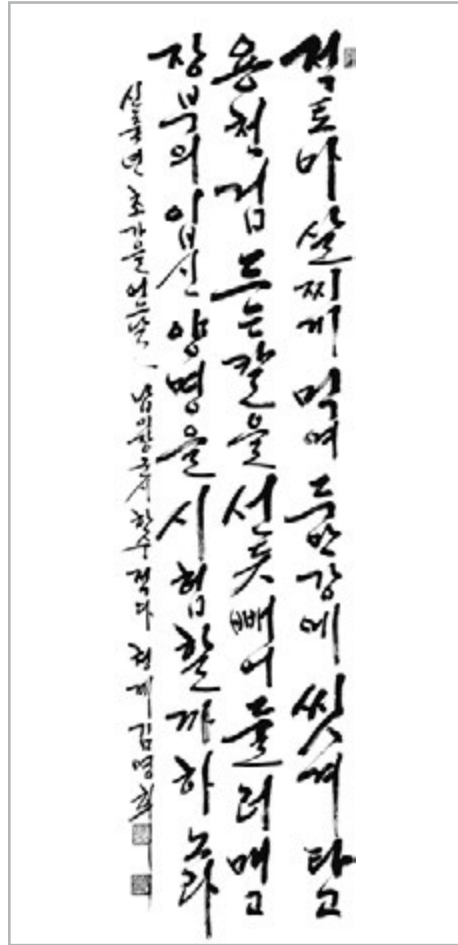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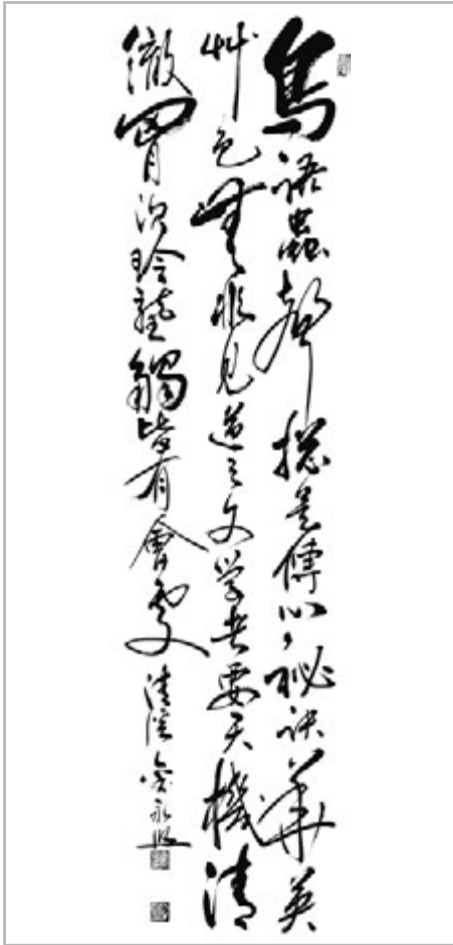
덕산 신한순 서

배우기 좋아하기를
 봄비 바라는 것 같이 간절히 하고
 몸가짐은 항상 밤에 우뢰 듣는 것
 같이하라.

성여 김동식 서

남이 장군 시(1)

남이 장군 시(2)



적토마 살찌게 먹여 두만강에 씻겨 타고
 용천검 드는 칼을 선뜻 빼어 둘러메고
 장부의 입신양명을 시험할까 하노라.

새의 지저귀거나 벌레소리는 모두 이심
 전심의 비결이요,
 아름다운 꽃이나 풀빛은 대도를 보여주
 는 문장이 아님이 없으니
 배우는 자가 천기를 맑게 하여 가슴속
 이 밝아진다면 사물에 부딪쳐서
 모두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청계 김영희 서

수처작주(隨處作主) 황금백만불여일교자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서있는 곳이 다 진리다.



황금 백만량이
자식 하나 가르침만
못 하다.

덕호 하명술 서

보라 이봉임 서

동행

이태백 시

동행^{동행}
 아득히 저미있음이야기도들여줄사^{동행}각이
 었다^{동행}가^{동행}평^{동행}부^{동행}의^{동행}되^{동행}고^{동행}만^{동행}나^{동행}의^{동행}생^{동행}기^{동행}를^{동행}예^{동행}동^{동행}행^{동행}하
 는^{동행}사^{동행}람^{동행}이^{동행}있^{동행}다^{동행}면^{동행}너^{동행}길^{동행}이^{동행}사^{동행}람^{동행}하^{동행}야^{동행}함^{동행}나^{동행}그^{동행}사^{동행}람^{동행}이^{동행}로^{동행}인
 하^{동행}며^{동행}모^{동행}들^{동행}도^{동행}되^{동행}어^{동행}일^{동행}로^{동행}행^{동행}부^{동행}할^{동행}수^{동행}이^{동행}있^{동행}음^{동행}나^{동행}그^{동행}만^{동행}
 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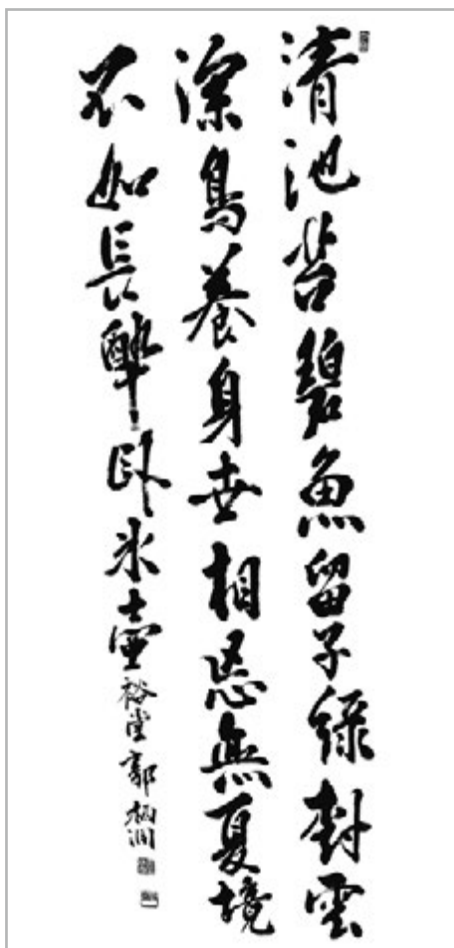
光天
 陰地
 者者
 百萬
 代之物
 之
 過逆
 客旅
 又慢成恭基

천지란 만물이 잠시 쉬었다 가는
 여관이요,
 광음이란 오랜시간
 지나가는 손님이라.

수암 손명선 서

우만 성태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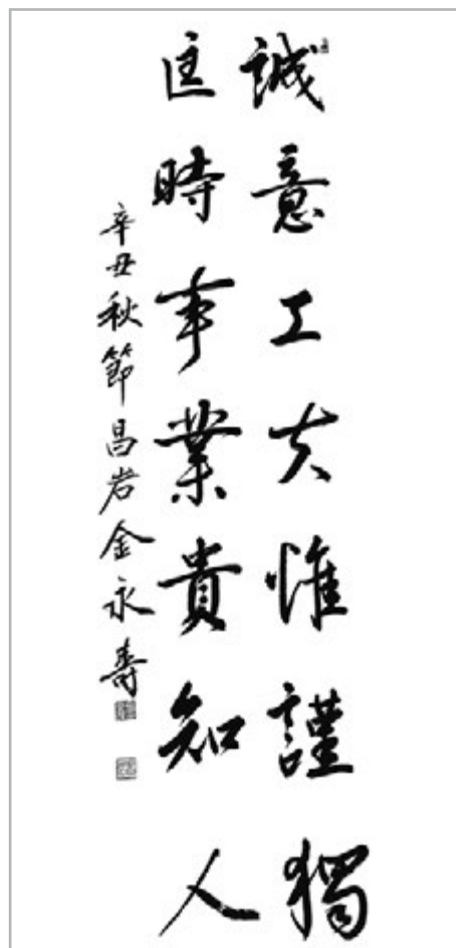
무제



맑은 못 푸른 이끼에 고기 새끼가 모여 있고
푸른 나무 구름 속에는 새가 새끼를 기른다.
몸과 세상이 서로 여름 없음을 잃어버릴건데
길게 취하여 빙호에 누운 것만 같이 못하다.

유당 광병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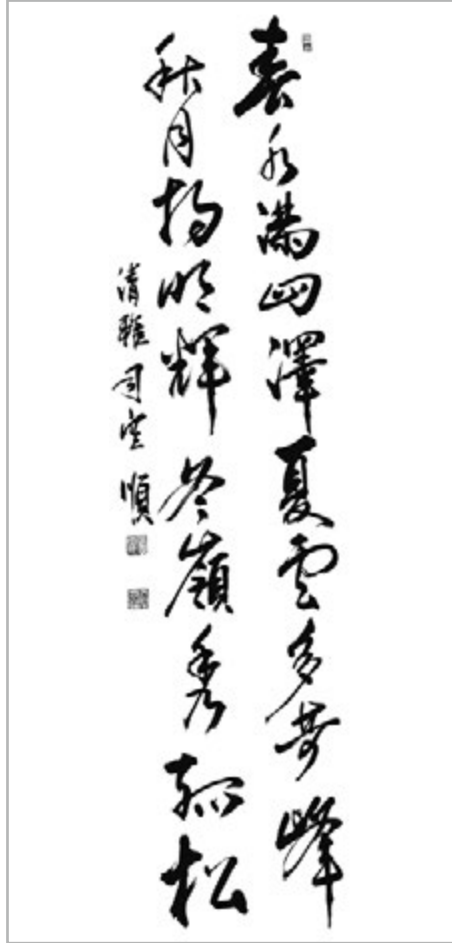
무제



뜻을 성실히 하는 공부는
혼자 있을 때 삼가고
시대를 바로 잡는 사업은
사람을 잘 아는데 있다.

창암 김영수 서

무제



춘수만사택 하운다기봉 추월 양명휘 동령수고동
봄물은 사방 연못에 가득하고 여름구름은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
가을 달은 밝게 빛을 날리고 겨울 산봉우리에는
외로운 소나무 아름답게 서있네.

청아 사공 순 서

역사문화 및 여행기

낙동강 물길 따라 창녕의 나무 탐방 보고서

김부열

세종대왕의 그늘

성두철

구례 화엄사와 운조루에 대한 단상

한삼윤

낙동강 물길 따라 창녕의 나무 탐방 보고서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부열

백두대간의 혈맥이 흐르는 강건한 낙동정맥(洛東正脈)의 지세와 낙동강 칠백리 중 가장 아름답다는 창녕을 휘감아 도는 활달한 유역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세 개의 ‘혈맥자르기’ 상처가 남아 있다. 먼저 1931년 남지철교를 건설하면서 용화산 구구봉의 기상이 낙동강으로 용트림하는 계내면 용혈자리를 잘라낸 것이며, 두 번째는 북두칠성의 형상으로 조성한 비화가야인들의 웅대한 혼이 담긴 장마 고인돌을 파괴한 것이며, 세 번째는 임진란때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 나선 의병과 홍의장군의 정신과 얼을 끊으려 망우정 혈맥자락을 자르고 파내어 수문을 만들 것이다. 이 만행은 겉으로는 일제강점기 근대화 추진의 명분으로 국도 5호선 개통과 지방도로 건설 및 홍수방지과 하천부지의 수리시설의 설치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일본을 향한 조선의 기상과 혈맥을 자르는 신들린 주술과 흉폭한 만행이었다.

용혈자리를 자르면서 피가 솟구쳤다는 이야기와 공사감독을 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유로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1931년 8월 4일, 나라 빼앗긴 수천명의 남지사람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결연히 일어나 남지철교 건설 자리를 옮겨 달라는 요청하였다. 또 1933년 3월 13일, 심지어 준공식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 마산에서 출발한 조선총독부 내무국장과 경남도지사가 탄 차량에 누군가 투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사실들은 열혈 저항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매개체가 있다. 그것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서 전설로 전해주는 나무와 바위 같은 자연유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창녕문화원의 기획과 요청으로 무더운 여름 낙동강 물길 따라 자란 나무들을 돌아보았다. 탐방의 목적은 예로부터 잘 가꾸어진 숲이나 노거수(老巨樹)를 찾아보고, 나무의 상태와 관련된 전설이나 옛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생태적 관찰은 어려워 나무의 유래와 외형적 환경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등 기록발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소중한 것임에도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것이라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이야기도 남겨야겠다는 의욕이 더 강해졌다. 탐방의 대상이 된 나무들은 창녕군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것을 중심으로 낙동강을 따라 길곡면, 도천면, 영산면, 남지읍을 돌면서 마을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이었다. 처음부터 내게 주어진 지역의 나무들은 낙동강이 흐르는 남부 지역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창녕군의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도 많지 않았고, 낙동강변의 마을은 상습 침수지역이라 짧게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조성되었거나 관리되어 온 나무와 숲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거수는 1) ‘large old tree’과 ‘champion tree’라고 부르는 경우 ‘수령이 많고 큰 나무’로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지는 않을 때와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수목 별로 가장 용적이 큰 나무’를 지칭할 때 쓴다. 2) ‘ancient tree’, ‘heritage tree’, ‘legacy tree’, ‘monumental tree’, ‘veteran tree’ 등의 개념은 모두 ‘크기, 수령, 모양, 색채, 희귀성, 아름다움, 문화적 상징성 면에서 주목받는 나무’를 말한다. 3) 황폐해진 지역의 식생과 생물 서식지를 복구하고, 넓은 경관에서 생물이 이동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생태계 파편화를 막는다. 특히 노거수에 발생하는 공

동(空洞)은 조류, 포유류의 서식처 기능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한다. 4)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미기후(微氣候)를 형성하며, 열매, 잎사귀, 꽃가루 등의 먹이 자원을 동물에게 제공하는 등 생태계 안정화 기능을 한다. 5) 인간과 신성한 영역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노거수의 거대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일부 노거수에는 과거의 문화적 흔적이 남아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된다.

이번 기획의 모델이 된 고성문화원에서 출판한 『나무가 들려주는 고성 이야기』 속에 나무들과 비교를 해보면 남지읍, 영산면, 도천면, 길곡면의 나무들은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역사적인 기록과는 다른 측면이 많다. 그러나 임진란과 6.25 한국전쟁 등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과 문호개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민초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술술 오솔길 걸어 나와 ‘과거를 찾은 시간여행’으로 무더위를 잊는 밤이 되었다. 탐방 보고서에 올린 30군데 나무는 크게 네 가지로 유형으로 나누어 『창녕문화』를 통해 간략히 소개를 하겠다. 1) 임진란과 6.25 한국전쟁 등을 국난 극복을 함께한 나무들 2) 근대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와 치열한 민족운동을 지켜본 나무들 3) 낙동강의 범람과 침수에 따라 마을과 동고동락한 나무들 4) 마을사람들의 열과 정신 그리고 애환이 깃든 나무들이다. 이번 탐방에서 찾아본 나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노거수로 마을사람들의 경외로운 존재이거나 애환을 나눈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 노거수(老巨樹)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은행나무와 같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오래된 미래’를 알려주는 마을의 역사와 상징이었다.

임진란과 6.25 한국전쟁 등을 국난극복을 함께한 6나무들

● 도천면 망우정(후에 여현정) 팽나무



홍의장군의 추상같은 기상을 닮은 듯 낙동강을 조망하면서 불시에 쳐들어오는 왜군을 공격할 자세이다. 임금의 부름과 벼슬자리를 주어도 초연했던 망우당의 풍모와 기개에 어울리지 않은 창암 강사(江舍)에서 청풍명월 거문고 타며 신선처럼 산 현인을 닮아 오늘도 학 날개 펼치듯 자유롭게 뻗어 낙동강을 지킬듯하다. 국난극복의 상징이며 진주대첩과 화왕산 전투를 함께한 의병들이 합강정에서 반구정을 거쳐 망우정에 이르는 『용화산하동범록』을 남긴 의병들의 충의 현장이다.

● 영산면 연지못 수양벚나무



항미정의 풍경과 사월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벚꽃의 아름다움보다 칠월의 푸른 물빛이 더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때 의병활동을 하다 일본으로 끌려가 망향의 슬픔 속에서 이겨낸 인간승리의 신화가 담긴 비석을 연못가에서 지켜보기 때문이다. 영산사람 일양재 이진영(一陽齋 李眞榮)과 매계 이전직(梅溪 李全直) 부자의 도덕적 가르침이 에도시대 일본의 자녀교육지침이 되었다는 현창비를 읽어주는 듯 머리 숙인 수양벚나무 가지는 조용히 흔들린다.

● 남지읍 용산리 창나루 개비리 소나무

400년전 왜군의 침략에 맞서 나라와 가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 어선 의병과 홍의장군의 용병술로 승리한 기음강 전투와 70년전 한국 전쟁의 최후 보루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을 격퇴하여 인천상륙작 전의 교두보가 되게 한 무명용사들의 혼이 잠들어 있는 개비리 초입에 철갑을 두른 듯 위엄차게 서 있는 소나무는 오늘도 국난극복의 숨결이 흐르는 칠백리 낙동강을 지키고 있다.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와 화왕지맥의 정기 도초산 마분산 은 낙동강의 부활을 꿈꾼다.

● 남지읍 월상 박진전쟁기념관 앞 팽나무

1950년 한국전쟁 8월의 대공세를 물리친 전투를 기억하는 나무답지 않게 좌우 사방의 균형이 아름답다. 밤낮없이 낙동강을 도하하기 위 해 양민들은 동원하던 붉은 무리들의 총탄과 포탄 속에서 훼손이 되 었겠지만, 몸을 피한 유엔군과 피난민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었을 나무 다. 붉은 피 흐르던 강물은 맑아졌지만 넓은 들판에 선 팽나무는 그날 의 함성과 비명 그리고 폭발음을 기억하며 서 있다. 팔구나무로 부르 는 이유가 팔월, 구월에 치열했던 싸운 전투였음을 말하는 때문일까?

● 장마면 대봉전투와 미군 살린 느티나무

6.25전쟁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오른팔을 찾아 30년 지난해 방문 이 후 해마다 자신이 겪은 끔찍한 전투지를 찾은 미해병대 소속의 허버트 러스터의 인간승리는 사람들을 울리고 있다. 러스터를 살린 느티나무 도 한쪽 가지가 잘려 마을의 당산목으로 지키고 서 있는 운명이 되었 다. 산자의 외침보다 잔잔히 감동을 주는 박진전쟁기념관 한 곳에 자 리한 러스터의 기록이 남아 있다. 북한군 탱크와 맞붙어 일격으로 승 리한 유엔군 전차의 무용담이 전설과 한편의 영화로 남을 역사다.

● 6.25전쟁 실화를 들려준 남지읍 대곡마을 느티나무

2018년 6월에 창녕문화원에서 기획한 『창녕이 겪은 6.25전쟁 수기』를 수집하고자 박진전투의 중심이었던 월상마을부터 시작하여 대곡마을을 거쳐 전투가 치열했던 대봉마을 등지를 돌았다. 그때 6.25전쟁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70년전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얘기해주신 정기진(1929년생) 어르신과 만남의 장소이다. 피난에서 돌아와 보니 박진전 적비가 서 있는 산봉우리에 미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더라는 증언과 일진일퇴의 철원 삼각지대에서 전투이야기 기억되는 소중한 곳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와 치열한 민족운동을 지켜본 6나무들

● 남지읍 상대포 영남수리조합 느티나무



1925년 인가된 영남수리조합 300만평 중 천기농장(川崎農場)과 일본인이 280만평을 차지하고, 조선인 1명이 20만평 소유하였다. 일본인들이 대농장에서 수확한 쌀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국도 5호선 건설과 남지철교의 가설로 인해 마산항은 엄청난 산업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1927년 12월 7일 남지에서 300여명의 소작인들 ‘불납동맹(不納同盟)’과 1935년 2월 27일 공사장에서 차별대우하는 공사감독 일본인을 부삽으로 난타한 사건을 두 나무는 기억하고 있다.

● 남지읍 동포동 적산가옥과 즐가시나무

일제강점기 남지에는 일본에서 식민지에서 미지의 개척을 통하여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한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이 많았다. 앞선 근

대화를 경험하고 현해탄을 건너와 정착하여 남지는 근대적 도시계획과 수리시설로 낙동강 하천유역을 개발하여 대농장과 신도시로 개척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적산가옥과 정원수들이 잔존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집성촌을 형성한 동포동에는 가시울타리 등 일본식 가옥구조가 일제강점기의 치욕적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 도천면 우강 도천수문과 팽나무

1920년 6월 도천수리조합 인가에 따라 수리시설의 수문을 만들기 위하여 산을 절개하는 공사를 했다. 망우정과 연결된 열왕지맥의 혈맥 자리 근처 요광원(要光院)이 있었던 곳을 굳이 절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혈맥자르기’의 침략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망우정을 지키고 선 팽나무와 같은 수종으로 도천수문을 내려 보고 있다. 일제의 무자비한 조선점령과 만행을 보여 주는 절개현장에 동원되었던 조선인의 피와 땀이 흐르는 물결은 잔잔하다.

● 영산면 월영마을 옛 신사터, 느티나무

일제강점기 1936년 11월 3일, 월영마을에 가운데 높은 자리에 신사(神祠)를 만들었다. 영남수리와 일본들의 지도로 부농이 되었음을 찬송하며, 중일전쟁이후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하면서 지원병제도의 변성을 기원하였다. 해방이 되고 지금은 신사의 흔적이 아니라 당산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마을사람들은 거리를 둔 모습이다. 세심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아는 듯하다. 당시 신격화되고 일제 찬양하던 당산나무와는 달리 썰렁하다. 역사는 엄정하다.

● 장마 고인돌을 지키는 소나무

창녕 고인돌은 놀랍다. 크기로도 엄청난 돌을 복두칠성처럼 7개의 고인돌을 높은 구릉에 어떻게 옮겼을까? 그만큼 큰 돌을 볼 수 없는 동네다. 비화가야인의 지혜로 만들어진 지석묘 주변에 선 소나무들은 기억할까? 물을 던진다. 또 1925년 12월 5일, 지석묘가 있는 장마면 유리 고암(羔岩)에서 소작인 200명이 모여 ‘불납동맹’을 결의한 항일운동 진원지가 아닐까? 비화가야인들의 신령스런 공간이며 정신적 근원이었던 고인돌 앞에서 피의 동맹을 한 사람들을 추념한다.

● 500년 된 은행나무와 남지철교



남지사람들에게 상징적인 나무와 다리가 있다.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간송당 조임도 선생은 함안과 창녕을 대표하는 거유로 역할을 하였다. 그 표식으로 합강정, 반구정, 봉황정, 도천향현사와 도동서원으로 연결되는 은행나무 벨트다. 남지철교는 옛 도흥나루처럼 대구와 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의 동맥을 이어주었다.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에 이용되었고 일제의 잔재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지만,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 6.25 동족상잔의 아픔과 애환이 깃든 근대문화유산이다.

낙동강의 범람과 침수에 따라 마을과 동고동락한 나무들

● 대봉늪과 왕버들

우포늪보다 더 보석이라는 대봉늪이 있다. 환경과 ‘유리정원’의 촬영지로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진 습지다. 대야마을에

들어서면 초입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두 그루 나무가 있다. 한 그루는 수세가 마치 한 마리 공작새가 꼬리를 부채살 펼치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와 대봉늪의 기원을 말해주는 듯 공룡 장판지처럼 굵은 왕버들이 마을을 향해 누워있다. 맹그로브 숲처럼 손대지 않아 강인하게 생존한 대봉늪에 새 소리 숲속을 고요하게 울린다.

● 송진 쇠나루 느티나무

쇠나리는 창녕군(옛 영산현) 도천면 송진리와 함안군(옛 칠원현) 칠서면 이룡리를 이어주는 나무였다. 쇠나리는 솔나리 또는 송진(松津)나루로도 불렸다. 조창(漕倉)의 흔적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으나, 낙동강연안개발사업으로 모두 철거 이주하였다. 지리적으로 남지와 도천의 중간지대며 2012년 꿈꿔온 ‘낙동강위트플렉스’라는 용트림을 기대하며 큰 느티나무와 작은 느티나무 몇 그루를 찾는 사람들에게 쉼과 여유를 안겨주는 사랑받는 나무가 되고 있다.



● 길곡면 창녕보 소나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2008년을 전후로 10년 넘게 싸워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창녕사람도 길곡사람도 아닌 낯선 이방인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었다. 환경보호를 내세우지만 지역민들과는 다른 방향이다. 마치 예부터 곧게 잘 자란 나무는 재목으로 팔려 가고 굵은 나무는 고향을 지키듯 창녕보를 지켜보고 있다. 어리석은 싸움은 헛된 것이라 알고 있다. 여과수개발 반대하는 낙동강 강변사람들의 처절한 생존투쟁을 제대로 아는 정부를 만나야 하리라. 외로운 싸움만은 아니다.

● 국도5호선이 보이는 낙동강 벼들숲

1977년 12월에 준공된 ‘구마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무렵 무성하게 자란 갯벼들 숲이 고속도로 V자대교(교체됨)가 만들어지고 남송교를 지나 송진 망우정까지 이어져 있었다. 1933년 남지철교 개통된 이후 국도5호선이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와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를 연결하는 낙동대교가 건설되면서 남지읍을 거치지 않게 되었다. 1996년 60년만에 바뀐 국도5호선 변경으로 남지사람들의 반대운동이 있었다. 낙동강 벼들숲은 창녕보를 보완하는 새로운 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 남지읍 피수대와 남포동 느티나무

유사 이래 수없는 홍수와 범람으로 남지는 황폐화 되었다. 100년전 피수대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1934년 방수제 건립 진정에 따라 1940년에 완공한 피수대와 1964년 6월 1일 하천부지 고시와 1985년 2월 1일 도시계획선이 조정되었다. 2000년 9월 18일,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 10월 10일 수해복구비 3백억원이 지원되고 2005년 마무리되었다. 그 변천과정에서 살아남은 느티나무는 제방 위에서 도로로 옮겨졌다. 피수대의 역사는 남지 도시발전의 역사다.

● 남지읍 신남동 느티나무

1965년 7월 23일, 큰 홍수가 있었다. 당시 수해피해지 찾은 박정희 대통령의 복구지원에 따라 1965년 9월 20일에 착공하여 12월 23일 시멘트 블록 가옥 67동이 준공하였다. [사랑의 마을]의 기념비 제막과 새로운 동네로 ‘신남동’ 이라 명명했다. 또 새로운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등 남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새 출발을 기념하며 심은 느티나무가 50년이 지난 오늘에 짧은 역사라도 제대로 정리하여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신남동은 특별하다.

● 남지읍 구) 반포초등학교 플라타너스 나무

1008번 지방도로는 해방이후 50년 동안 포장되지 않았다. 오랜 홍수와 침수로 낙동강연안개발사업이 추진되고 1994년 6월부터 박진교가 착공되고 6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0년 9월 5일, 준공식을 가졌다. 낙동강과 개비리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언택트 시대를 초월하는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체험학습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점이다. 플라타너스의 추억도 살리고 미래 주역의 청소년들과 어우러지는 생태체험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 남지읍 반포마을 느티나무 세 그루

1925년 을축년 대홍수와 1936년 경자년의 기록적 폭우 이후 근본적인 해법이 없었다. 1965년에는 반포마을을 할 켜 수마를 취재한 보도가 있다. 그 후 1987년 홍수 이후 2000년 반포제방이 건립될 때까지 힘들었다. 반포마을 느티나무는 1970년대 농촌에서 부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홀치기’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조용한 농촌에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정자나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껴진다. 이촌향도와 고령화 시대를 거치면서 귀농구도의 새로운 화두가 필요한 시대다.

마을사람들의 열과 정신 그리고 애환이 깃든 10나무들

● 영산면 성내리 600년 팽나무와 만년교 수양벚꽃

연맹체제의 가야왕국이 창녕과 영산은 독립적으로 각각 발전하였다. 창녕군으로 병합된 후에 영산사람들의 열과 정신을 지키려는 자존심이 더 강해졌다. 창녕과는 차원이 다른 민속놀이를 통하여 창녕 전체를 융합시키는 힘을



과시하는 ‘영산 줄다리기’와 ‘영산 쇠머리대기’는 역경을 이겨내는 영산사람들의 인내와 오래된 저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성내리 600년 팽나무는 영산의 상징이며, 옛 성터와 고을의 면모를 보여주는 흔적과 석빙고, 만년교 수양벚꽃 풍경은 예사롭지 않다.

● 길곡면 외재선생 경덕서당 배롱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선생의 학덕처럼 은은하게 빛난다. 1607년(선조 40) 초봄 한강(寒岡)정구(鄭逵)와 여헌(旅軒) 장현광, 망우(忘憂) 곽재우(郭再祐), 외재(畏齋) 이후경(李厚慶) 등이 용화산 아래에서 풍류를 즐기고 기록한 것이 『용화산하동범록(龍華山下同泛錄)』이다. 임진왜란 끝나고 8년 2개월 지난 선유와 동범의 자리에서 유쾌한 담소를 기록한 조임도의 기록에서 스승에 대한 각별한 존경과 예의를 지키는 외재선생의 빛나는 명징처럼 경덕서당의 여재헌(如在軒) 배롱나무 꽃은 붉다.

● 도천면 옛 향현사 은행나무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 흐르는 용화산 구구봉 아래 합강정(合江亭)과 청송사(靑松寺), 반구정(伴鳩亭) 그리고 남지철교 아래 은행나무는 수령이 400년 넘는다. 함안과 창녕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간송당 조임도 선생께서 심으셨다는 도천면 앞 은행나무는 기원이 분분했다. 그러나 영조(英祖 1725-1776)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영남지도(嶺南地圖)』에 도천향현사(道泉鄉賢祠)가 보임에 따라 지역의 전설이 기록으로 남은 결정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 성사고개 아지마을 느티나무

700여년 전에는 마을 앞의 늪을 용이 등천하였다 하여 용강이라 불

리고, 풍수적으로 아지리 뒷산은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길지라 한다. 성사고개에서 천천히 내려오면 길 오른쪽에는 큰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깊은 골짜기가 있고 아랫마을 사람들 농사를 도와줄 수원지가 있고 다랭이 계단식 논처럼 층층이 내려간다. 먼 길을 걸어온 길손들이 몸을 다스릴만한 그늘과 사람들을 품어 살릴 기품이 넓은 나무다. 작은 동리지만 나무의 품을 닮았는지 마을사람들의 도의가 높다.

● 길곡면 오호리 느티나무와 덧나무

오호리를 지나다 우연히 발견한 큰 나무를 보고 찾았더니, 수령 200년의 느티나무를 만날 수 있다. 창녕군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는 봄비를 맞아 푸른 잎을 활짝 펼치면서 외지에서 비를 맞고 찾아온 손님에게 쉼터를 제공했다. 느티나무 앞에는 딱총나무로 알려진 덧나무가 위세를 뽐내고 있다. 수형은 작지만 덧나무의 골격은 느티나무보다 더 만고풍상(萬古風霜)을 겪은 듯하다. 보면 볼수록 탐나는 나무의 형상은 마치 용이 꿈틀꿈틀 하늘을 오를 듯한 기상이다.

● 교육공동체가 살린 남지초등학교 플라타너스 나무

1925년 을축년 수해 이후 해마다 수화를 입는 학교를 안전한 지역에 부지 7천평을 확보와 2미터 성토계획으로 남지리와 마산리 중간지역에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부지와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지지부진했다. 그때, 기성회의 부회장직을 맡아 활동하던 김정호씨가 3,500평의 땅을 기부하여 완공하였다. 그 후 심었던 플라타너스 나무가 자라 학교의 상징목이 되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별목을 추진하던 주장에 맞서 나무를 지킨 교육공동체의 아름다운 나무는 터줏대감처럼 푸르다.

● 남지읍 동포초등학교 호랑가시나무

1989년 소년한국일보 주최 제1회 [전국 아름다운 학교 뽑기 대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학교상]을 수상하였다. 선생님만큼 큰 존재로 기억

되는 '윤씨 아저씨'의 손길 속에 학교환경이 잘 가꾸어져 왔다. 세월의 부침에 따라 학교의 상징이었던 두 그루 느티나무 형제와 가시나무 울타리는 사라졌지만, 졸업앨범에 배경이 된 교무실 입구에 자리한 커다란 호랑가시나무는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학교를 지키고 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두었으면 간절함이 더한다.

● 남지읍 남포동 남지경로당 느티나무

오래된 노거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 속에 동네의 당산목처럼 우뚝 자리해 정신적 지주가 되었지만, 민원에 따라 이발(?)을 하셔서 너무 단출하고 품위 없어 보여 안타깝다. 남지경로당 느티나무는 예부터 이어져 온 향약의 정신으로 마을의 풍속을 세우고 교화를 담당하던 어르신들의 마른기침 소리가 더 울림 깊은 시대에 큰 나무였다. 온 정성으로 마련한 경로잔치가 열리는 날, 효자상과 효부상을 전달하며 백발 수염 날리시던 그분들이 떠오르는 오늘이다.

● 남지읍 부자동네 명지 느티나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호황으로 마산이 전국 7대 도시로 도약하면서 남지에도 구마고속도로, V자대교가 개통되었다. 일찍부터 진주와 밀양에 이어 기름종이와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을 통해 사계절 오이와 고추를 재배해 부자동네로 유명해졌다. 또 남지나루터 횃집사람들이 마산 합성동과 역전에 민물횃집을 내면서 북적거리며 초고추장으로 점령하였다. 1980년대 산업화의 여파로 농공단지로 변화를 추진했지만, 農者之天下大本의 根本이 무너졌는지 성장동력을 잃고 휘청인다.

● 도천면 호국충정의 무궁화도로

창녕의 호국정신을 보여주는 무궁화길은 영산호국공원에서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혼을 모신 창녕읍 퇴천리 충혼탑까지 40km(100리) 길에 무궁화 1만여본을 심어 2004년에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2014년에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제1회 명품 무궁화 가로수길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시상금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한다. 이렇게 훌륭한 뜻이 담긴 무궁화길은 어떻게 보전하고 창녕명품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위와 같이 간략히 소개한 30군데의 나무들은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엄청나다. 나무 한그루 한그루마다 다른 역사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자료화 및 아카이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전하고 있는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계속 이어질 '살아있는 화석' 이기에 더욱 소중하다. 흔히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역사는 소수의 지배자가 독점 하던 시대는 사라지고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 소통하고 누리는 다수의 사용자 시대로 바뀌었다. 마치 조선시대 임금으로부터 벼슬 받은 정일품 소나무보다 언택트시대 삼천리 금수강산에 수많은 노거수와 자연의 숲들이 새로운 희망자원으로 관심을 받듯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다.

유네스코는 1972년 총회에서 역사성, 민속성, 진귀성 및 희귀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서 '세계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여 세계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자연유산을 자연적·인위적 파괴와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문화재청, 2002).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1972년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을 말한다. 이에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을 간직한 노거수목들은 그 역사성과 함께 문화적 유산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와 생물종의 보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조경수목 이상의 가치인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이 국토의 2/3을 차지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산림 60%가 황폐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 산림청 발족과 지리산을 국립공원 1호 선정을 시작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하며, 새마을운동과 기적을 일구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숲과 노거수에 대한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하게 되면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숲과 나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0년대 지구촌 시대 정보통신의 발전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고,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숲과 나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농업과 경관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로 집중되었던 삶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농촌이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산물의 생산지로써의 의미뿐만 아니라 농촌문화, 생태환경을 만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즉, 이촌향도(離村向都) 일색의 산업화와 수입농산물 개방화의 거센 바람에 밀려났던 농촌이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몸엔 우리 먹거리’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와 귀농구도((歸農救道)의 4차 산업혁명이 융복합된 미래농업으로 도전해볼 만한 블루오션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지역 활성화와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농업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로 무너진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금, 숲과 나무와 공존하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마을의 숲과 나무에 대한 관리와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세종대왕의 그늘(裏面)



牛堂 성두철
향토사 연구위원

2020년 10월 문화원이사 및 감사, 향토사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등이 우리 문화재를 찾아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능인 영릉과 신릉사를 찾았다.

영릉을 둘러보면서 ‘성군 세종이 잘못된 정책은 하나도 없을까? 왕의 가정사는 어떠했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 봤다. 잘못된 일도 분명히 있을 것 이고, 언뜻 보기에라도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영릉은 조선 제4대 임금 세종과 소현왕후의 합장릉이다. 조선왕릉 최초로 하나의 봉분 아래에 석실 두 개를 붙여 왕과 왕비를 함께 안치했다.

당초 이 능은 당시 광주(廣州 : 지금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버지 태종의 능인 헌릉 서쪽에 있었다. 소현왕후 심씨가 먼저 승하하여 쌍실의 능을 조성하면서 오른쪽 석실은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세종이 승하하자 합장하였다. 세조 때에 영릉의 자리가 워낙 물이 많이 고인 흉지 인지라 불길하다는 이유로 능을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469년(예종 1년)에 이 곳에 있던 광주 이씨 산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능을 천장(遷葬) 하였다. 이장(移葬)한 능지가 풍수적으로 명당이어서 조선의 국운이 백년이나 더 이어졌다고 하여 ‘영릉가백년(英陵加百年)’이란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10세에 책봉된 장남 양녕대군이였다. 품위를 손상하는 일련의 행동과 사건들로 인해 14년간 유지하던 세자를 폐위하고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도 잘 할 것 같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1418년 6월에 세자로 삼았다. 그 해 8월 10일 태종의 선위로 보위를 물려받았다.

세종은 사가(史家)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성군이다. 600여년 뒤 IT 시대를 예측하고 만든 것 같은 과학적인 문자 한글창제, 측우기·자격루·양부일구·혼천의 등 과학 기술의 발달 장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으로 4군 6진을 개척하여 국경을 넓히고 그곳에 백성을 옮겨 국토균형 발전을 꾀한 사민(徙民)정책,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 정벌, 뛰어난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집현전 설치, 학사들 가운데 재행(才行)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독서 및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휴가를 주고 그 경비 일체는 나라에서 부담하는 사가독서제, 그 밖에 문화·예술 등 많은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의 치적은 차고 넘친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다. 어느 문헌을 보아도 세종이 잘못된 내용은 찾기가 어렵다.

힘들게 자료를 찾아보니 세종의 잘못된 정책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 번째는 부민고소금지법(府民告訴禁止法)이다. 조선 건국 후 왕들

의 고민은 지방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집중적인 권력 체제를 갖추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임명한 지방 수령의 권한을 확립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 백성들이 관리들을 고소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부민고소금지법이다. 유교 사상에 ‘군사부일체’라는 것이 있다. 지방 수령 역시 백성들에게는 군, 즉 임금을 대신하는 사람이므로 아버지와 같다. 따라서 고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기반이 되었다. 1420년(세종 2년) 9월에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경국대전 형전(刑典) 소원조(訴冤條)에 있다. 이 법으로 인해 백성들은 수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고소할 수가 없었다. 예외는 모반대역죄나 불법살인죄 뿐이었다. 고소자에 대한 벌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수령을 고소한 이는 장(杖) 100에 도(徒) 3년의 벌을 받았다. 또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을 경우에도 같았다. 한편 왕조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지방수령들의 과도한 권력 행사, 치부, 불법행위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법을 고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법은 그대로 두는 대신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어 보완했다. 문제가 있는 지역에 몰래 어사를 보내서 그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처벌했다. 그리하여 왕의 통제력이 회복되고 신권(臣權)은 약화되기를 바랐다. 애초에 왕권 강화를 위해 법을 제정했지만 목적과 달리 수령의 권력 남용이 심화되어 조선후기 백성의 삶이 피폐해졌다. 이 법이 민란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악법이었다.

두 번째는 태종이 시행한 노비종부법(從父法)을 종모법(從母法)으로 바꾼 것이다. 원래 고려에서는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자연히 그 자녀도 노비신분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천교혼(良賤交婚)이 생겨났고,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 자녀도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도록 하여 양인의 증가를 억제시켰다. 이를 고려에서는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이라 하였다.

이 법 시행으로 노비가 증가하는 반면 양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조선 초에 균역 부담자의 감소라는 문제가 생겼다. 당시에 아내가 양인인 경우보다 남편이 양인인 경우가 많았다. 1414년(태종 14년) 양인을 증가 시킬 목적으로 남편이 양인인 경우 아내가 노비라도 자녀가 양인이 되는 종부법(從父法)으로 바꾸었다. 그러자 노비 소생이 양인이 되어 양인의 수가 늘었다.

양반들은 노비를 생구(生口)라 부르며 가축과 같이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다. 종부법 시행으로 재산이 감소하게 된 집권세력이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조정에서도 존폐에 대한 찬반 논의가 거듭되었다. 부왕이 만든 법을 고치지 않으려는 세종을 설득하여 1432년(세종 14년)에 마침내 종부법을 폐지하고 아내가 노비이면 자녀가 노비가 되는 종모법으로 다시 환원하였다. 세조 때에는 몇 가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는 무조건 노비가 되도록 하는 더욱 강화된 노비법을 경국대전에 법제화 시켰다.

이 제도를 시행하자 조선 후기에 양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세금 징수, 균역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 태종의 종부법을 그대로 시행 했더라면 양인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나라살림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균역을 부담하는 군인의 충원도 순조로워서 국방도 튼튼해진다. 양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소수의 양반과 노비, 대부분이 양민인 향아리형 인구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전제 왕권 시대를 빨리 종식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화된 사회가 서양보다 먼저 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도 이러한 과(過)가 있다. 우리나라 역

대 대통령을 보면 과(過)도 있지만 뚜렷한 공(功)이 있다. 최근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의 공적을 한가지씩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승만의 건국대통령 등, 박정희의 경제개발 등, 전두환의 경제 재도약 등, 노태우의 북방정책 등,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등, 김대중의 외환위기 극복 등, 노무현의 한미 FTA 체결 등이 있다. 후세 사가(史家)들이 평가해도 후한 점수를 줄 것 같다. 우리나라는 독재와 민주, 보수와 진보, 폭군과 성군 등 이분법적으로 역대 통치자들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 모택동 사망 후 등소평이 공은 7, 과는 3으로 정리하여 논란을 잠재운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우리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서 공은 계승하고 과는 고치면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하루속히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세종의 가정사는 아버지 태종에 의해 피로 얼룩졌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피의 역사를 보면, 1차 왕자의 난 때 아버지의 이복(異腹) 동생인 방번과 방석(세자)이 살해 되었고, 2차 왕자의 난에 아버지의 동복(同腹) 형인 방간을 죽였다. 또, 외척의 발호를 방지하고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왕의 외삼촌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희를 귀양 보내서 자진하게 하고, 왕의 장인인 심온을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약을 내렸다.

피의 역사는 세종 사후에도 이어졌다. 아들 수양대군에 의해 손자 단종이 왕위를 찬탈 당하고 시해 되었으며, 또 다른 아들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역모로 몰아 살해했다. 혜빈양씨 소생인 영풍군도 금성대군의 단종복위 운동에 가담 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형됐다. 손녀 경혜공주(단종 누나)는 세조에 의해 관비가 되었다.

아버지 태종과 아들 세조에 의해 세종의 3촌 이내에 무려 7명이 죽고

외삼촌 장인 등 친척 5명이 희생됐다.

세종은 여섯 여자의 몸애 아들 18명과 딸 4명을 두었는데 자녀들의 혼인관계는 어떠했을까? 지면관계로 큰아들 세자의 빈(嬪)에 대하여만 알아본다.(參考；養軒散稿) 문종은 세자일 때 세 번째 빈에게서 딸 경혜 공주와 아들 단종을 얻었다. 두 번째 빈은 하음(河陰) 봉(奉)씨 창녕 현감 려(礪)의 딸이다.

첫 번째 빈은 상호군 안동김씨 오문의 딸이며, 18세 때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휘빈이라 하였다. 이때 문종은 14살 이었다. 휘빈은 사랑을 얻고자 어린 저하를 치마폭에 휘감아 헤어날 수 없도록 했다. 세자는 보위를 이어가야 할 사람이다. 학문을 열심히 닦아야 한다. 그런데 휘빈으로 인해 공부에 관심이 멀어지는 낌새가 있었다. 최만리 등이 이런 사실을 부왕(父王)에게 고(告)하기도 하였다. 이성에 눈을 뜨게 된 세자가 다른 궁녀에게 관심을 갖자 같은 여자로서 휘빈은 질투심이 생겼다. “좋아하는 여인의 신발을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사랑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궁녀의 신발 굽을 잘라 불태우고 그 재를 술에 타 세자에게 먹였다. 휘빈 김씨의 이런 소행이 세종과 소현왕후의 귀에 들어갔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세자가 학문을 멀리하는 원인이 투기를 하는 휘빈에 있다고 보고 빈을 폐하여 사가로 돌려보냈다. 쫓겨난 휘빈이 친정에 돌아가니 아버지 김오문이 비상을 준비하여 딸과 아내에게 주어 자결케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번째 빈은 창녕 현감을 지낸 봉려의 딸이다. 절세미인이며 세자와 동갑이라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미모가 출중하여 처음에는 그녀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세자의 몸이 허약해서 잠자리 능력이 시원찮았다.

봉빈은 노골적으로 이를 내색했다. 부담을 느낀 세자는 점점 더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어 봉빈과는 멀어졌다. 보위를 이어갈 세자로서 학문에 몰두하여 지식과 인성을 키워 나가는데 전념 하느라 공부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 세자와 봉빈의 사이는 별거하는 것처럼 되었다. 봉빈이 독수공방 외로운 밤을 공공연히 하소연하는 것을 세종이 알고 세자의 집무실을 침실과 가까운 창덕궁 근처로 옮겼다. 그래도 세자는 봉빈을 찾지 않았다.

이 때 세자는 궁녀 중 4살 아래인 마음씨 고운 충청도 홍성출신 시골 처녀 안동 권씨 순임이를 사랑하였다. 권씨는 12살에 궁으로 들어왔다. 첫 번째 휘빈과 두 번째 봉빈과는 달리 얼굴이 순하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았다. 세자의 사랑을 받아 봉빈은 순임이를 매질하고 온갖 고문을 가하였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세자의 총애를 받아 봉빈보다 먼저 잉태하게 되었다. 봉빈의 질투와 매질이 두려웠던 순임이는 차라리 자결을 하겠다며 연못으로 뛰어드는 것을 세자가 잡아서 달랬다. 그리고 소현왕후에게 달려가 ‘어마마마 세자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세자의 씨가 그의 몸속에 자라고 있습니다.’하니 손자를 기다리던 소현왕후가 놀라며 기뻐했다. 세종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순임이를 빈으로 봉작하고 소현왕후와 같이 지극히 사랑하였다.

순임이 세자의 씨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봉빈도 잉태를 한 것같이 연극을 하며 아이를 가졌다고 헛소문을 내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거짓말이 탄로 났다.

산달이 되어 순임이는 딸을 낳았으나 애석하게도 며칠 가지 않아 죽고 말았다.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봉빈은 나인들과 어울려 술과 동성애로 세월을 보냈다. 이러한 행각을 세자가 알고 왕과 왕비에게 실토하였다.

세종은 폐출을 결정하고 사가로 돌려보냈다. 폐빈이 되어 친정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통곡하며 딸을 끌어안았다. 이 때 봉려의 나이는 60이었다. 딸을 불러놓고 너는 요사스런 계집에 불과하니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며 허리띠를 풀어 딸에게 내밀었다. ‘아버지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라며 자결을 거절하자 봉려는 자기의 손으로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수습한 뒤 임금께 4배를 올렸다. 사당으로 가서 조상께 그간의 일을 고하고 허리띠로 목을 매었다.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과인이 덕이 없어 번번이 며느리 꼴도 제대로 못 보고 죄 없는 사돈만 망하게 하였구나.’하고 봉려에게 공숙(恭肅)이란 시호를 내려 그의 영혼을 위로하고 김오문에게도 같은 예우를 하였다.

권빈은 두 번째 딸 경혜공주를 낳았다. 그 후 6년 뒤 단종을 낳았으나 출산 후유증으로 3일 만에 사망하고 만다.

가정사 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사이다. 송골매의 노래 속에도 세상만사 뜻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으랴!’ 하지 않았는가? 세종대왕 같은 성군도 아버지 태종과 아들 수양대군 때문에 골육상쟁의 비극을 겪었다. 또한, 큰아들 문종이 나약한 체질로 39세에 단명하고, 손자 단종이 어렵게 출생하였으나 태어 난지 3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세조에게 보위를 찬탈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도 이와 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군으로 추앙받는 공적을 이룬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다. 보편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 낸다.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은 삼강령 팔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강령은 추상적인 목표로서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덕목이다. 모든 이론

의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을 지닌다.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親民]·지어지선(止於至善)이 이에 해당된다. 팔조목은 구체적 실천 내용이다.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말한다. 앞부분 5조목은 몸과 마음을 닦는 개인수양에 해당하며 제가부터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실천사항이며 정치사상이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나라를 통치하고 지방을 다스릴 사람들이 대학의 삼강령을 갖추었는지, 8조목 중 개인수양에 해당하는 5조목을 잘 실천하였는지,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제가(齊家)를 훌륭히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자. 세종대왕 사례에서 보듯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형제자매, 자녀 등 주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가정은 편안할 수 없다. 그래서 옛말에 나라 다스리기보다 가정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다스리기 어려운 가정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齊家)이라면 고을이나 나라(治國)를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

구례 화엄사(華嚴寺)와 운조루(雲鳥樓)에 대한 단상(斷想)



智光 韓三潤
창녕문화원향토사연구소장



구례 화엄사 문화탐방

흔히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며, 여행은 몸으로 읽는 책’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은 그 자체로서 배움이 자 발견이고 성장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2021. 11. 15.(월), 창녕문화원(원장 : 이수영) 주최, 문화유적답사회(회장 : 장후돈) 주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제1차 우리문화재를 찾아서’라는 슬로건 하에, 단체 문화탐방을 가졌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다소 완화된 일상회복의 틈새를 활용하여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기본 수칙을 잘 지킨 가운데, 의외로 32명이 동참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참여자는 문화원 원장님을 주축으로 이사, 감사,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등으로 문화원을 이끄는 주역이다. 답사지역은 전남

구례군 소재 천년고찰 화엄사(華嚴寺)와 한국의 3대 명택(名宅) 중의 하나인 운조루(雲鳥樓)를 둘러보고, 귀향하는 도중에 경남 하동군 소재 쌍계사(雙溪寺)와 화개장터를 거쳐 왔다.

산을 제대로 보려면 산을 떠나 멀리 떨어져서 봐야 산을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문화재를 비교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정석이다. 거리상 다소 먼 지역인지라 버스 안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왕복 6시간이다. 평소 같으면 지루했을 시간이기도 했지만, 시백(時伯) 이수영 원장님과 만송(晩松) 장후돈 회장께서 문화원 운영상황과 여행지 정보 등에 대한 구수한 입담과 유창한 능변으로 유효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신 덕분에, 모처럼 재미와 의미를 한껏 더한 유익한 여정이었다. 이번 답사 중에 보고 들은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기록으로 남겨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구례 화엄사(華嚴寺)

답사 전에 구례(求禮)란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미리 구례군청 홈페이지를 열어봤다. 1개 읍과 7개 면의 행정구역을 가진 인구 25천명 정도의 작은 군이다. 한자의 지명으로 본다면 ‘예(禮)를 추구(求)하는 고장’으로 보였다.



구례 화엄사에서 기념촬영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 이증환이 쓴 택리지(擇里志)에는 구례를 3대

(大) 3미(美)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넉넉한 인심이 그렇다는 것이다.

화엄사(華嚴寺)라는 절에서 풍기는 화엄사상에서 ‘원융(圓融)’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화엄의 핵심이 원융이기 때문이다. 원융이란 모든 이치가 하나로 융화되어 구별이 없다는 뜻이다.

모가 나지 않고 원만하여 두루 거리낌이 없다는 의미다. 둥글고 원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방식이 고착화 되면 문화가 된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화엄사는 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이며 사적 505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화엄사찰중 가장 큰 절이다. 구례읍에서 동쪽으로 약 5.4 km 떨어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는 천년 고찰로서, 불교 화엄경의 두 글자를 따서 이름 붙여졌다. 544년(백제 성왕 22년)에 인도 승려 연기조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643년(선덕여왕 12년) 자장율사에 의해 증축되었고, 875년(신라 헌강왕 1년) 도선국사가 또 다시 증축했다. 그 후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630년(인조 8년) 벽암선사가 절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여 7년만인 인조 14년(1636년)에 완성했다고 전한다.

경내 건물 중 각황전은 국보 제67호로 지정된 건물로 현존하는 국내 목조건물 중 최대 규모로 그 웅장함과 외양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각황전 앞 뜰에서 있는 석등 또한 높이 6.3m, 직경 2.8m로 각황전의 위용에 걸맞은 크기로 압권이다. 통일 신라시대 불교 중흥기의 찬란한 조각예술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국보 제12호로 지정되어 있

다. 각황전 왼편 효대라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 4사자 3층석탑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세운 탑이라 전해진다. 효(孝)는 언제 어디서나 백행의 근본임을 되새겨보았다. 특이한 의장과 세련된 조각솜씨가 걸작으로 국보 제35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각황전 내부 후편에 자리하고 있는 영산회괘불탱은 국보 제301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엄사 각황전 국보 제67호

화엄사 경내에 자리한 보물 가운데서도 대웅전 양편에 서 있는 5층탑은 뛰어난 조형성과 세련된 장식이 눈길을 끌었다. 우수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화엄사 대웅전은 보물 제299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엄사 5층 석탑

창녕군 전체 지정 문화재 수는 총 107점이지만 구례군의 경우, 59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보 7점과 보물 20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그 중에서도 화엄사에 국보 5점과 보물 7점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서 놀라웠다. 창녕의 전통사찰 1호인 관룡사(보물 6점 등 총 12점 보유)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일제강점기에 다량으로 도굴되어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 지역 국보급 문화재들을 상기해 보니 안타까움이 더한다. 문화재를 지키는 힘이 바로 국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구례 화엄사

화엄사는 7세기 의상대사가 중국에 건너가 화엄사상을 공부한 후 귀국하여 건립한 전국 화엄10찰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다. 당시 의상대사는 원효대사 보다 나이는 적었지만 함께 화엄사상을 공부했던 죽마고우 도반이었다. 불법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다 원효대사는 중간에 해골 물을 마신 후 깨달음(心生法生/마음이 생겨야 우주가 생긴다)을 얻어 되돌아 왔고, 의상대사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체류하면서 화엄사상을 깊이 연구해서 ‘법성계(法性偈)’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의상대사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곳이 화엄사라면 원효대사의 정신이 물씬 풍겨나는 곳이 관룡사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둘 다 화엄사상이 짙게 배어 있는 천년고찰이란 점이 공통점이다. ‘누구라도 지혜(智)를 얻으면 달라진다(異)’는 신령스러운 영산(靈山) 지리산(智異山/1,915m) 정기를 품은 절이 화엄사(華嚴寺)라면, 항상 불(火/佛)기운을 머금고 수승화강(水昇火降)의 기운으로 건강을 담보해 주는 치유(治癒)의 명산, 힐링의 명소, 화왕산(火旺山/757m)이 밝혀주는 절이 관룡사(觀龍寺)다. 우리 창녕에도 영산(靈山)이 있기에 구례와 일맥상통하는 곳이라고 본다. 화왕산과 영축산이 신령스러운 영산이며 영산이란 지명이 뚜렷이 존재하기에 동질성을 찾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화왕산은 땅 속에 불이 들어있다. 겨울엔 구들방과 큰 용광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자부한다. 안도현의 시가 생각났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창녕의 관룡사는 작지만 뜨거운 가슴을 가진 화왕산 자락에 우뚝 서 있기에 또 다른 깨달음을 전해주는 우리만의 강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다, 원효대사가 일천여명의 수행자에게 화엄경을 설한 성스러운 진리의 도량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자기가 자기를 찾는 과정이란 생각이 앞섰다.

화엄경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뒤 내놓은 첫 경전이다. ‘중생 한 명 한 명이 양심의 꽃을 활짝 피워 온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하자’는 것이 화엄의 참뜻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그 유명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사상을 떠 올려 보게 된다. 일체 만물 현상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불법의 이치다.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은 화엄경과 불교의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보현행원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 지는 길이라는 것이 보현보살의 서원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딪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의 몸짓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의상대사가 지은 법성계(法性偈) 7언 30구 210글자의 마지막 결론 구절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이다.

“예로부터 변함없이 부처라고 이름 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부터 부처인데 언제부터인가 이를 잊고 어리석게도 중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구례(求禮)’와 ‘구래(舊來)’라는 단어가 글자는 달라도 소리로는 비슷해서 금방 긴 여운으로 남는다.

구례 운조루(雲鳥樓)



운조루 탐방

‘조물주가 명산(名山)을 만들고 사람은 명택(名宅)과 명가(名家)를 만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명당(明堂)의 조건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를 내세운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기가 뭉쳐있는 산과 넓은

들판, 앞을 흐르는 강물 등 3박자를 갖춘다면 명당으로 꼽을 수 있다.

산의 남쪽에 있으면서 강의 북쪽에 있는 것을 두고 명당이라 하는데 이를 ‘산남강북(山南江北)’이라 하기도 한다.



구례 운조루



구례 운조루 조감도

한국의 비공식 종교가 ‘명당교(明堂教)’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명당을 좋아한다. 옛 부터 풍수지리를 보고 명당을 찾아 숭배하는 문화가 한국 문화의 저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풍수지리에 능통한 조용헌 교수는 우리나라 3대 명택(名宅)으로 강릉 선교장(船橋莊)과 구례 운조루(雲鳥樓), 그리고 우리 창녕의 성씨 고택인 아석헌(我石軒)을 꼽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걸 알고 있었지

만 아석헌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참으로 자공심을 느낀다.

‘운조루(雲鳥樓)’라는 택호는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사는 집’이란 의미와 함께 ‘구름 위를 나는 새가 사는 빼어난 집’이란 뜻을 지닌다고 했다. 이영옥 현지 해설사의 말이다.

조선 영조 52년(1776년)때 당시 삼수 부사를 지낸 문화 류씨 가문의 류이주(柳爾胄)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총 99칸 규모의 저택이었지만 현재는 63칸 정도로 보존되고 있다. 우리 일행이 입장을 할 때 입장료를 1인당 1천원을 받았다. 다소 의아했지만 그 만한 가치를 느끼고 돌아왔음에 만족한다. 조선시대 선비의 품격을 상징하는 품자형(品字形) 가옥 배치 형식을 보이고 있는 양반가이다.

본디 이 집의 이름은 중국의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따 온 글이라고 한다.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를 돌아나가고[雲無心以出岫/운무심이출수], 날다 지친 저 새는 등지로 돌아온다[鳥倦飛而知還/조권비이지환]” 두 구절에서 첫 머리 두 글자를 취해 지은 이름이다.

구례 운조루 고택은 좌청룡 우백호의 산세와 함께 내수구(앞 도랑)와 외수구(섬진강)가 제대로 되어 있는 명당 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 앞의 오봉산(五峰山)은 신하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형상이라고 하며, 고택 앞에 자리한 연못은 남쪽 산세가 불의 형세를 지니고 있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된 연못이라 전한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일대는 금 거북이가 진흙에 빠지는 금귀몰니형(金龜沒泥形)이며, 동시에 금가락지형인 금환락지형(金環落地形), 또는 다섯 가지 보배가

모인다는 오보교취형(五寶交聚形), 다섯 봉황이 깃드는 오봉귀소형(五鳳歸巢形)이라고 한다.



“타인능해” 쌀독

이 고택에서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곳이 있었다. 바로 나무로 만든 ‘쌀독’이다. 나무로 된 쌀독의 마개에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본래 쌀독의 원품은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직접 볼 수는 없었고 모조품이 놓여있었다. ‘타인도 마음대로 쌀독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가난한 이웃 사람들이 이 쌀을 꺼내 가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주인장의 배려다.

이는 음덕을 베풀어서 적선(積善)을 실천하는 가진 자의 도리임을 보여주는 문화 류씨 문중의 아름다운 상징물이다.

200년이 지나도록 집안이 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가문이 번창한 것은 오로지 분수를 지키며 생활하고, 이웃을 돌보았던 마음이 전승되어 내려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류이주의 5세손인 류제양(柳濟陽)은 일만여 편의 시(詩)를 남겼다고 전해지며, 손자인 류형업(柳溼業)에 이르기 까지 8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농가 생활 일기를 썼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문화는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위대한 선조들의 유업이라 생각할 수 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구례와 하동 일대가 금회락지 들관이라고 하니 놀라웠다.

운조루는 특히 풍수지리상 ‘조안(朝案)’이 좋아 명당이라고 한다. ‘조안(朝案)’이란 앞을 바라볼 때 앞쪽 가까이 있는 산을 ‘안산(案山)’이

라 하며, 이 보다 조금 뒤쪽에 떨어져 있는 산이 ‘조산(朝山)’이다. 조안(朝案)에서 부귀(富貴)가 나온다고 전해진다. 운조루의 안산은 집 앞에 펼쳐진 다섯 개의 봉오리가 재물을 쌓아놓은 듯한 형상인 오봉산(五峰山)이며, 조산은 높은 산봉오리를 형성하고 있는 백운산(白雲山)과 마주한다. 창녕의 성씨고가인 아석헌(我石軒) 또한 화왕산을 조산으로 삼고 그 앞에 있는 야산을 안산으로 삼아 마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풍수상 길지(吉地)라고 전한다.



4사자 3층석탑 국보 제25호

길 옷은 허름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속살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운조루라고 말한다. 운조루를 오늘날까지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역시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나눔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운조루라는 고택이 6.25 한국 전쟁의 참혹한 전란에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타인능해의 정신이 주 원인이었고, 조선 말에서 근대화 시기까지 노비들을 해방시켜 준 것 또한 류씨 가문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근본 이유라고 말한다.

‘창녕 석리 성씨고가’인 아석헌(我石軒) 고택은 창녕군 대지면 석리에 위치하고 있고 2004. 7. 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 355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께서 1998년부터 복원한 살아있는 우리 창녕의 큰 자부심이자 산 교육장이다. 성기학 회장의 고조부인 아석공(我石公) 성규호(成圭鎬/1832~1889)선생이 1885년 노모를 모시고 이 곳에 터를 잡아 지은 집이다. 1863년 병자년 흥년 시절 아

석선생은 땅을 팔아 굶주린 인근 빈농의 구휼에 나섰던 적선지가(積善之家)의 가장이었다고 전한다. 이후 4개동 30채 규모의 한옥이 들어섰다. 이 고택의 특징은 다른 고택과 달리 지은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대별 한옥의 변천사를 두루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좋다. 성기학 회장의 부친이신 우석(愚石) 성재경(成在慶/ 1910~1981)선생은 1963년 당시 뜻있는 지인들과 함께 한국 최초의 농민 자조단체인 경화회(耕和會)를 설립하고 지역의 특산물인 양파를 최초로 보급해온 훌륭한 선각자이면서 교육자였다.

이후 1981년 작고하기 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협성농산 주식을 경화회 조합원 수 백명에게 분배하셨다고 전해진다.

이와같이 아석헌(我石軒)이 오늘날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면에는 대대로 나눔과 베품을 실천해온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숭고한 정신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풍수가이자 철학자인 조용헌 선생의 말을 빌린다.

“산은 꼭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선이 있어야 명산이다”

(山不在高 有仙即名/산부재고 유선즉명)

“물은 반드시 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이 살아야 신령스럽다고 본다”

(水不在深 有龍即靈/수부재심 유룡즉령)

신선(神仙)과 용(龍)은 변화와 작용의 상징적인 화신(化神)이다. 돌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일궈 온 높은 수준의 경지가 신선이 되고 용이 되는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화엄경(華嚴經)의 가르침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현상이라

고 하는 것은 관념의 투사라는 것이다. 무심(無心)에서 일어나는 마음(平常心)이 원(願)을 일으키고, 그 원(願)을 가지고 못 사람들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행원(行願)’이다. 화엄경의 마지막 결론이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담겨있음을 다시금 상기해 본다.

화엄(華嚴)의 기운이 서려있는 구례(求禮)와 창녕(昌寧), 두 지역을 상호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보인다. 그 공통점이 바로 조상들이 남기신 빛나는 문화유산에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난 모양새가 현상이다. 본질이 공(空)이라면 현상은 색(色)이다. 공(空)이 불성(佛性)이고 색(色)은 갖가지 꽃으로 장엄한 화엄(華嚴)에 다름 아니다. 창녕은 빛의 고장이다.

찬란한 빛을 바탕으로 세세생생 빛나는 전통문화가 새롭게 창출되기를 소망한다.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내고장 자랑스러운 창녕을 소개합니다

창녕중 2학년 박민준, 신영웅, 이도영

환경보호! 우리가 알려주꾸마잉~

신창여중 3학년 박지혜, 김지형, 박소영

거기 거다 억새 억수로 많은데 '화왕산' !!!!!

신창여중 3학년 김다빈, 김미주, 박지연

내 고장 자랑스러운 창녕을 소개합니다.

창녕중 2학년 박민준, 신영웅, 이도영

영웅 - 저는 싸랑을 찾아 해매이는 창녕 토박이 영웅이입니다. 역수로 오랜만에 뵈네예. 잘들 지내고 계시지예. 저는 요새 산을 오르며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으제는 화왕산을 갔다 아입니꺼. 여가 바로 자하동천이라 안 캡니까. 옛 선비들이 경치 좋고 계곡의 산수가 빼어난 곳이라 해서 말했다고 카지예. 여즉시 자연의 창녕. 진짜로 아름답십니다. 크. 약수터에 도착해서 지의 인생 같은 쓰지만 시원코 톡 쓰지만 단 맛있는 약숫물을 한 잔 목구예. 퍼렇고 높은 가을 하늘에 은빛 억새까지 지를 가을 남자로 맨들어 고독을 엄청시름게 느끼고 왔다 아입니꺼.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 지와 함께 우수에 젖은 남자의 인생을 느껴 보지 않으실랍니까.

민준 - 와, 니 역수로 못찌네. 화왕산! 내도 한 고독 하는 가을 남자다, 아이가. 내처럼 잘생기고 으리 있고 그냥 한마디로 마 싸나이 같은 사람 봤나? 내는 안다. 바로 임진왜란 때 활약하셨던 홍의장군 의병장 곽재우 장군님 아이가. 니 화왕산 갔으면 배바위도 봤겠노. 거기 바로 곽재우 장군님의 설화를 담고 있는 바위다 안카나. 온 시상이 물난리로 물에 잠겼을 때 바위를 배에 묶었다 캐서 배바위라 카는데, 배 바위에 움푹 들어간 홈 있지예? 거기 전란 때 곽재우 장군이 이 물로 세수를 해가꼬 곽재우 세숫대야라고도 한다. 창녕 도천에는 곽재우 장군을 기리는 유허

비와 곽재우 장군이 말년을 보낸 망우정도 있으니, 여도 우리 고장의 역사 탐방지로 유명하다 아입니까. 내도 마 장군님처럼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진짜 멋진 싸나이로 성장할겁니다.

도영 - 창녕 역수로 적이네. 근데 마 니들 배 안고프나? 내는 그리 돌아 대니면 배고파서 못 참는다. 수구레 국밥 묵으러 가야 겠노. 니들 수구레가 뭔지 아나? 수구레는 소 껍디를 벗지면 나오는 근육 곁에 질긴 걸 말하는 기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이 수구레 국밥이 그키 좋았다 안 카나. 요새처럼 쌀쌀할 때 뜨끈 뜨끈하고 영양도 만점인 수구레 국밥 한 그릇 묵으면 온 몸에 힘이 솟아 내처럼 이래 튼실하고 건강해진다 아이가! 창녕은 그리고 마늘 유명한 거 알제? M 버거 회사에서 창녕 갈릭 버거 까지 출시했다 아이겠나. 얼마나 우리 창녕 마늘이 몸에 좋고 맛도 있고 좋은지 모른다 아이가. 전국적으로 뻗어가는 우리 창녕 특산품 진짜 좋다. 말하다 보니 또 먹고 싶노. 오늘은 고마 마늘 장아찌 해가꼬 어무이랑 히야랑 국밥 한 그릇 시원하게 땡길란다.

다 같이 - 적이는 창녕, 자랑스런 창녕, 창녕에 오이소~

환경보호! 우리가 알려주꾸마잉~

신창여중 3학년 박지혜, 김지형, 박소영

지혜 : 안녕하세요. 지들은예, 박지혜

지형 : 김지형

소영 : 박소영입니다.

지혜 : (커피를 들고 들어옴) 으따 뜨거버라!

지형 : 어, 왔나?

소영 : 이자 김씨만 오믄 되는데 와 안오노?

지형 :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음) 여보시오? 아, 김 씨! 와 아직도 안오노? 뭐라꼬? 느그 발에 불이 났다꼬? 아...아랐다. 내 그렇게 전해주께. (전화를 끊는다)

소영 : 헉. 오마야, 불이 났다나?

지형 : 지킴은 께얌댄다. 근데 그걸 정리한다꼬 오닐은 못 온다 카는데.

지혜 : 와 불이 났다 그러노?

지형 : 고계...담배꽁초 때문이란다.

소영 : 음... 우리가 뭐 도와줄 께 없나?

지혜 : 그라믄 오늘 회의 주제를 고걸로 하면 어떻노?

지형 : 고겨?

지혜 : 아따 마, 환경문제 말이다. 환경문제! 요즘 환경오염도 심하고 김 씨처럼 담배꽁초 때문에 불도 나는 갠우가 있다고 내가 말했다 아이기가!

소영 : 니가 언제 말했노? 말한 적 없었는데이.

지혜 : ...그래서 내가 지킴 할라꼬 했다 아이가!

지형 : 아, 알았다. 알았어.

지혜 : 자, 그러믄 인자 회의를 시작해보까?

지형 : (박수를 한 번 치면서) 그라고보니 느그 낙동강에 둥~둥~ 떠다니는 초록색덜 아나?

소영 : 어... (휴대폰을 몰래 꺼냄) 내 거건 잘 알지~ 거거는 녹조현상이라 카는데, 녹조가 위로 뿔뿔뿔~ 올라오믄서 햇빛을 가리고, 고거 때문에 물피기덜이 결국엔 폐사한다고 카더라.

지혜 : 니 어찌 그래 많이 아노?

소영 : (어깨를 으쓱하며) 이 정도는 상식이다, 상식!

지혜 : (무언가를 눈치챈 듯이)... 그런데 지킴 니 휴대폰 보고 있는기가?

소영 : (핸드폰을 재빨리 숨기며) 뭐, 뭘소리고! 크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낀데?

지형 : 마, 내 좋은 생각이 있다!

지혜 : 고계 뭘데?

지형 : 캠페인을 여는기다, 캠페인!

소영 : 아따,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지혜 : 음...그러믄 한번 연습해볼까?

지형 : (목을 가다듬으며)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고예?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들이 말허는 이 세 거지 방법맨이라도 실천하믄 환경보호? 거거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워집니데이!

소영 : 찻째, 쓰레기는 햄부로 베리지 앓꼬 분리수거허기!

지혜 : 둘째, 물과 전기는 최대한 절약허기!

지형 : 시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아따, 합이 척척 맞는구마잉~

지혜 : 그람 우리 이자 동네 사람덜이 요걸 다~ 알 수 있도록 캠페인 하러 가입시더!

다같이 : (모두 일어서서 걸어나가다 획 돌아보며) 여러분도 다~ 알지 예? 우리 환경, 우리가 지킴시데이~!

거가 거다 억새 억수로 많은데 “화왕산”!!!!!!!!!!!!!!

신창여중 3학년 김다빈, 김미주, 박지연

다같이 : (밝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왕산이 자랑인 우리 고장 창녕에 사는 김다빈, 김미주, 박지연입니다.

미주 : 아따마 와 이리 디노? 우리 산만디까지 얼마 남았노?

다빈 : 장난치나? 아직 반도 안 왔다.

지연 : 근데 너그들은 와 진빠지게 화왕산 만디까지 갈라카는데?

다빈 : 네가 화왕산 만디까지 가보면 아는기라.

지연 : 그라믄 가는 동안 너그들이 화왕산에 대해 야그 좀 해도.

미주 : 아라따. 화왕산은 옛 이름이 “큰불뚝”로 불렀는데, 그게 이따 아이가. 화왕산에 불기운이 떨어와야 풍년이 들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이야그라 안 카나. 아! 그라고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께서 활약한 곳이라 카데.

다빈 : 아 맞나! 내는 화왕산만 올라가면 우리 사촌 동상이 생각난다카이. 정상까지 갔다가 내리 가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가꼬 바지에 고마 확 오줌을 지려버려가꼬 이모헌데 호~~대게 혼난적이 있다 아이가. 그래서 내는 올리갈 때머더 고 생각 버께(?) (밖에) 안 난다잉.

미주 : 아 참말이까? 지연아! 니도 오줌 지리지 았구로 조심해라잉~

지연 : 아! 김미주!!! 허지 마라!!!

다빈 : 야, 애들아. 이저 산만디다~!!!

미주 : 이야~~ 전망이 장관이네. 장관. 풍경이 고마 짝이뿌네.

지연 : 근디 아께 산만디에 오면 뭘 한다꼬 한긴데?

다빈 : 진달래 군락지를 볼라카지. 화왕산 진달래는 4월 하순에서 5월 초까지가 제일 보기에 좋코 전국 3대 진달래군락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카이.

미주 : 드라마 허준 세트장이 있는데 허준이 환자를 돌보는 장면이 나오고 너와집 초가집 움막 등이 세워져 있고 허준뿐만이 아니라 대장금, 주몽, 상도 등 여러 명작도 촬영했다 카드라.

다빈 : 역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무선조종 뱅기(드론)를 날려 화왕산 정상에 까리 빛까리한 역사 영상을 제공하고, 화왕산 하문 역사를 떠올리게 할 만큼 화왕산은 역사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이가.

지연 : 이야~ 참말로 화왕산 만디 올리오길 잘했따~~ 눈도 좋코! 마음도 좋코! 몸도 건강해지고! 1석 3조다. 맞제?

다빈 : 썩빠지게 더도 올리오길 잘했제? 우리도 인자 건강을 생각할 나이아이가!

미주 : 맞습니더. 맞습니더. 한번 사는 인생 건강하게 살아야 안 되겠나!!

지연 : 오늘 억수로 좋았다. 다음에 우리 또 오제이. 이제 집에 가자카이~!!!!

미주 : 카면 우리 내리가서 과전에 야구르트 한 잔하까?

다빈 : 좋~~치! 우리 할배는 과전에다가 사발에 막걸리 한 사발 부어 갔꼬 마시면 크~~~ 그거야말로 진정한 삶의 낙이라 카더라.

지연 : 아이고 마.. 우리는 아직 학생이다 학생!! 정신 차리라!

다빈 : 아..알았다. 난 먹는다고 안했데이.

미주 : 고마하고 내리가자.

지연, 다빈 : 기래

다같이 : 가자!!

다같이 : (밝고 명랑하게) 하나 둘 셋.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 코로나19 걱정할 필요 없는 공기 맑은 화왕산 많이 찾아주세요. 코로나19 다 같이 이겨냅시다!!

교양 및 정보

사단법인 경화회 회장

박근성

사단법인 경화회(耕和會) 소개

사단법인 경화회 회장 **박근성**

사단법인 경화회는 1963년 2월 26일에 가난이라는 고질 유산을 혁신하고 농사기술연구 및 잘사는 농촌건설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서, 2021년 말 현재 1,000여명의 군민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화회 전경

창립이후 현재까지 매월 26일 (농번기 5, 10월 제외)을 정기 월례회일로 정하고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농사기술 및 교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원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후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원로회원에 대한 경로행사 등을 실시해 왔다.



경화(耕和) 입석

1965년부터 회지 “경화”를 발행하여 회원들의 농업기술 습득 등 정보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국의 유관기관과 도서관에도 배포되고 있고 2021년 2월 26일에는 통권 제139호가 발행되었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회원의 복리 증진은 물론 창립목적 수행을 위한 견실한 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1. 월례회 개최

본회는 1963년 2월 26일에 창립되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이라는 유산을 혁신하기 위하여 농사기술 연구 및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회의 기본 창립목적으로 매월 26일(농번기 5월, 10월 제외)을 회일로 정하여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양 및 새로운 농사기술을 교육하고 회원들의 10분 강좌로써 농사정보 교환 및 기술적 자질 향상과 능력을 함양하였으며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2. 회지발간

경화 회지는 본회의 기관지로서 통권 제138호에 달했으며, 매회 1,000부씩 발행하여 회원의 교재용으로 활용하며, 통신회원과 각 유관기관, 전국농업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회지를 통하여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있다.

3. 단위회 개최

매년 정기 단위회를 각 지역별로 읍·면 단위회 대표 주관으로 사랑방, 서당, 제실, 마을회관 등 그 지역의 편리한 장소에서 정한 날짜에 개최되어 자 단위회의 1년간의 경과 보고와 임석회장 및 이사의 격려로 친목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의 농사를 회고하며, 회원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촌발전 및 농촌현실을 토론하고 새로운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경화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4. 회관의 이용

경화 회관은 전회원의 집념으로 이룩된 농민의 전당으로서, 모여서 배우고 토론하는 광장으로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기관단체의 모임, 경축행사, 혼례식 등 각종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그 이용도를 제고 시켰다.

특히 2016년 2월 25일 신축 준공된 경화회관은 회원의 위상제고는 물론 앞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의 편의시설로 이용될 것이다.

5. 경화 장학회 운영

경화장학회는 1981년 3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회원의 자녀중에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2006년부터는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설립의 동기는 본회 제 2대 회장 고 우석 성재경님께서 수상하신 5.16민족상 상금이 계기가 되었으며, 1988년까지 지급된 장학금은 (주)푸드웰 대표이사 성기상씨의 협조금으로 충당되었다.

〈장학금 조성내역〉

• 제2대 회장 고 우석 성재경님	10,293,147원
• 제3대 회장 고 소강 하재호님	3,384,150원
• 제4대 회장 성효영님	1,128,059원
• 경화장수계원일동	1,000,000원
• 영원무역회장 성기학님	8,500,000원
• 제 5대 회장 박희출님	2,000,000원
• 제 6대 회장 이우성님	1,000,000원
• 전 영남대학교 김병도박사님	1,000,000원
• 제 7대회장 이용호님	3,000,000원
• 경화회 전 부회장 박봉규님	1,000,000원

- 길곡면 회원 이성호님 1,000,000원
- 제 8대회장 황선웅님 3,000,000원
- 경화회부회장(여성회장) 신계식님 1,000,000원
- 유어 성상경님 1,000,000원
- 유어 성낙화님 1,000,000원 등

총 39,305,356원의 기금이 출연되었으며, 그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6. 경화장수계 조직 및 운영

1981년 5월 14일 9명의 발기인에 의하여 경화 장수계를 조직하였으며, 당시의 계원수는 30명이었다.

이후 매년 선진지 견학 또는 실내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경화장수계를 조직한 이후로 40년이 경과 되었으며 계원의 자격은 회의 이념이 투철한 75세 이상의 원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약 100명의 계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 경화회가 걸어온 길

- 1981년 5월 14일 9명의 발기인이 경화 장수계를 조직하였으며 당시의 계원수는 30명이었다.
- 이 후 1989년까지 9년간은 당시 상무이사이셨던 이용호님께서 차편을 제공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다.
-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11년은 경화새마을금고에서 행사를 주관 하였으며 경비 일체를 지원하였다.
-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그동안 입계금, 찬조금 등의 적립된 기금으로 각종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2004년에는 사정으로 인하여 갖지 못했다.

- 2007년에는 일부자체기금과 경화회에서 1백만원, 경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한 1백만원으로 경로행사를 추진하였으며, 2008년 제18회 정기총회 시 경화회에서 1백만원, 경화새마을금고에서 1백만원이 지원되어 원만한 총회가 될 수 있었다.
- 2009년 제19회 정기총회는 신중 플루라는 독감의 만연으로 인하여 회의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다.
- 2014년과 2015년 또한 경화회관 신축공사로 행사를 갖지 못했다.
- 1981년 경화장수계를 조직한 이후로 39년이 되었다.
- 현재 경화장수계원수는 120명, 자산은 5,906천원이다.

〈주요 연혁〉

- 1963. 02. 26 경화회 창립. 김성수 초대회장 취임
- 1965. 02. 26 경화회지 창간호 발행
- 1965. 07. 21 경화회지 정기간행물 등록 (문화공보부)
- 1965. 07. 23 사회단체 경화회 등록 (농림부)
- 1966. 02. 26 경화회 회가 제정
- 1971. 03. 26 회기 제작
- 1971. 04. 14 사회단체 경화회 발전적 해산
- 1971. 11. 06 사단법인 경화회 인가
- 1971. 12. 07 사단법인 경화회 설립 등기 필
- 1972. 06. 28 김성수 초대회장 별세
- 1972. 08. 08 성재경 제2대 회장 취임
- 1975. 12. 05 농촌진흥청장 공로패 수상
- 1975. 12. 10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 1977. 07. 26 회관건립 기공식 거행
- 1978. 02. 26 회관준공식 및 창립 제15주년 기념식
- 1980. 02. 26 하재호 제3대 회장 취임

- 1980. 03. 26 경화 새마을금고 창립
하재호 초대이사장 취임
- 1980. 10. 25 성재경 제2대 회장 별세
- 1981. 03. 26 경화 장학회 설립
- 1981. 05. 14 경화장수계 조직
- 1981. 10. 20 경화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득함(경상남도)
- 1983. 02. 26 경화기념비 건립
- 1986. 02. 26 성효영 제4대 회장 취임
제2대 경화새마을금고 이사장 겸임
- 1991. 01. 24 하재호 제3대 회장 별세
- 1991. 02. 26 박희출 제5대 회장 취임
- 1993. 02. 26 고 성재경 창립자 동상 제막
- 1994. 02. 26 이우성 제6대 회장 취임
- 1998. 09. 11 농산물 유통 창고 건립
- 2004. 05. 10 황선웅 제8대 회장 취임
- 2006. 12. 05 경화회 여성회 발족
- 2010. 12. 01 이용호 제7대 회장 별세
- 2011. 04. 19 성효영 제4대 회장 별세
- 2011. 09. 30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 (기획재정부)
- 2012. 01. 20 이우성 제6대 회장 별세
- 2014. 09. 03 회관 재건축 위한 철거 (구 경화회관)
- 2016. 02. 25 신축회관 완공
- 2016. 05. 20 신축경화회관 준공 및 창립자 성재경 회장
동상 제막
- 2017. 02. 10 박근성 제9대 회장 취임
02. 26 창립54주년 기념식 및 제8·9대 회장 이·취임식
- 2017. 06. 30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843호)

• 2019. 02. 14 박희출 제5대 회장 별세

※ 자료제공 : 사단법인 경화회 사무국

耕和會 노래

曹逸峰 작사
金聖泰 작곡



알 풀 히 농사 익 혀 보 람 거 두 고 -



배 우 며 닭 울 수 록 참 되 는 마 음 -



희 망 의 앞 날 에 로 길 을 찾 으 러 -



모 - 이 자 경 화 회 는 농 촌 의 등 불 -



모 - 이 자 경 화 회 는 농 촌 의 등 불 -

2. 올바른 이미지에 생애를 바쳐
거레의 거친발을 가는 기꺼움
새나라 새살림의 씨를 뿌리며
뭉치자 경화회는 자립의 터전
뭉치자 경화회는 자립의 터전

3. 얽히인 목은 뿌리 뽑아 치우면
매마른 강산에도 꽃이 피리라
거룩한 새역사의 바탕 이루어
나아가자 경화회는 민족의 이상
나아가자 경화회는 민족의 이상

수상 소식

■ 군민대상(郡民大賞) 수상 - 하정구/임채식

■ 제21회 황우문화상 수상

■ 국무총리상 수상!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남지철교 문화지킴이)”

군민대상(郡民大賞) 수상

제29회(2020년)

하정구 고문(전 창녕문화원장)께서 제 29회(2020년) 교육 문화부문 영예의 창녕군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문화가족과 더불어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 수상 일시 : 2021. 11. 3.(수) 11:00, 기념식 시.
- 수상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주요 경력
 - 배바우 산악회 결성
 - 화왕산 갈대제 결성
 - 비사벌 문화제전회 초대 위원장
 - 제18대 창녕문화원장(2000. 1. 27. ~ 2003. 2. 23.)
 - 대한민국팔각회 창녕팔각회장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민족대표 위원
 - 현 창녕문화원 고문
- 주요 공적

1964년 창녕 어린이 보육회 발기를 시작으로 농촌일손돕기 임시 탁아소 운영 등 고향의 유아교육에 큰 기틀을 마련했으며, 배바우 산악회와 화왕산 갈대제를 결성하고, 초대 비사벌 문화제전위원장과 제18대 창녕문화원장을 재임하시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창녕문화 창달에 기여.

제30회(2021년)

임채식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창녕군지회장께서 제30회(2021년) 교육 문화부문 영예의 창녕군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문화가족과 더불어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 주요 공적
- 6.25참전유공자회 창녕군지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일교육에 앞장서 노력해 옴으로써 전국 우수지회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군민 애국심과 안보의식교육에 앞장서 노력해 옴.

제21회 황우문화상 수상

| 황우문화상 개요 |

- 황우문화상은 향토출신 아동 문학가이자 시인이신 고(故)황우 이준범 선생(2004년 작고)께서 지역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50백 만원을 쾌척, 기금을 조성해서 1999년부터 추진 중인 중인 제도임.
- 매년 창녕군민이나 출향 인사 중, 애향심과 문화 창달에 공로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음.
- 2021년 신축년 제21회 수상자로 현 창녕문화원 부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향토문화 창달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신 남지읍에 거주하시는 윤혁근님을 선정하였음.

| 수상개요 |

- 수상자 : 창녕문화원 부원장 윤혁근
- 수상일 : 2021. 11. 30. (화)
- 수상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 주요경력 |

- 1981. 01 ~ 1981. 12 : 남지청년회의소 제10대 회장
- 1982. 01 ~ 1985. 12 : 창녕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
- 2011. 03 ~ 현재 : 창녕문화원 부원장

| 공적사항 |

- 1981년 : [사]한국청년회의소(남지JC) 제10대 회장 재직중 JC 남지회관 건립에 앞장서며 건립기금 100만원 후원하였음.
또한 동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베풀

풀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

- 1982년부터 1985년 : [사]창녕군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을 맡아 배수로 시설(남지흥국주유소~남지시외버스터미널), 도로포장(성사~아지), 독길포장(송진주유소~길곡 오호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포회관 건립시 새마을 훈장 노력장 수훈금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탁.
- 2006년 : 경상남도 지역대표 축제인 ‘창녕 낙동강유채축제’ 발기인으로 유채축제 홍보 및 기금마련에 크게 기여.
- 2011년 : 창녕문화원 부원장으로서 남지분원 회원 증원에 공헌.
- 2018년 : “창녕이 겪은 6.25전쟁” I,Ⅱ차 발간 사업에 6.25 낙동강 전투 최후의 보루 남지 박진전투관련 역사문화자원 발굴에 앞장서음.
- 2019년 : 창녕문화원 부원장으로서, 경남근대문화유산(창녕군편)총람 발간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문화콘텐츠 발굴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남지철교 문화지킴이)”, 남지철교 우수 관리로 영예의 국무총리상 수상!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일명 남지철교문화지킴이/공동대표 : 김부열, 이상주, 이가은)이 국가등록문화재 제145호인 창녕 남지철교의 우수관리로 문화체육부로부터 2021년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문화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수상 훈격 : 국무총리상
- 수상 일시 : 2021년 12월 8일(수) 14시
- 수상 장소 : 한국문화재단 민속극장
- 수상 단체 :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남지철교 문화지킴이)
 - 창녕군 남지읍 동포2길 3번지 소재
 - 공동대표 : 김부열/이상주/이가은 (창녕문화가족)
- 주요 경력
 - 남지철교보존대책위원회(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창립
 - 남지의 추억, 철교사진전 및 영화상영 시작
 - 남지철교 등록문화재 제145호 지정
 - 문화재청 - 1문화재1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낙동강, 국란극복의 숨결을 찾아서(1, 2회 실시)
 - 남지철교 새해맞이 일출행사, 낙동강 유채축제 철교사진전 및 청소년 미술대회 시작 ~ 2020. 01. 01.(16년간 실시)
- 과거 포상 기록
 - 제1회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2005. 12. 31)

• 문화재지킴이 우수사례(수기공무) 금상

■ 공적 요지

1933년 개통된 남지철교가 2004년 2월 “남지교재가설공사”라는 행정당국의 철거결정에 따라 근대문화유산보전을 위하여 남지철교보존대책위원회와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성하여 남지철교 살리기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한 결과, 2004년 12월 31일 등록문화재 제145호로 지정토록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역 공동체 의식 조성과 문화재 보호 운동으로 지역봉사에 헌신함.

창녕의 전통사찰 소개

① 창녕 관룡사

③ 창녕 극락암

⑤ 양산 통도사 창녕포교당

⑦ 창녕 석불사

② 창녕 법화사

④ 창녕 청련사

⑥ 창녕 도성암

⑧ 창녕 삼성사

창녕의 전통사찰 소개

창녕문화원향토사연구소장 韓三潤

전통사찰은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적인 사찰을 잘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 근거한 사찰이다. 창녕군에 소재하는 전통사찰 8곳을 소개한다.

1. 창녕 관룡사(觀龍寺)



창녕 관룡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 종 파 : 조계종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전통사찰 제1호

창녕 관룡사(觀龍寺)는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옥천리)에 소재한 삼국시대(신라) 사찰로서, 창녕의 전통사찰 8곳 중 제1호로 지정된 명찰{名刹}이다. 2020년 발간된 창녕군문화재대관에 의하면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신라 흘해왕 40년(349년) 창건설이다. 이는 영조9년(1783년)에 작성된 ‘관룡사 사적기’에 따른 것으로,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527년보다 170여년이나 이른 시기여서 그대로 믿기에는 어렵다고 한다.

둘째는, 신라 진평왕 5년(583년) 창건설이다. 이는 창녕군지에 따른 것으로 설화가 함께 전한다. 백정왕이 이 곳에 참배 왔다가 증법국사의 화엄경 법문을 듣고 이곳이 증법국사의 인연의 땅이라 하여 즉시 절을 세울 것을 명했다. 증법국사가 제자 송파와 함께 칠성 백일기도를 마치는 날, 하늘에 오색구름이 영롱하게 비치고 뇌성벽력과 함께 화왕산 꼭대기 월영삼지에서 아홉 마리의 용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는 큰 상서로운 일로 기뻐하며 사찰의 이름을 ‘관룡사’라 하고, 그 뒷산을 ‘구룡산’으로 칭했다. 이 설화에 따라 583년에 증법국사가 세웠으며 이후 원효대사가 제자 천 여 명을 데리고 이곳에서 화엄경을 설했다고 전해진다.

셋째, 349년에 창건하여 583년에 재창하였다는 설이다. 이는 관룡사 사적기의 349년 창건설과 창녕군지의 583년 창건설을 절충한 것이다.

창건과 관련된 세 의견과 사찰 인근에 있는 창녕 관룡사용선대 석가여래좌상(보물 제295호)의 대좌 명분 등을 종합해 볼 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삼국시대(신라)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덕왕 7년(748년)에 추담선사가 부속건물을 건립했으나 남아 있지 않고, 약사전 내 석조여래좌상과 관룡사 승탑 등의 고려시대 유물을 통해 고려 시대에도 사세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관룡사는 동국여지승람에 ‘관룡사일구재화왕산(觀龍寺一俱在火旺山)’이란 기록과 대웅전과 약사전의 상량문, ‘관룡사 사적기’를 통해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태종 1년(1401년)에 관룡사 대웅전이 처음 세워졌고, 중종 2년(1507년)에는 약사전의 재창이 이루어져 대웅전과 약사전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형태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약사전을 제외한 전각이 모두 불에 탄 것을 17세기에 대대적으로 중창하였다. 중창 시 대웅전, 약사전, 문수전, 원음각 등을 갖추었으며 중창 이후 13개의 건물과 6개의 부속암자를 거느린 사찰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숙종 30년(1704년)에 큰 비가 내려 승려 22명이 사망하고 금당 및 여러 불전과 부도 등이 유실되었다. 숙종 38년(1712년) 이후 주지 학령(鶴齡)에 의해 관룡사가 다시 중창되는데, 이 때 천왕문이 건립되었다. 숙종 39년(1713년)에는 천왕문을 단청하고 사천왕상을 봉안하였는데, 이는 사찰의 진입 방법인 일주문-천왕문-누각-불전 앞마당이 18세기 중창 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영조 5년(1729년) 대선사 조안(祖安)에 의해 영산전이 지어졌고, 영산전 앞에 향로전이 건립되었다. 이후 배치 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부수만 이루어졌다. 18세기 편찬된 ‘해동지도’에는 관룡사 뿐 아니라 인근 청룡암, 황룡암, 동암 등의 암자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고종 19년(1882년)에는 ‘관룡사 중수기’를 통해 사방에 축대를 세우고 중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출판된 조선고적도보

(朝鮮古蹟圖譜)를 보면, 대웅전과 약사전 영역 사이를 담으로 구분하고 있어 현재보다 두 영역의 독립성이 강조되었다.

관룡사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집결소가 되어 UN군의 폭격을 받았다. 그 때 팔상전이 불에 타고, 대웅전 일부가 파손되어 1956년에 보수가 이루어졌다. 1963년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하고, 1965년 해체보수 및 새롭게 단청하였으며, 1968년 요사채 이건, 1978년 대웅전 번와보수, 1988년 부식재 교체 및 번와보수, 2001년 지붕 해체보수, 2007년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2010년 대웅전 단청 모사사업 등 꾸준한 보수와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현재 관룡사는 주차장에서 계단을 오르면 사천왕문이 있으며 사천왕문의 왼쪽에는 종과 법고가 있는 종각이, 정면에는 원음각이 있다. 원음각의 오른쪽에는 약사전이 있으며, 약사전 앞에는 삼층석탑이 있다. 약사전 뒤로 명부전, 대웅전, 칠성각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칠성각 뒤로는 산령각, 응진전과 요사채가 위치하고 있다.

관룡사에는 지정된 문화재가 총 12점으로, 보물 6점,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 6점이 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로는 창녕 관룡사 약사전(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19호),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보물 제1730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보물 제1816호)가 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는 창녕 관룡사 약사전 삼층석탑(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1호), 창녕 관룡사 사적기(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76호)이 있으며 관룡사 입구의 석장승은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6

호로, 창녕 관룡사 승탑(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호)과 창녕 관룡사 원음각(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0호)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창녕 관룡사는 원효의 화엄사상이 농축된 전통 고찰로서, 문화재의 보고(寶庫)이며,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양산 통도사의 말사이다. 해발 739m인 관룡산(화왕산 지산) 서남쪽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다.

특히 관룡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95호)은 수 십리길 낭떠러지 절벽 위에 솟아있는 불상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관룡사와 더불어 창녕의 구경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사시사철 부산, 대구, 창원 등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관광객과 기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설해온 ‘응병여약(應病與藥)’의 기도로량 관룡사는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치유해주는 진리의 등불이다.

2. 창녕 법화사(法華寺)



창녕 법화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적지길 184
- 종 파 : 조계종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전통사찰 제26호

창녕 법화사는 창녕군 영산면 적지길 184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양산 통도사의 말사이다.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원효대사의 스승과 지공화상이 기거하던 곳으로 신라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영축산에 있던 보림사(寶林寺)의 부속 암자였으며, 철종 1년(1850) 국의(國儀)가 중창하고 철종 8년(1857) 다시 국의가 중수하였다.

현재의 법화사는 옛 대웅전인 법화암과 대웅전, 산신각, 2층의 현대

식 요사로 구성돼 있다. 옛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뒤편의 대웅전을 새로 조성하면서 주불전의 기능을 잃었다. 새로 건립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산신각은 대웅전과 요사 뒤편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그리고 요사채는 2층 현대식 건물이다.

지정문화재로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창녕 법화사 다층석탑이 전한다. 고려시대 유행했던 청석탑의 일종으로 본래 보림사에 있었던 탑이었으나 보림사가 폐사되면서 법화사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화사에는 쌀 바위와 빈대에 관한 전설이 전한다.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 한 승려가 굶어 죽겠다고 하자 주지가 “쌀 담을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승려가 그릇을 가져오자, 주지는 암자 뒤에 있는 큰 바위로 가더니 합장하고 염불을 외었다. 그리고 석장으로 바위를 찢러 구멍을 내자 쌀이 나왔다. 쌀은 매일 먹을 만큼만 나왔다. 주지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새 주지가 부임해 왔다. 그는 쌀이 나오는 바위를 보자 욕심이 났다. 바위를 부수면 천석, 만석의 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석공을 시켜 구멍을 크에 뚫었다. 그러나 구멍에서는 쌀 대신 빈대가 쏟아져 나왔고 빈대가 온 절에 퍼져 절이 황폐해지고 말았다. 그러자 옛 법화암을 불태우고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전한다.

3. 창녕 극락암(極樂庵)



창녕 극락암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새말길 142
- 종 파 : 조계종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전통사찰 제36호

창녕 극락암은 창녕군 창녕읍 새말길 142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 15교구 양산 통도사 말사이다. 이 암자는 실제 연혁은 기록으로 전하지 않으나 태종 1년(1401)에 창건하여 광해군 9년(1617)에 중창하였고, 숙종 30년(1704) 뇌우에 사찰이 파손되었다고 전한다. 경내에는 관음전과 요사채인 수양루와 양진당, 산령각, 그리고 누각인 원음각이 있다. 관음전을 중심으로 전면에 중층 누각 건물이 있고, 좌우에 요사채가 있는 4동 중정형의 건물 배치이다.

관음전은 극락암의 중심전각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자연석 기단을 높게 쌓고 그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은 후 원형 기둥을 세운 외2출목의 다포계 맞배지붕 3량 구조이다. 산령각은 관음전 뒤쪽 우측에 있으며, 정면 1칸, 측면 1칸의 불당으로 겹처마 맞배지붕 3량 구조이다. 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대웅전 앞마당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4. 창녕 청련사(靑蓮寺)



창녕 청련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청련사길 99
- 종 파 : 조계종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전통사찰 제37호

창녕 청련사는 창녕군 계성면 청련사길 99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 15교구 양산 통도사의 말사이다. 영축산은 고려 때 지공법사가 석가모니께서 설법했던 천축국의 영축산과 모양이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창녕의 영축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청련사는 영축산에 있던 대흥사의 작은 암자로 세워졌으며 대흥사의 동쪽에 있다하여 동암이라고 불린 적이 있다. 현종 8년(1842)에 기록된 영산현 ‘영축산 대흥사 청련암 법당이건중창기(靈山縣 靈鷲山 大興寺 靑蓮庵 法堂移建重創記)’에 현판에 의하면, 대흥사는 신라 원효스님이 세운 절로 폐사되었으며 인조 6년(1628)에 중창하여 양수암이라 하였다. 숙종 2년

(1676)에 대흥사의 옛 터로 옮겨 대흥사로 불렀는데, 100여년이 지나 자시 폐허가 되었고, 그 중 대흥사의 산내암자였던 청련암만이 어렵게 남아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에 덕암(德庵)스님이 고을 수령과 신도들의 도움으로 현종 6년(1840) 법당을 중창하기 시작하여 2년 후 초여름에 새로운 면모로 출발하게 되었다. 법당이 중창되는 이 시점을 전후하여 청련암에는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존하는 현판기록에 의하면 순조 30년(1830)에 산신각을 건립하고 순조 34년(1834)에 법당을 보수하였으며, 현종 2년(1836)에는 쾌염(快暉)스님이 법당의 상단불상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후 청련암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법등을 계속 이어왔고, 근래에 들어서는 1983년에 옛 법당을 허물고 극락전을 새로 건립하였으며, 1993년 산령각, 종각, 요사, 천왕문을 짓고 다보탑과 비로자나불상 등을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좌우에 둘러 있는 봉우리들이 높이 솟아있어 마치 많은 별들이 북두성을 향하는 것과 같고, 앞뒤로 흐르는 골짜기 시내가 잔잔하여 수많은 옥가루가 허공에서 부서져 내린 듯하다. 이는 반드시 하늘이 아까워 숨겨놓은 곳이며 땅이 내보이기 인색하게 숨겨놓은 명승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가람을 세윈 법당을 창건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는 현판기록에서 청련사의 수려한 자연적 입지조건을 가늠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로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463호 창녕 청련사 목조아미타삼존여래좌상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464호 창녕 청련사 영산회후불탱,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 432호 창녕 청련사 반자 등이 전한다.

5. 양산 통도사 창녕포교당(梁山 通度寺 昌寧布教堂)



창녕 포교당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신당2길 4-3
- 종 파 : 조계종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전통사찰 제38호

양산 통도사 창녕포교당은 양산 통도사의 말사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으로 사찰의 창건배경과 그 시기에 관하여 3가지 설이 있다.

첫째, 현 통도사 창녕포교당 요사에 걸쳐있는 현관 중 불찰통도사본말사창녕포교당창건대시주공덕기(佛刹通度寺本末寺昌寧布教堂創建大施主功德記)에 의거하여 불기 2966년(1939) 7월 7일 춘담(春潭) 스님이 창녕지역 대지주였던 하준석(河駿錫)의 득남을 발원하여 세웠다는 설이다.

둘째, 경상남도 전통사찰 현황에 따르면 창건시기가 1920년으로 되어 있다.

셋째, 통도사의 구하(九河) 천보(天輔(1872~1965) 스님의 행적에 의하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23년 창녕포교당 인왕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창녕포교당의 창건시기는 1920년과 1923년, 1939년으로 각각 다르다. 그러나 몇 년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제강점기에 해당되어 창건시기는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창녕포교당의 위치는 ‘창녕군지명사(昌寧郡地名史)’의 창녕읍 신당마을 유래 부문에 의하면 “창녕여고와 포교당(仁旺寺)이 있는 일대로 말흘리의 동북부이다.”라 하여 옛 인왕사 사찰이 있었던 자리임을 밝히고 있다. 인왕사는 정확히 어떤 사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국시대(신라)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양산통도사 창녕포교당은 인왕사 자리에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사찰이라 할 수 있다.

창녕포교당은 일주문을 지나 절 안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설법전이 있고, 정면에 적멸보궁이 있다. 적멸보궁 뒤편에는 통도사 금강계단과 형태가 거의 같은 사리탑이 있으며, 적멸보궁 앞에는 석조석가여래입상과 그 좌우에 석등이 위치한다.

1989년 건립한 적멸보궁은 팔작지붕에 다포계 익공 양식의 공포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이다. 적멸보궁 안에는 1978년 청운스님이 이운해 온 관룡사 팔상전에 모셔졌던 목조석가여래좌상 1구를 봉안하였다. 이 불상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74호로 지정된 것으로 불상조성기에 의하면, 조선 영조 6년(1730)에 수화사 하천(夏天), 부화사 득찰(得察), 성찬(成粲), 종혜(宗慧) 등이 참여하여 만들었다.

목조석가여래좌상은 현재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로 추정되는 협시상과 함께 삼존상으로 봉안되어 있으며, 삼존상 오른쪽에는 목조지장보살좌상이, 왼쪽에는 목조석가모니열반상이 있다. 삼존상 뒷면은 사리탑을 볼 수 있도록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1962년 명부전에 봉안되었는데 현재 명부전은 없으나 1980년대까지는 명부전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조지장보살좌상 뒤편에는 지장보살도, 목조석가모니열반상 뒤편에는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이 관음보살을 협시하고 있는 관음보살도가 안치되어 있다.

2004년 완공한 설법전은 팔각지붕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60평 규모로 요사와 공양간, 종무소를 겸하고 있는 2층 건물이다. 2층에 있는 칠성탱은 화기에 의하여 금어(金魚) 남전(南田)이 1937년에 그린 것이다. 양산 통도사 창녕포교당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전통사찰로서 불법을 수호하고 포교의 일선에서 매진하고 있는 창녕의 명찰 중 하나이다.

6. 창녕 도성암(道成庵)



창녕 도성암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자하곡길 147
- 종 파 : 조계종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전통사찰 제39호

창녕 도성암은 국립공원 화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로 대한 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양산 통도사의 말사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월선사가 신라 헌덕왕 2년(810)에 창건한 고찰로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터만 남아 있다가 화왕산 자하골의 한 암자가 풍수지리가 나쁜 곳에 자리한 탓에 산 아래 주민들에게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재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기록으로 확인 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다. 현재 대웅전은 1978년경에 건립되는 등 최근에 새롭게 중건되었다.

도성암의 건물 위치는 종각을 겸하고 있는 보제루 누각 아래의 계단을 지나면 경내 중앙에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오른쪽에 요사채, 그 옆 축대 위에 삼성각이 있다. 종각에는 범종만 걸려 있으며, 보제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주심포계 익공 양식의 공포를 지니고 있는 누각 형태의 전각으로 2005년 10월에 완공하였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공포는 다포계 이익공 양식이다. 대웅전 외벽에는 심우도와 달마대사 등이 그려져 있으며, 주련은 “세존생도장(世尊生道場), 세존께서 도량에 나시니, 청정대광명(淸淨大光明), 청정한 대광명이다. 비여천일출(比如千日出), 마치 천 개의 태양이 솟아, 조휘대천계(照輝大千界), 대천계를 비추는 것 같도다.”의 내용이다. 대웅전 내부의 정면에는 삼존불이, 오른쪽에는 철조 지장보살좌상, 왼쪽은 신중도가 있다. 삼존불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37호 창녕 도성암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을 주불로 모시고 철조관음보살좌상과 철조대세지보살좌상을 좌우 협시로 안치했다. 주존인 아미타불은 불석으로 조성된 17세기경 작품이며, 이외 협시보살 및 철조 지장보살좌상과 후불탱은 모두 20여년 전에 조성되었다. 삼존불의 후벽에는 아미타후불화, 지장보살상 뒤편에는 지장보살도가 안치되었는데 화기가 없어 누구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다.

삼성각도 대웅전과 마찬가지로 1978년에 세워졌으며, 맞배지붕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 공포는 주심포에 익공 양식이며 삼성각 앞에는 석등 2기가 있다. 내부에는 특수화학소재로 조성된 치성광여래불을 독존으로 모셨고, 뒷면에는 치성광여래도가 있다. 치성광여래도의 양 옆에는 산신도가 있다. 치성광여래불의 오른쪽 측면에는 석고로 제작된 용왕상이 있는데 모두 1978년에 조성된 것이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도성암 요사채에 흙더미가 덮쳐 인명 피해까지 일어났지만 바로 정비하여 오늘날의 사찰 모습을 갖추었고, 현재 염불기도 영험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7. 창녕 석불사(石佛寺)



창녕 석불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로 135-71
- 종 파 : 법화종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전통사찰 제50호

창녕 석불사는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사찰로 1930년에 초창되었다. 창녕의 진산 화왕산(火旺山, 해발 756.6m) 중턱 요박골에 있던 신라 말기로 추정되는 창녕 석불사 석조보살입상(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 20호)을 경내로 옮겨 사명(寺名)을 석불사로 하였다고 한다.

1960년경에 대웅전과 극락전을 세우고, 2004년 구 대웅전을 두고 새로 대웅전을 지었다. 석조보살입상은 현재 구 대웅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데 노천에 있을 때부터 자식을 얻기 위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하며, 그런 이유로 석불사는 득남기도도량으로 유명해졌다.

사찰을 가로질러 계곡이 흐르고 계곡을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 구 대웅전, 극락전, 공양간이 있으며, 그 오른쪽으로 대웅전, 요사 등 새롭게 만든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다.

1960년에 세운 구 대웅전은 일반 기와집처럼 보이는 건물로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이다. 익공계 공포 구조로 처마는 홑처마이며, 정면에 칸마다 2분합 띠살문을 달았다. 법당 내부에는 노천에서 옮겨온 석조보살입상(높이 1.02m, 폭 0.8m)을 봉안하고 그 옆으로 불단을 조성하여 주존불인 석가모니불과 협시불인 관세음보살과 약사불을 모셨다. 석조보살입상은 4등신으로 주형광배와 불신이 한 돌이며, 머리에 통형관을 쓰고 가슴 앞에 양 손을 합장하고, 어깨에는 천의를 둘러쳤다. 눈과 얼굴은 인위적으로 갈아낸 흔적이 있는데 불상의 눈 등을 갈아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민간 신앙으로 생긴 훼손으로 보인다.

2004년에 새로 지은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겹처마 건물로, 정면 어칸에는 4분합, 협칸에는 3분합 띠살문을 달았다. 외벽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묘사한 팔상도와 도(道)를 소에 빗대어 이를 찾는 과정을 표현한 심우도가 그려져 있다. 기단은 디딤돌을 이용해 쌓았으며, 주초석 또한 둥근 다듬돌을 놓고 원주기둥을 세웠다. 내부 불단에는 삼존불을 모셨다. 주존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양측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으며, 삼존불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도 함께 모두 5존이 봉안되었다.

구 대웅전과 비슷한 시기에 지은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부 건무로 공포는 익공계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어칸과 협칸 모두 2분합 띠살문을 달았다. 법당 내부 불단에는 아미타불을 주부로 하여 약사불과 지장보살을 협시로 모셨다. 고려 초를 전후하여 석조보살입상을 모셔와 창건한 사찰로 이곳 지역민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8. 창녕 삼성사(三聖寺)



창녕 삼성암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북암길 147
- 종 파 : 조계종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전통사찰 제60호

창녕 삼성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양산 통도사 말사로,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사찰의 내력은 삼국 시대(신라)에 조성된 이곳 토굴에서 세 사람이 큰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여 삼성암(三成庵)이라고 부르다가 이후 어느 시점부터 삼성암(三聖庵)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천년 전 성인들이 탄생한 길지이므로 지금도 삼성암에서 올린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울산의 문수암(文殊庵) 미타암

(彌陀庵) 등과 함께 통도사의 3대 기도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후기 사제지간이었던 우홍(宇洪), 문찰(文察) 등 두 승려의 공력으로 중창하여 사찰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특히 우홍은 보광전(普光殿)을 지어 관음보살상을 봉안하였다. 관음보살상은 현종 5년(1839)에 쓴 ‘영산대흥사삼성암법당창건문(靈山大興寺三聖庵法堂創建文)’과 고종 3년(1866) 법당상량문(法堂上樑文)에 의하면, 비구 우홍이 현종 4년(1838)에 법당을 신축하고, 현종 5년(1839)에 관음상과 칠성성상(七星聖像)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관음보살상만 남아있고 칠성성상은 보이지 않는다.

보광전의 관음보살좌상은 팔각대좌 위에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 머리에 쓴 높고 화려한 보관 가운데에 화불(化佛)이 있어, 관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에 적당한 신체 비율로 균형감이 있으며, 양 손은 다리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인을 하고 있다. 변형 통견식으로 옷을 입고, 오른쪽 어깨의 물방울 모양의 옷주름, 연잎형의 승각기, 다리 사이에 펼쳐 놓은 옷주름과 왼쪽 무릎위에 흘러내린 세모꼴의 소매자락 등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시대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명부전에는 1909년에 만든 지장시왕도 1폭, 1921년에 조성된 창건주신성문찰대선사진영(創建主愼惺文察大禪師眞影) 1폭, 근대에 제작된 현관 등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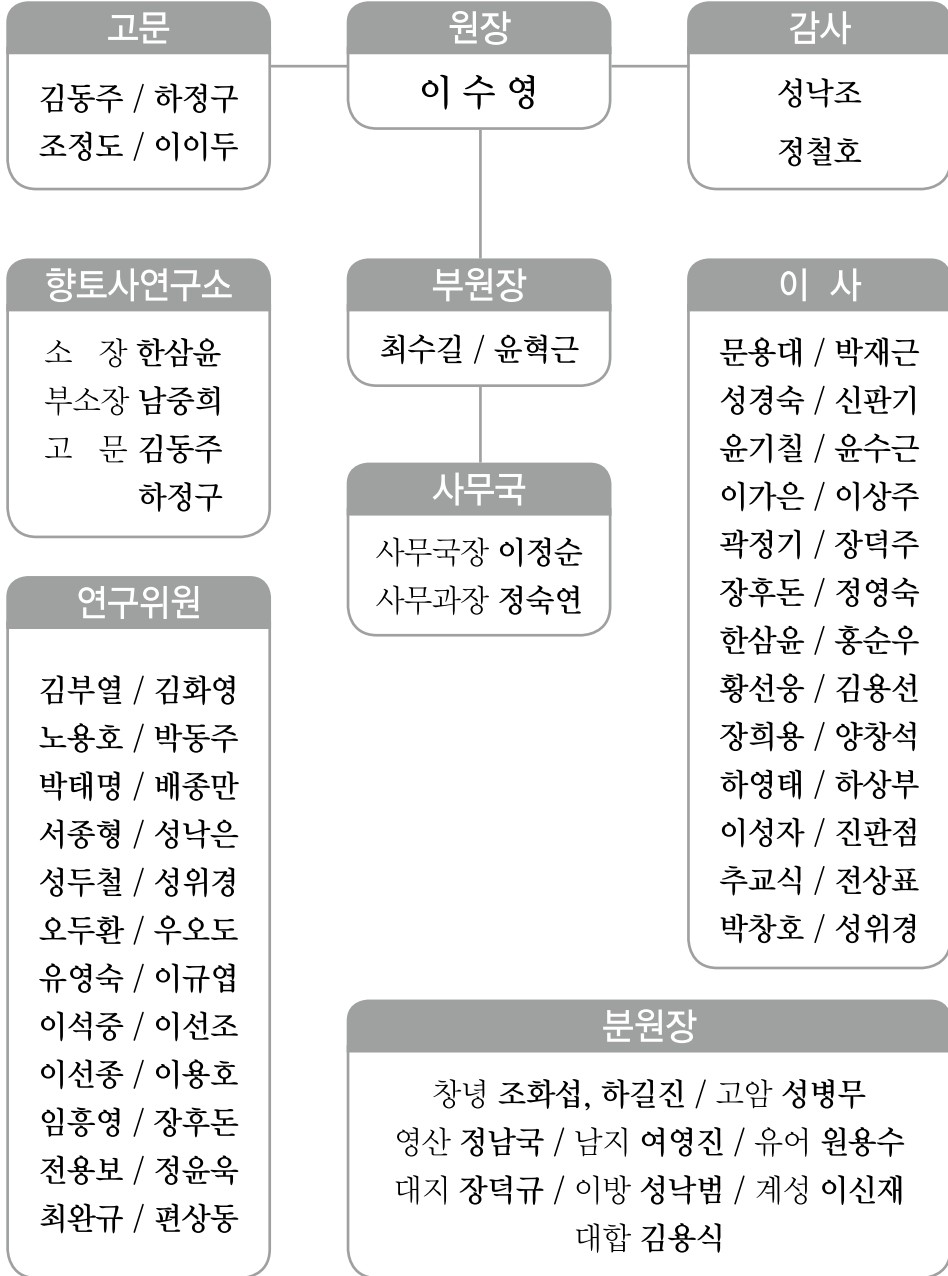
(출처 : 창녕군문화재단)

2022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일시	사업명	장소	내용
1월	제1차 이사회	문화원 2층 회의실	이사, 감사
2월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문화원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시조창
	임인년 설 합동 세배회	문화원 3층 강당	기관 및 사회단체, 문화원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등 200명 참석 1부 - 합동 세배회 2부(웃놀이 11개 단체참여)
	제2차 이사회	문화원 2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69차 창녕문화원 정기총회	문화원 3층 강당	문화원회원 및 기관단체 참석 400여명
	별관 신축 건물 준공식	문화원	별관신축건물 준공식 기관단체 및 임원, 회원 등 참석
3월	문화학교 개강	문화원 3층 대강당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시조창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문화원 2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부설단체 및 분원장 회의	문화원 2층 회의실	부설단체장, 분원장
4월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임원 및 연구위원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국내유적지	전회원
5월	2022년 제41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창녕공설운동장	주최 : 경상남도, 창녕군 주관 : 창녕문화원 내용 : 농악, 민속놀이, 민속무용 등 전통 민속예술 경연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시조창)
	2022년 하동세계 차 엑스포 행사 공연 참여	하동 차 세계 엑스포 주무대	문화원 부설단체 참여 (40명 참여)
6월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 스타를 찾아라” 경남지역 오디션	창녕문화예술회관	부설단체 참여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우포농협 마을축제 및 한마음대회		부설단체 참여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임원 및 연구위원	대상 :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일시	사업명	장소	내용
7월	부설단체 동아리회원 현장학습		동아리회원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문화원 2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제3차 이사회	문화원 2층 회의실	이사, 감사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시조창)
8월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임원 및 연구위원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9월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참가	서울	경남오디션 본선 진출팀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어른이 행복 무대”	서울 어린이대공원 특설무대	부설단체 2팀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대회 참가		참가 농악팀 임원 및 향토사연구위원 참여
10월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전회원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임원 및 연구위원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전국문화원 원장 연수회	부곡	전국 문화원장 (1박 2일)
	비사벌 문화제 동아리 참여	젊음의 광장	색소폰, 민요, 난타,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참여
	경남 시·군 문화원 임원 및 향토사 연구위원 워크숍	양산	임원 및 향토사 연구위원 참여 (1박 2일)
	제4차 이사회	문화원 2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3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문화원 2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70년사 책자 발행		창녕문화원 70년사	
11월	제16회 경남도지사배 경상도사투리 말하기 대회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부설단체 참여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시조창)
12월	제5차 이사회	문화원 2층 회의실	이사, 감사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제10호 창녕문화보, 제41호 창녕문화 발행		시, 수필, 여행기, 독후감, 향토문화연구 등 다양한 장르
	창녕문화원 “문화의 날” 행사	창녕문화원 3층 대강당	부설단체 공연 회원 200여명 참석

창녕문화원 조직도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 창녕문화 책자에 게재할 원고를 기다립니다.

창녕문화원이 매년 1회 발행하는 책자로 시, 수필, 여행기, 독후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 및 기사 보내실 곳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 길 10
- 전화 : 055)533-3777 / 532-6663
- 팩스 : 055)533-3775
- E-mail : cc635cn@hanmail.net
- www.cnccenter.co.kr

昌寧文化 제41호

2021년 12월 인쇄

2021년 12월 발행

| 발행처 | 창녕문화원

| 발행인 | 원장 이수영

| 편집인 | 창녕문화편집위원회

| 제 작 | 일성프린팅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9

E-mail ilsungpr@hanmail.net

昌寧文化院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길 10

Tel 055.533.3777 Fax 055.533.3775

E-mail cc635cn@hanmail.net

본 책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비매품>